



12

주 제 87 (1998)

문 학 예 술 종 합 출 판 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주체87(1998)년 제 12 호

(루계 제 614 호)



## ◆◆◆◆◆◆◆◆◆◆ 차 례 ◆◆◆◆◆◆◆◆◆◆

안고가는 해 .....	4
인민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시며 .....	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영광을 .....	6
운명 .....	7
좋은 아침 .....	19
이날의 감격 .....	20
하늘이 낸 신동 .....	21
오늘도 그 언덕에 서시여 .....	23
향도의 자욱을 따라 6 천리 .....	24
영웅의 삶을 빛내주는 은혜로운 품 .....	25
새아침 .....	27
백두산 녀장군의 노래 .....	37
흰눈에 대한 서정 .....	38
결사옹위 첫 전사 .....	38
아, 회령땅아! .....	39
우리 장군님 아시는 처녀 .....	39
눈보라여 .....	40
염분진은 절경일제 .....	40

백날과 하루.....	41
나의 하루, 나의 한생.....	47
군민일치사상을 참신하게 형상한 감동깊은 시초.....	48
량심앞에 성실하리.....	51
고마움에 대한 생각.....	52
명언해설.....	53
전쟁로병의 웨침.....	54
철천지원썩들은 종말을 고하고야말것이다.....	54
우리는 방패가 아니다.....	55
조국의 부름소리 들으며.....	56
그 기발 나에게 넘겨달라!.....	57
내 마음도 위성과 함께.....	57
그날을 생각하자(외 1 편).....	58
감명이 깊은 소설.....	59
사랑은 노래를 낳는다.....	61
신천의 흙이여!.....	64
제주진주.....	65
우리 식 우화문학의 혁신적인 면모.....	76

## 안고가는 해

리영철

하얀 눈꽃이  
거리의 축등우에 춤추듯 날아내리는  
한해의 마지막 밤

희망에 겨워  
추억에 젖어  
내 걷고 또 걷는  
**김일성**광장이여...

지나온 주체87년은  
우리 집에 처음으로 주체년력을 걸던  
설날의 그 아침부터  
내 앞길이 밝고 넓게도 열렸던 한해  
돌아보면 내 걸어온 모든 발자국들이  
여기로만 달려온 한해

잊을수 없노라  
9월의 그 광장으로 가는 길  
첫 태양절에 내 삼가 드린 노래여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이  
우주에서 울리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내 심장의 박동처럼 새겨들던 날이여

가슴벅찬 그 기쁨을 안고  
나는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장에 섰던 사람  
내 여기 이자리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변함없이  
우리 조국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  
였고

바로 여기서  
하늘도 강산도 꽃바다로 설레던  
공화국창건 50돐을 맞이했노라

그날 주석단에 참으로 자애롭게 서계시는  
아버이장군님을 몸가까이 우러러보며  
끝없이 만세를 부르고  
끝없이 꽃다발을 흔들었노라

나는 못잊어!  
겨울에도 얼음을 부시며 흐르는  
장엄하고 깨끗한 저 대동강물처럼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길을  
오로지 위대한 장군님 따라  
락관에 넘쳐 걸어온 이 한해  
온 나라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을  
신심에 넘쳐 빛내인 이 한해

정녕 못잊어!  
강은 강마다 발전소가 솟았고  
산은 산마다 염소떼가 굵이쳐흐른 이 한해  
천리마가 또다시 대교조의 나래를 뿜고  
성강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오른 이 한해를...

오, 흐르라 새 력사여  
울리라 제야의 종소리여  
이밤의 환희로운 그 시각에  
경사로 가득찼던 이해의 날과 달들을  
새해의 령마루에로  
내 다 안고가려니

아, 주체87년은  
그 어느 하루하루도  
세월의 흐름우에 실어보낼수 없는 해  
언제나 내 마음속에  
미래를 떠받든 기둥으로  
영원히 서있으리라

## 인민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시며

눈이 내린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공화국창건 50돐을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뜻깊은 이해를 두고 깊은 감회를 불러일으키며 흰눈이 내린다. 소리없이 내려쬐인다.

언제나 그러하지만 한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내리는 소담한 눈은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켜 주군한다.

하많은 추억을 불러주는 이해의 눈,

눈을 맞으며 지나간 한해를 돌아켜보는 우리의 생각 끝없이 깊어만 간다.

이해에도 정초부터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끝없는 사랑과 로고의 길을 이어오신 우리 장군님께서 오늘은 또 이 눈을 그 어디서 맞고계시는지.

최전연 전호가에서 병사들과 함께 맞고 계시는지 아니면 북방의 어느 험한 평지에서 맞으시지나 않는지.

인민을 위해 언제나 마른 길 굶은 길 가림없이 걷고 걸으시며 그 길에서 내리는 눈비를 다 맞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인민의 행복넘친 모습을 대하실 때 제일로 기뻐하시고 그 길에서 맞으시는 차거운 눈바람도 달게 여기시고 겪우시는 고생도 최상의 기쁨으로, 락으로 여기시는분이 바로 우리의 **김정일**장군님이다.

온 나라 인민모두가 다 즐기는 올해 설명절의 그 날에도 인민군부대와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아주시고 이어 눈보라 6천리를 헤치시며 자강도를 찾으시여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의 진격로를 열어주신 **김정일**장군님.

지난 1월16일, 눈보라 세차게 몰아치는 험산준령을 넘으시며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장강땅을 감돌아흐르는 북천강기슭의 양지바른 언덕에서 차를 멈춰세우시었다.

눈앞에 그림처럼 아름다운 산뜻하고 아담한 살림집마을이 펼쳐져있었다. 이 마을은 장강군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새로 일떠세운 55세대의 전기화된 주택마을이었다! 마을앞 강가에는 장강2호발전소가 자리 잡고있었다.

마을어구에 서시여 잠시 살림집전경을 만족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발전소부터 보자고 하시며 발전기실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령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북방의 엄혹한 추위에 북천강의 얼음장 터지는 소리가 쨍쨍 울리었지만 발

전기실에서는 발전기들이 쉬임없이 돌아가며 공장들과 마을에 전기를 보내주고있었다.

발전소건설과 생산능력, 전력공급정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대단히 훌륭합니다. 자체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장도 돌리고 주택들을 전기화한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라고 하시며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수고를 거듭 치하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어 발전소의 덕을 보는 로동자마을을 돌아보자고 하시며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고 마을에 들어서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들리신 집은 발전소에서 일하는 김운봉동무의 집이었다.

방안일을 하고있던 김운봉동무의 안해는 장군님께서 들어서시자 너무도 뜻밖의 일에 어쩔줄을 몰라하며 그이께 허리굽혀 큰절을 올리었다.

그러는 그를 다정히 손잡아 일으켜세우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집구경을 좀 하자고 왔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었다.

여러칸으로 되어있는 살림집은 전실, 방안, 부엌할것없이 어디나 하나같이 훈훈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손수 전기온도를 짚어보시며 방안의 온도도 가늠해보시고 전기가마들이 주련이 놓여있는 부엌에 들리시여서는 밥과 국을 동시에 끓일수도 있고 따로 끓일수도 있게 갖추어 진 화식설비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전기로 밥을 하니 가정부인들이 대단히 좋아할것이라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불장, 옷장, 장식대, 텔레비존수상기를 비롯한 가정집물들이 즐비하게 놓여있는 방안에 들리시여서는 친히 옷장, 이불장을 여시여 갖가지 옷들과 두툼한 이부자리들을 보시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참으로 오붓한 살림이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울부짖고있었지만 마을이 전기화되여있어 방도 덥고 밥도 전기로 짓고 여러가지 전기용품들 마음껏 쓰면서 한겨울에 조금도 불편없이 지내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것이 더없이 기쁘시여 시종 미소를 거두지 못하시며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전기화를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중소형수력 발전소들에서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생활하는 살림집을 보니 희한합니다. 별세상 같습니다. 전기난방이 된 구들도 따뜻하고 전기로 밥도 해먹으니 편리하고 문화적입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이 추운 겨울에 아무런 걱정없이 따뜻이 지내는것을 보니 만시름이 풀리는것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한 로동자가정의 행복을 보시는것이 얼마나 기쁘시였으면, 우리 인민모두에게 이렇게 전기화된살림집과 불편없는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심정이 얼마나 절절하시였으면 그리도 만족하시여 말씀하시였겠는가.

그 순간 한없이 자애롭고 인자하신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르는 김윤봉동무의 안해는 북받치는 걱정애 쏟아지는 눈물을 끝내 참아내지 못하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을 걸으시며 마음도 많이 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가 가슴에 마쳐와 《이 추운 날에 장군님께서...》 하고는 버르고버르던 인사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채 말끝을 흐리였다.

그러는 그의 모습에서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는 충직하고 성실한 인민의 모습을 그려보는듯 경애하는 장군님의 눈빛은 뜨거우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둘러선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확신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전기화라는것은 조명만이 아니라 전기로 난방도 하고 밥도 지어먹으며 텔레비존과 랭동기 등 가정전기제품들도 다 쓰는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전기화를 실현하여 인민에게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윤봉동무의 안해에게 부디 행복하라고 따뜻이 말씀하시고 집을 나서시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사납게 몰아치고있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쁘신 안색으로

다시금 주택마을을 둘러보며 말씀하시였다.

**《마을이 마음에 듭니다. 이만하면 공산주의 리상촌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중소형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자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그날밤이었다.

일군들은 이른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1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과 마을들을 돌아보시느라 수백리생눈길을 헤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상이 넘겨되어 너무 무리하시는것 같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오늘은 정말 기쁩니다. 전기화의 덕으로 따뜻이 지내는 인민들을 보니 힘이 생기고 아무리 걸어도 힘든줄 모르겠습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는 것이였다.

온 하루 로고에 찬 멀고먼 현지도의 길을 이으신 몸이시지만 인민들의 행복을 보시는것이 그리도 기쁘고 즐거우시여 사나운 추위도 겹쌓인 피로도 잊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정녕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은 그처럼 순결하고 뜨겁고 영원한것이거니.

인민의 행복을 최상의 기쁨으로, 락으로 삼으시고 그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생도 로고도 달게 여기시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어버이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어 우리 인민의 행복이 있고 부강번영하는 내 조국이 있는것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내리는 한송이의 눈을 보아도 그 눈을 맞으시며 바쳐가실 장군님의 로고를 생각하며 눈시울 적시는것이 아니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영광을

혜수 궤호비

수령님의 위업 이어가시는

영명하신 **김정일**동지

정력적인 령도로

인류앞에 숭고한 자욱을 찍어가시여라

그이는 정의와 자유의 수호자

그이께서 지피신 자주의 해불

영원히 불타오르리라

청년들 그 불길을 높이기에

누리에 활활 타오르리라

그이는 용감하고 대담하신 위대한 령도자

자유와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시리라

청년들은 한결같이 바라노라

조선이 통일강국으로 되기를

(필자는 베닌교수)

## 문명

박시영

##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달리는 승용차 안에 앉아계시었다. 그이께서는 지금 여러날에 걸치는 서부지구에 대한 현지지도를 끝내고 평양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번 현지지도과정에 또다시 우리 인민들로부터 크나큰것을 받아안으시었다.

…20세기의 마지막봉우리를 향하여 치달아오르고있는 오늘 승승장구하던 사회주의는 가슴아픈 대동란의 곡절을 력사에 기록하게 되였다. 19세기중엽 맑스와 엥겔스에 의해 그 탄생을 선포하고 거의 한세기를 걸치는 기간 수억만 인민대중의 심장을 들어잡은 사회주의가 배신자들에 의해 좌절과 붕괴에 직면했다. 지구 육지면적의 육분의 일을 차지했던 쏘련이 무너지고 잇달아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이 무너져버렸다. 세계 초대국을 자랑하던 쏘련이나 동유럽사회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근처에는 집권당이 관료화되어 사상사업을 췌버리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인민대중과 유리된데 있다. 간부들의 혁명화에 첫째가는 주목을 돌린 우리 당의 방침이 얼마나 정당했는가… 우리는 간부들의 비행이나 대중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것이라고 해도 묵과하지 않았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간부가 있는것이지 간부를 위해 인민대중이 있는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당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도 제시하였다.

인민, 참으로 그 이름만 조용히 외워보아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진다.

이번에 나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준 그들처럼 좋은 인민이 어디 있겠는가.

당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것이 우리 인민이다. 당이 있어 인민이 있고 인민이 있어 당이 있다.

지금은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것이다. 우리 인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문명하고 풍요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다. 아니 꼭 그렇게 만들거야말겠다.

승용차는 **김정일** 동지의 끝없는 사색을 담아실고 소리없이 달리고있었다.

벌써 마가을이었다.

산발은 누렇게 물들었고 가을결이가 끝난 전야는 험탱그레했다.

강냉이그루터기가 촌촌한 다락발을 지나치자 멀

리 연줄연줄 어깨걸고 과도처간 산발들이 안겨왔다. 문득 그이의 시선은 톱날처럼 들쭉날쭉한 산부리들 중의 어느 한 봉우리에 가뒹었다.

《저기 보이는 산이 무슨 산인지 아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옆에 앉은 림영옥을 돌아보시었다. 림영옥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사회안전부문사업을 맡아보는 부서의 책임일군이다.

《저… 호암산입니다.》

림영옥은 **김정일** 동지께서 가리키시는 산을 이윽도록 바라보다가 약간 주저하는 목소리로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그래, 호암산이지… 호암산!…》

문득 **김정일** 동지의 얼굴에는 짙은 회억의 빛이 어리었다.

(?!…)

림영옥은 그이께서 무엇때문에 것처럼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는지 알수가 없었다. 산이래야 이나라 그 어디 가나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산에 불과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혹시 저 산과 그 무슨 잊지 못할 인연이라도 있는게 아니실가?

《저 산밑에 호암리가 있겠지?…》

**김정일** 동지의 목소리에는 왜 그런지 측은한것이 깔려 있었다.

《예…》

림영옥은 여전히 어정쩡해서 대답했다.

《바로 저기에 장명선동무가 있겠구만.》

(장명선?!…)

순간 림영옥의 머리속에서는 전광석화와 같이 번쩍이며 떠오르는것이있었다.

장명선!… 어찌 그를 모르겠는가. 사회안전부책임일군의 한사람으로 일하다가 파오를 범하고 군안전부로 내려간 그를… 그이께서는 그래서 아까부터 생각깊은 시선으로 저 멀리에 있는 저산을 바라보고계시었구나! 그런데 자기는… 사실 장명선이 파오를 범하고 내려간데는 자기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였다. 왜냐하던 바로 자기가 장명선이 일하는 부문을 직접 맡아보는 부서의 책임일군이기때문이다. 인간적으로 보아도 그는 장명선과 막역한 사이였다. 몇년전까지만해도 그는 장명선과 사회안전부에서 함께 일했었다. 그런데도 자기는 그 모든 일들을 까맣게 잊고있었는데 장군님께서는 못난 자식에게 더 원심이 간다고 파오를 범한 전사가 마음에 걸리시여 그가 가있는 교장의



먼 산밭을 보시고서도 바쁜 현지지도의 길에서조차 못잊어하시지 않는가.

림영옥의 가슴은 저으기 뜨거워졌다. 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회오와 자책이 갈마드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장영선동무가 내려간지 얼마나 되던가?》

**김정일**동지께서 조용히 물으시였다.

《한 대여섯달 잘됩니다.》

《그래, 그렇게 되었지...》

《...》

《여기서 호암리까지 가자면 몇리나 될가?》

《칠십리길입니다.》

《칠십리, 사실은 그리 먼길은 아니야. 지척이라구 할수 있지...》

《장군님, 거기까지는 칠십리지만 거길 갔다가 가자면 2백리를 돌아가게 됩니다.》

《2백리? 2백리도 그리 먼길은 아니지...》

《장군님, 오후 2시부터 로씨야주체사상연구소조 대표단을 접견하게 되어있습니다.》

《...》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였다.

갈림길이 나타났다. 하나는 평양으로, 다른 하나는 호암리로 가는길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차를 세우라고 하시였다. 승용차는 《호암리 28km》라고 쓴 이정표앞에서 멈추어 섰다.

차에서 내리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이정표를 이윽도록 들여다보시다가 《호암리!》 하고 나직이 뇌이시였다. 사랑하는 전사의 이름을 외우듯이 림영옥은 차앞에 서서 뚫어오르는 걱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그이를 우려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정표앞을 천천히 거니시였다.

그러다가 문득 몸을 돌리시여 호암리쪽으로 걸음을 옮겨놓으시였다. 단번에 그곳까지 가시려는듯. 림영옥은 저도 모르게 그이를 뒤따랐다. 승용차가 발동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그이의 뒤에서 움직이였다.

온 누리는 깊은 정적속에 잠겼다.

그이의 머리칼이 바람결에 날리였다.

저렇게 호암리까지 가시여 사랑하는 전사를 만나보시려는가?

림영옥은 무엇인가 말씀드리고싶었지만 목이 짝 메여 마른 침만 삼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였다. 한동안 먼 하늘가만 바라보시다가 돌아서시였다. 이정표가 있는곳까지 오시였다가 다시 돌아서시였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저리실가? 얼마나 피로우면 저리실가?

이 나라에는 그이께서 몸소 걸음마를 떼주시고 애지중지 키우신 전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장명선이도 그들중의 한사람이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던 전사이기에 벌을 주시고도 저토록 가슴아파하시지 않는가. 과연 그 당자인 장명선은 장군님께서 이토록 마음쓰시며 가슴아파하신다것을 알기나 할가.

그렇다면 그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일을 잘하여 자기의 과오를 빨리 씻어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려야 할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한테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긍정적인 반향이 없었다. 아니 도리어 그 반대다. 여론에 의하면 작풍이 겸손하지 못하고 법권을 막 휘두른다고 한다. 과오를 범하고 내려간 사람이 그렇게 일할수 있는가. 그래서 림영옥은 그 소식을 듣고는 여직까지 장군님께 보고도 드리지 못하고있었다.

림영옥은 이래저래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시고는 추연한 낮빛으로 하염없이 한곳을 바라보시였다.

락엽이 한잎두잎 떨어져 그이의 어깨우에 내려앉았다.

먼 산밭에 뿌연 운무가 끼는듯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겁게 긴숨을 내쉬고 몸을 돌리시였다. 차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운전사에게 곧 추 평양으로 올라가자고 하시였다.

## 2

승용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차창밖으로 멀어지는 호암산 줄기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장명선이가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그냥 갔다는것을 알면 얼마나 섭섭해할가.

그래서 **김정일**동지께서는 더 가슴이 아프시였다. 허나 참고 견디지 않을수 없으시였다.

아끼고 사랑하는 전사이기에 어루만지기만 할수 없으시였다. 속담에 귀한 자식 때로 키운다지 않았는가.

물론 힘이 들것이다. 중장이 중좌로 강직되어 달려갔으니 무슨 생각인들 안하겠는가. 하지만 이겨내야 한다.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장명선이라는 인간은 영영 소생하지 못할것이다. 혁명의 락오자로 될것이다.

**김정일**동지의 눈앞으로는 문득 장명선이 과오를 범하고 강직되어 지방으로 내려가던 때가 어제 일인듯 선히 떠올랐다.

장명선은 머리를 푹 숙이고 서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피로운 안색으로 누런 금박이 번쩍거리던 중장대신 중좌를 달고 나타난 장명선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시였다.



《명선동무, 이제 동무의 과오가 뭔지 알겠소?》

《최고사령관동지, 정말 저에게 더 큰 벌을 내려 주십시오. 제가 높은 직무를 벼슬자리처럼 생각하면서 인민들의 고통은 알려구도 하지 않다니니…》

《음…》

**김정일** 동지께서는 괴롭게 긴숨을 내그으시였다.

장명선의 과오가 새삼스럽게 떠오르시였던것이다. 장명선은 서해안지방에 있는 어느 한 도안전국에 며칠간 출장을 나가있을 일이 있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날 한 농장원이 접수실로 찾아와 장명선을 만나자고 한다는 연락이왔다.

꼭 할 말이 있다는것이다.

장명선은 접수실로 나가 그 사람을 만났다.

몸집이 체소하고 볼품없이 생긴 50대의 사나이였다. 장명선은 대번에 기분이 언짢았다.

처음보는 사람이다. 도대체 무슨 일때문에 나들 만나자고 하는가?

체소한 농장원은. 번쩍거리는 왕별을 두개씩이나 달고 누런 금줄을 두른 모자를 쓴 장명선을 선망어린 눈길로 쳐다보며 당신한테 모든 운명이 달려있다는듯 자못 긴장해서 말했다.

이름은 신광남, 송전군 내서협동농장 농장원,

나이는 45살.

자기는 지금까지 군안전부와 도안전국에 여러번 신소청원을 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찾아왔다는것, 신소청원내용인즉 자기 아버지가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인민군대에 의해 처단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것이다. 아버지는 로동당원은 아니었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장명선은 잘 알았노라고 한 다음 그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도와 군의 해당부서 일군들을 통하여 그에 대한 자료를 알아보았다.

장명선의 전화를 받은 일군들은 신광남의 아버지는 청우당원이고 인민군대에 의하여 처단된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가 계속 신소질을 하는데 시끄러워서 죽을지경이라고 했다.

장명선은 그 일군들의 말을 듣고 신광남농민을 다시 만나지 않고 평양으로 올라와버렸다.

그는 후에 그 일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있었다. 그런데 신광남이가 위대한 장군님께 청원서를 올렸을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김정일** 동지께서는 청원서를 받아보시고 대노하시였다. 사실은 어떻게든기간에 인민들의 신소청원을 대하는 자세와 립장이 틀려먹었다. 더구나 신광남의 청원내용은 그의 운명문제가 아닌가. 만약 그것이 자기네 집안문제라면 그렇게 했겠는가, 어쩌면 그럴수 있는가. 동무는 언제부터 그런 관료배가 됐는가!

**김정일** 동지께서는 장명선을 호되게 질책하시였

다.

그후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일군을 직접 파견하시여 신광남의 신소청원을 해명하도록 하시였다. 그 과정에 송전군내에 신광남의 아버지처럼 《인민군대》에게 처단된 사람이 수십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범농민이거나 기본군중이었다.

문제가 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즉시 당중앙위원회와 사회안전부가 협동하여 《인민군대》에 의한 처단사건문제를 해명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 사업은 근 3개월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결과 《인민군대》에 의한 처단사건은 적들의 모략이라는것이 밝혀졌다.

적들은 우리 내부를 분열와해시키기 위하여 괴뢰군놈들에게 인민군복장을 입혀가지고 애국적인민들과 기본군중들을 《처단》했던것이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 가족, 친척들에게 《처단가족》의 루명을 벗겨주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렬사증을 수여해주도록 해주시였다.

한 일군의 무책임성은 우리 혁명앞에 돌이킬수없는 손실을 가져다줄번했다. 장명선의 과오는 엄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사상투쟁무대에 오르게 되었으며 중좌로 강직되어 군안전부로 내려가게 된것이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윽도록 장명선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시였다.

《나는 동무가 왜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였는가 하는것을 생활속에서 스스로 찾고 고쳐나가기 바라오. 그리하여 참다운 인민의 안전원, 당의 정치보위자가 되기 바라오.》

《민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장명선은 울먹거리며 대답했다....

벌써 그것이 여섯달전이다.

지금 그는 어떻게 일하고있는지? ...

### 3

추억의 물결은 잠들줄 몰랐다.

30여년전...

비가 내라는 날이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공사장지휘부를 나서시자 천천히 건설장주변을 돌아보시였다.

룡성도로확장공사장에 나오신 이후 매일 새벽마다 진행하시는 일과였다. 더구나 비가 내리고있다 보니 피해라도 있을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시였다.

아직은 러명 이전, 그러나 멀리서 비쳐오는 공사장의 외등빛으로 하여 주위가 한결 흰했다.

어디선가 삽질소리가 들려왔다. 공사장과 퍼그나 떨어져있는 유촉진곳에 자리잡고있는 집쪽이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리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웬

사람이 비발속에서 부지런히 삽질을 하고있었다. 마당가에 무쳐놓은 무연탄이 비물에 씻기지 않도록 손질하고있었다.

주인인가? 색이 바랜 군복을 입은것을 보면 제대 군인같은데 온몸이 비에 흠뻑 젖었다. 머리에 쓴 모자에서 모표가 빛난다.

(음 우리 대학생이로군!...)

**김정일** 동지께서는 마음이 후더워져서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시었다.

《수고합니다.》

(?!...)

삽질에 여념이 없던 그 학생이 고개를 들었다. 다소 의아한 빛이다. 그러더니 《뭘 수고랄게 있습니까. 석탄이 아깝게 씻겨내리길래...》 하고 어쭈께 중얼거렸다.

《아, 그렇습니까. 참 좋은 일을 하고있습니다. 석탄 한그람, 벽돌 한장도 다 나라와 인민의 재산이 아닙니까. 인민의 재산을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한것입니다.》

《허 뭐...》

제대군인대학생은 어색해했다. 자기로서는 그러럼 크게 생각하고 한 일이 아니라고 여긴 모양이었다.

《...》

**김정일** 동지께서는 감동어린 눈길로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제대군인대학생의 소박하고 진정에 겨운 모습을 보니 저으기 마음이 뜨거워지셨던것이다.

《비를 흠뻑 맞았군요. 자 내 비옷을 좀 걸치십시오.》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신의 비옷을 벗어 그 대학생에게 씌워주시며 삼을 빼앗아주시었다.

《아, 일없습니다. 이젠 뭐 다 됐는데...》

대학생은 당황해했다.

《자, 어디 나누 좀 해봅시다.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는데...》

**김정일** 동지께서는 잠깐사이에 나머지일을 맡김히 해놓으시었다. 그러느라니 그이의 웃도 흠뻑 젖고말았다.

《웃이 다 젖었습니다. 삼을 주십시오.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젠 그만하면 이 석탄무지는 끄떡없겠습니다. 아 시원해서 좋구만. 정신이 다 드는데...》

**김정일** 동지께서는 허리를 쭉 펴고 탁 트인 청으로 웃으시었다.

일을 끝내자 그이께서는 제대군인대학생과 나란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속담에 이르기를 하루밤을 자두 만리성을 쌓는다고 했는데 우리 함께 비를 맞으며 물도랑까지쳤으니 이젠 서로 알고 지냅시다. 나는 **김정일**이라고

합니다.》

《예?!...그럼?!-》

제대군인대학생은 온몸이 굳어졌다. 너무나 뜻밖인 모양이었다. 그는 변명하듯 말했다.

《**김정일** 동지, 정말 안됐습니다. 전 그것두 모르구...》

《허, 자꾸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도리어 제가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는 동지동지하지 말고 그저 동무라고 불러주세요.》

《아니, **김정일** 동지, 그것만은 저의 자유가 아닙니까.》

《자유라. 동문 고집도 웬간하구만, 그럼 그건 동무의 자유에 맡기기로 합시다.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부르니까?》

《장명선입니다. 장명선...》

제대군인대학생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군대식으로 절도있게 대답했다.

《장명선? 이름이 좋습니다. 이름이 좋으니 기억하기도 쉽겠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즐겁게 웃으시었다.

그러시고는 제대군인인가고 물으시었다.

장명선은 몸가짐을 바로 하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제대군인, 아주 좋습니다. 어느 학부입니까?》

《어문학부입니다.》

《어문학부? 아마 문학을 좋아하는 모양이지요?》

《아니 뭐 기자가 되여볼가해서...》

《기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장명선은 말끝을 맺지 못했다.

《왜 그렇니까. 무슨 근심이라도 있습니까?》

《학부는 중요한데 실력이 딸려서...》

《실력이? 군대에 나가기전에는 어느 학교에 다녔습니까?》

《고종을 다니다가...》

《고종이면 괜찮습니다. 높은 수준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군대정신으로 한번 본때있게 해보시오. 나는 동무가 꼭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일** 동지!》

《기자나 작가는 단순한 문필가가 아니라 정치가 구 사상자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우리 당사상전선의 일익을 담당하고있는 초병이라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동무가 앞으로 대학기간은 물론 대학을 졸업한후에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오늘새벽 인민의 재산을 귀중히 여기던 그런 자세와 립장으로 살기 바랍니다. 인민에 대한 복무관점이 똑바로 서지 않은 사람은 참다운 혁명가라구 할수 없습니다. 명선동무, 어떻습니까?》

《**김정일** 동지, 한생 명심하겠습니다.》

장명선의 두눈에서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알게 되신 장명선이였다.  
 그런데···  
**김정일**동지께서는 깊은 회억에서 깨어나시였다.  
 승용차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림영옥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피로우면 저러실가 장명선은 지금 장군님께서 저토록 피로와하시는것을 알기나할가?

## 4

바람이 불었다.  
 정원에 서있는 넓은잎나무들은 벌써 잎새들을 털어버리고 앙상한 가지들만 쳐들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제 곧 00군 부대로 현지시찰을 떠나셔야 했다. 최근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적들의 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침략의 기회, 약한 고리를 타진해보려는것이다. 이놈들을 꼭 눌러놓아야 했다. 만약 놈들이 분별없이 그냥 집적거리면 일격에 타격소멸하고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할것이다.  
 출발준비를 한 승용차가 소리없이 다가와 그이의 옆에 멈춰섰다.  
 책임부판에게 한손을 들어보이신 그이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림영옥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장명선에 대한 재료해차로 현지에 내려갔다가 금방 돌아온 림영옥의 사업보고를 들으시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신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서부지구에 대한 현지지도를 나가셨다가 장명선에게 들리지 못하신킨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시여 이튿날 즉시 림영옥을 내려보내시였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온 소식은 그이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다. 림영옥이 료해한바에 의하면 장명선은 별로 대중들한테 신망이 없다는것이다. 지내 《초당적》이라는것이다.  
 림영옥은 그것이 자기 죄이기라도 한듯 저도 몰래 한숨을 내쉬였다.  
 (초당적이라-)  
**김정일**동지께서 고개를 드시였다.  
 《동무 생각엔 어떻소? 그 <초당>이라는것이말이요.》  
 《사실 저도 그런 뒤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몹시 피로왔습니다. 자기가 사업하는 관내에 준법기풍을 세운다고 일면적으로 요구성을 높이기만 한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로부터···》  
 《그래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았소?》  
 《군안전부와 리당 그리고 관리위원회의 적지않

은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로동자와 농장원들은?···》  
 《그들도 몇명 만나보았습니다.》  
 《음, 몇명 만나보았던 말이지, 그가 사업하는 관내가 몇개 리더라?···》  
 《세계 리입니다. 그러구 국영농장이 하나 있구···》  
 《모든 리들에는 다 나가보지 못했겠지?···》  
 《예, 그가 살고있는 호암리를 기본으로···》  
 《응, 그래.》  
**김정일**동지의 존안에는 그늘이 졌다.  
 《떠나올 때 그 동무에게 이야기를 좀 해줬소?》  
 《예.》  
 《뭐라고 하였소?》  
 《사람들의 여론이 좋지 못하다, 지나치게 법권을 휘두른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좀더 신중하게 처신하기 바란다고 했더니 그저 덤덤히 듣기만 할뿐이였습니다. 제말이 잘 접수되지 않는지 씩씩한 표정이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손을 등뒤에 가져가시며 혼자소리처럼 뇌이시였다.  
 《씩씩한 표정이었던 말이지. 그러니 왕벌을 들썩이나 달았다가 중좌로 강직되어 산골마을에 내려가 있으면서도 기개가 조금도 죽지 않았단 말이지. 그게 중요해. 그게!···》  
 《?!···》  
 림영옥은 눈이 커졌다.  
 《동무는 다시 내려갔다가와야 하겠소. 신중하라, 심사숙고하라고만 해서는 안되겠소. 명선동무가 그렇게 한데는 그로서의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지. 그 기개, 그 배심을 우리는 귀중히 여겨야 하오. 대체로 일정한 직위에 있다가 과오를 범하고 내려간 사람들은 걸음걸음, 한마디한마디를 재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야 건느는 식으로 소심성과 보신주의에 떨어지는 경우가 드문하오. 우리는 결코 보신주의나 소심성, 요령주의나 배우라고 인민들속으로 내려보내여 혁명화를 시키는게 아니요. 우리에게만 사람에게 다 좋은 호인이 필요없소. 더구나 사회안전일군들은 인민에게는 순한 양이 되어야 하지만 나쁜놈들에게는 호랑이가 되어야 하는거요. 범죄자들이 칭찬하면 벌써 법일군으로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것을 의미하오.》  
 《!···》  
 《만약 동무가 명선동무의 심정을 모르고 동에 닿지 않는 소리를 했다면 그가 얼마나 섭섭했겠소. 난 그게 가슴아프오.》  
 《장군님, 제가 정말···다시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또다시 호암리에 내려갔다는 림영옥이다.

림영옥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실 이번에 다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한 인간의 운명, 더구나 가장 가까웠던 한 혁명동지의 운명에 먹칠을 할번했습니다. 저는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명선동무의 사업과 생활을 립체적으로 료해했습니다.》

《음 그래서?...》

《장명선동무는 그동안 참으로 많은 체험을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분주소장동무, 안전원동무하고 부르는것이 듣기가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렇수 있지. 전에는 중장이었으니까. 지금은 어떻다요?》

《차차 익숙은 돼지만 아직도 좀...》

《그게 중요하오. 익숙되는거말이요. 아직 익숙되지 못했다는것은 전직관념을 버리지 못했다는것을 의미하오. 혁명초소는 당적분공에 의해 달라지는것이지 그 어떤 타고난 벼슬자리가 아니거든.》

《...》

《그래서? 계속하오.》

《저...》

림영옥은 야전용지휘차쪽은 얼핏 띄여보았다.

시간이 없다. 대 지체시켜서는 안된다.

부관의 얼굴에도 수행일군들의 얼굴에도 그런 표정이 력력히 어려있었다.

《괜찮소, 어서 마저 돌아봅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곡진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림영옥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까스로 다잡았다.

...장명선은 무엇보다도 자기 성원들에 대한 요구성을 높였다. 관내에 안전사업질서가 쭉 서게했다. 그러면서도 인민들과는 겸손하고 소탈하려고 노력했고 너그려워지려고 애썼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몹시 어렵게 대했다. 어느날 점심녁이 지나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처녀들 두셋이 마당가에 모여 서서 수군덕거리는소리가 들렸다.

《평양에서 한자리하다가 떨어져내려왔대.》

《왕벌을 두개씩이나 달았었다는데 뭐, 틀이 있지 않아.》

《야, 그뻔 정말 무서웠겠다야, 지금두 무서운데.》

장명선은 돌아섰다. 참새무리처럼 쪼고, 까불던 녀인들은 어느새 뿔뿔이 집안으로들 사라져버렸다. 장명선은 잠시 서있었다. 왜 그런지 선뜻 가계되지 않았다. 저내들의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다. 자기는 저내들을 탓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그냥 갈수가 없었다.

그들한테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노라고 말해주고싶었다.

장명선은 대추나무가 유묘하게 울담안에 우뚝 솟아 있어 일명 《대추나무집》이라고 부르는 그 집

으로 천천히 다가가 열린 부엌문에 대고 말했다.

《아주머니!》

《예... 어머니!...》

무심코 고개를 들던 얼굴이 동그스름한 녀인이 경악한 표정을 짓는다.

《허허, 내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로구만. 아주머니, 목이 켄켄해서 그러니 물 한그릇 얻읍시다.》

장명선은 될수록 소탈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그때였다. 정지문이 뚝 열리더니 방 안에서 노한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느 덜된 녀석이 남의 집 체네를 보구 아주머니, 아주머니허구 못되게 노느냐영?!》

상고머리에 하얀 장미가 수북한 로인이 방비를 거꾸로 거머쥐고 달려나왔다.

《하 이거 로인님...》

장명선은 다급해나서 두손을 쳐들었다.

《뭘 로인님? ... 예끼 덜된녀석같은니...》 ,

로인이 방비자루로 장명선의 정수리를 향하여 후려쳤다. 다행히도 제때에 손을 들어 방어를 한 덕으로 방비자루는 손바닥에 떨어졌다.

《아이머니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다. 이런 녀석은 단단히 혼찌검을 내줘야 하느니라.》

또비자루를 휘두르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사색이 되어 어쩔바를 몰라하던 녀자가 로인의 손에 매달렸다.

《봐라!》

《할아버지! 안전원동지에요, 안전원...》

《영? 안전원이라구?! 이런 변 뵈나. 허 세상에...》

로인은 눈을 홑뜨며 장탄식을 했다.

《용서하시우, 이 늙은게 그만... 군복을 입지 않고 보통사람들처럼 사복을 했길래. 웬 심거운 녀석인가 허구...》 로인은 허리를 굽혀 사죄의 뜻을 표하려했다.

장명선은 당황하여 급히 다가가 로인을 일으켜세웠다.

《로인님, 이러지 마십시오. 도리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내려온지 벌써 석달이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처녀를 유부녀로 알고있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니, 아니웬다. 사업에 다망하신 안전원이고 보면 충분히 그럴수 있습니다.》

《로인님, 말씀을 낮추어주십시오.》

《원 무슨 말씀을... 아이쿠 이런 인사불성이라구야. 귀한 손님을 밖에 세워놓다니. 집안이 루추하지만 들어가십세다.》

장명선은 사양하지 않고 로인을 따라 선선히 방안으로 들어갔다.

장명선이와 마주앉자 로인은 담배함을 내놓고 부

억에 대고 점잖게 분부했다.

《야야, 물 한그릇 떠오려무나.》

잠시후에 문이 방긋이 열리더니 밧그래해진 얼굴에 수집은 미소를 띤 방금전의 그 처녀가 물사발을 들고 들어왔다.

《고맙소.》

장명선은 빙긋이 미소하며 물사발을 받아 단숨에 쪽 들이켰다.

《아니, 이게 꿀물이 아닙니까?》

그는 빈사발을 돌려주며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꿀물입지요, 이 산골의 특산이지요.》

로인은 자랑스레 말했다.

《허, 그렇습니까. 가슴이 쪽 열리는군요. 십년 묵은 체중도 떨어지겠습시다.》

《허허, 산골에서야 이런 재미로 살지요. 이제 안전원동지두 차차 정이 들게 될거우다.》

《로인님, 제 하나 부탁하고싶은게 있습니다.》

《부탁이요?!...》

《예, 이제부터는 저를 자꾸 동지동지 하지 말고 그저 자네라구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친구가 됩시다.》

《그거야 안전원동지가 하기탓입지요.》

로인과 헤어진 장명선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대추나무집로인이 하던 말이 깊숙이 숨어있던 상처가 저려나듯 쉽없이 가슴 한구석을 뜨끔뜨끔 쑤셔대는 것이었다.

친구가 되자고 해서, 허물없이 지내자고해서 그렇게 되는것은 아니다. 중요한것은 참다운 인간, 참다운 일군이 되는것이다.

다음 순간 그는 그 어떤 세찬 타격으로 하여 숨을 헉-내그었다. 송천군 내서협동농장 농장원 신광남...

그는 자기를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할가?

원한, 분노...

그것은 그의 가슴속에서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남아있게 될것이다. 그리고보면 자기야말로 그 사람한테 무엇으로써도 씻을수 없는 대죄를 진 죄인이다.

자기가 이처럼 강직되어 산골마을로 내려왔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평으로 될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그 문제로 해서 사상투쟁무대에도 오르고 비판도 받고 고민도 많이 했지만 한번도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해본적이 없는 자기였었다.

온밤을 해일처럼 덮쳐드는 번뇌와 고민으로 꼬박새운 장명선은 그 이튿날 송천군 내서리를 향해 떠났다.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신광남을 찾아가 사죄하지 않고서는 잠시도 건딜수가 없었다. 황혼무렵에야 내서리 신광남의 집에 당도했다.

과수원이 펼쳐진 야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아담한 문화주택이 었다.

방안과 부엌에서는 벌써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오고있었다.

장명선은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인기척을 냈다.

《제십니까?》

또 찾았다.

《예 누구신지?...》

방문이 열리더니 환한 불빛과 함께 체소한 사람의 상체가 나타났다.

장명선은 저도 모르게 흠칫하고 몸을 떨었다. 신광남이 었다. 그편에서도 갑자기 찾아온 안전원 중좌를 보고 저으기 놀라는듯했다.

《저- 신광남동무가 맞습지요?》

《예...》

《저는 북상군에서 안전원으로 일하는 장명선이라는 사람입니다.》

《북상군?》

신광남은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곳은 여기서 칠백리길이 넘는다. 그 먼먼길을 무엇때문에 왔는가?

《사실 난 광남동무한테 사죄하러 왔습시다.》

《사죄요?!...》

《예,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

신광남은 밖으로 나왔다. 창문과 출입문유리로 밝은 불빛이 흘러나왔다. 신광남은 장명선의 앞으로 바투 다가와 유심히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모르겠습시다.》

《그럴수 있습니다. 사실 전 한때...》

장명선은 떠듬떠듬 도안전국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과 그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음... 그러니 당신이 그 중장별을 박았던... 그런데 이젠 중좌가 돼서...》

신광남은 갑자기 지니간 나날이 되살아나듯 입을 살짝 앙다물며 신음소리를 질렀다.

그러더니 한자한자 쏘아내듯이 말했다.

《이제와서 무슨 사죄할게 있겠소. 당신두 중장이 중좌로 강직될 때에야 오죽했을까구... 난 사죄받을 일이 없소.》

신광남은 책 몸을 돌리더니 방안으로 들어가버리고 말았다.

장명선은 무참하였다.

온몸에 찬물을 들쓰는듯했다. 허나 무슨 말을 할수 있으랴. 이 세상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준다해도 할 말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설수도 없지않는가.

그는 불시에 엄습해오는 피로를 느꼈다. 토방에 걸터앉았다. 담배를 꺼내불었다. 몇모금 빨아보았으나 소태처럼 써서 비벼끄고 말았다. 졸음도 오지



않았다. 갖가지 상념들이 가을하늘에 날아에는 잡 자리때 마냥 어지럽게 맴돌았다.

또 담배를 피워물었다. 갑자기 마당이 캄캄해졌다, 방안의 불이 꺼진것이다. 어서 가라, 당신같은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않겠다 하는 무언의 선언처럼. 장명선은 암담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나 나와주지 않을가, 용서를 해주지 않을가 하는 일루의 희망마저 끊어져버렸다. 그러나 일어서서 홀 가버릴수 없었다. 새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였다.

깜빡 잠이 들었다...

누군가 흔들어 깨운다.

그는 화닥닥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앞에는 신광남이가 서있었다.

《아니 이거 어찌자는겁니까?》

그의 얼굴색은 어제 저녁과 별반 다를바 없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있었다.

《일없습니다. 저는 광남동무한테서 용서를 받기 전에는 돌아갈수 없는 사람입니다. 광남동무가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받은 마음속 고통에 비한다면 하루밤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저는 용서받을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저를 처벌하신것입니다. 아니 그 죄에 비하면 너무나 약파이지요. 저는 안전원은 커녕 당원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일때문에 중장이 중좌로...?!》

《그렇습니다.》

놀라운 시선으로 장명선을 쳐다본 신광남은 그의 두팔을 붙잡고 울먹거리였다.

《아아, 장군님께서는!... 장군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칠백리길을 달려와서 한지에서 밤을 지새우셨군요. 나는 중좌동지를 용서합니다...용서합니다!》

...림영옥의 이야기를 듣고계시던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진중한 안색을 지으시고 말씀하시였다.

《명선동무가 신광남농장원을 찾아가 사죄를 했던말이지요. 잘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사실 신광남농장원한테서 청원서를 받았을 때 나는 내가 내려가서 명선동무를 대신하여 사죄하고싶었습니다.》

《!...》

림영옥은 고개를 번쩍 들어 **김정일**동지를 우러렸다.

장군님께서 사죄하시다니 ?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시다. 사업상관계로 봐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봐도 자기야말로 장명선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될 사람이다.

하지만 자기는 사상투쟁이나 조직하고 비판이나 하는데 그쳤지 언제 한번 그토록 아프게 생각해본적이 있었던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영옥동무, 사람들한테서 제일 억울하고 분한것이 뭔지 아오? 진실을 인정받지 못하는것이요. 허위가 진실을 가리우게 해서는 안되지, 신소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일군들, 밑의 단위의 사업을 료해 하러 가는 일군들은 허위와 진실, 진실과 허위를 똑바로 가려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오. 사람에게 대한 평가에서는 결코 다수가결의 원칙을 적용할수 없소. 백사람이 나쁘다고 해도 한사람의 말을 더 중시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있는것이요.》

그이의 목소리는 점점 준절하게 울리였다.

《그런데 동무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결충다짐이라는 말이 있는것처럼 결갑대기만 훑다왔단말이요. 만약 이번에 동무가 다시 내려갔다 오지않았더라면 어떻게 될뻔했습니까, 동무의 말대로 한 인간의 운명, 귀중한 혁명동지의 운명에 먹칠을 할뻔했던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형태는 다르지만 명선동무가 범한 과오와 같은것이 아니겠소.》

《! ...》

림영옥은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큼직한것이 쿵내려났는것 같았다.

《어떻소? 접수가 되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드럽게 물으시였다.

《예. 전... 인간으로서, 동지로서 자격을 상실한...》

《됐습니다. 제때에 과오를 깨닫고 교훈을 찾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장명선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교훈적입니다. 진실을 가려보는 인민들의 눈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장명선동무는 저도 모르는 새 자기를 여느 사람들과 다르게 내색했으니 어떻게 인민들이 그에게 결을 주겠습니까. 장명선 동무가 평양에만 있었으면 대추나무집로인한테서 비자루로 얻어맞는 <봉변>도 안당했을것이며 또 신광남농장원한테 찾아가 사죄할 생각도 못했을것입니다.》

《...》

《동무도 거기서 큰 교훈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다시는 과오를 범한 사람이라고 해서 쓴외보듯하거나 색안경을 쓰고 보아서는 안되겠습니까. 더구나 사업에 대한 높은 요구성을 초당성이라고 보아서는 안되겠습니까. 그런 시비군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나쁜놈들의 작간입니다. 우리 장명선동무를 잘 도와줍시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림영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얼마후 **김정일**동지께서 타신 야전용지휘차는 머나먼 전선길을 향해 떠났다...

## 5

눈이 내렸다.

함박눈이 내렸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집무실 창가에 서시여 밖을 내다보고계시었다.

그이께서는 방금 림영옥이 가져온 문건을 검토하시었다.

장명선이 일하는 군안전부에서 올려보낸 문건이었다. 하염없이 쏟아져내리고있는 눈발을 바라보고있느라니 그것들이 방금전에 보신 글자로도 되어 보이고 생생한 산 화폭으로 되어 눈앞에 떠오르기도 한다.

…장명선은 아침 일찌기 마을 복판에 자리잡고있는 농장관리위원회로 향했다.

관리위원장을 만나려는것이다. 몸집이 좋고 마음이 푸수해보이는 관리위원장은 장명선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마주앉아 담배를 피워물었다.

《무슨 일루 이렇게?!…》

관리위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안전원동무한테서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예, 들었습니다. 거둬들인 낱알을 허실하고있다는거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전원동무가 확인한데 의하면 지금 작업반들에서 제때에 탈곡을 하지 않아 많은 량의 낱알을 허실하고있습니다.》

《허, 그래요. 아무러문…》

《이것이 작업반장들한테서 받아 온 조서입니다.》

《조서요?!…》

방금전까지만 해도 험한하던 관리위원장의 얼굴에는 급기야 그늘이 졌다. 장명선이 책상우에 내놓은 조서용지를 본것이다. 거기에는 시뻘건 손도장까지 찍혀있다.

《하 이거 소장동무, 왜 이러시우. 정말 조서를 받아왔습니까? 참 뭐 그렇게까지…》

관리위원장은 인츰 표정을 바꾸어 너스레를 떨었다. 그럴수록 장명선의 얼굴은 딱딱해졌다.

《위원장동무도 잘 알겠지만 거둬들인 낱알을 빨리 탈곡해서 국가에 납부해야 한알도 허실하지 않겠는데 이 구실 저 구실 대면서 잘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고칩시다. 하지만 내가 묵인했다는것은 좀…어찌겠습니까. 동무야 우리와 한집 안식구나 다름없는데… 고칩시다.》

《아니.》

장명선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새 조서용지와 인접통을 꺼내놓았다.

《이것을 읽어보고 여기다 손도장을 찍어야 하겠습니까.》

《손도장이요?!…》

《예.》

《…》

얼굴이 굳어진 관리위원장이 장명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장명선의 낮빛은 쇠판처럼 거무스레하고 딱딱했다.

《으-음-》

관리위원장은 은연중 신음소리를 내며 장명선을 피끗 쳐다보고는 입을 꼭 다물고 손도장을 찍었다. 장명선은 관리위원장방에서 나왔다.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진다. 마치못해 손도장을 찍던 관리위원장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안겨온다.

그의 행동에서는 그 어떤 무언의 위협이 느껴진다. 허나 그는 일단 결심한것에서 단 한걸음도 물러설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위법과 투쟁하라고 안전일군이 있는게 아닌가.

런속 들이닥치는 자연재해로 식량사정이 나날이 어려워지고있는 이때 다 익혀놓은 낱알까지 제때에 탈곡을 하지 않아 허실한다는것은 용서할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범죄다.

그날 저녁이다. 장명선이 석계리에 나갔다가 사무실에 들어오니 나이지속한 안전원이 경비실로 전화가 왔다고 알렸다.

무심코 송수화기를 들던 장명선은 점차 심각해졌다.

《예, 장명선입니다. 어떻게 위원장동지가 이렇게다…일없습니다.…예, 그래서요? …안했습니다. …》

통화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말은 저쪽에서 하고 장명선은 간단히 대답하는것으로 끝났다. 마지막 말은 그 어떤 불결한 물체를 싹둑 잘라버리듯이 무자비하고 단호했다.

장명선은 송수화기를 놓고도 한동안 묵묵히 서있었다.

《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이 아닙니까?》

옆에 서있던 안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명선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까두 전화가 왔었습니다. 명선동지를 바꿔달라구…》

《…》

장명선의 귀전에는 아직도 웅글게 울리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는듯했다.

안전원동무야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할수 있지 않는가, 공부도 많이 했고 높은 직책에도 오래 있지 않았는가, 생활이란 간단하지 않다, 복잡하다, 사업에서는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이제야 우리도 나이가 있지 않는가, 좀 도와달라, 그 동무는 관리위원장이로서 우리군이 자랑하는 동무이다, 제



발 문제를 복잡하게 번지지 않도록 해달라, 부탁한다.

전화는 이렇게 끝났다.

징- 전류흐르는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듯 고막이 멍멍했다.

《사실.》

안전원이 말했다.

《명선동지는 우에만 계셔서 잘 모르지만 위법과 투쟁한다는것도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다.》

(웁은 소리다. 밑의 사람에게 요구하기는 쉬웠지만 내가 직접 하자니 얼마나 힘이든가.)

《가령 어떠한 사건을 취급한다구 봅시다. 처음에는 그와 가장 가까운 근친이 찾아오구 그 다음엔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데... 대체로 인간적으로 편결된 선을 타군하지요. 그래도 안되면 저쪽에서 도리어 위협 비슷한 암시를 하지요. 허-참!...》

(그래 그렇게 될수도 있다. 아니 충분히 있을수있는 일이다.)

이윽고 장명선은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나는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을 위해 싸우다 그렇게 된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소.》

《...》

안전원은 흠칫 놀라더니 고개를 수긏이 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간 어느날 저녁 장명선이 집에 들어가니 부엌방당에 커다란 마대들과 지함이 놓여있었다.

《저건 뭐요?!...》

장명선의 눈은 대번에 날카롭게 번쩍거렸다.

《저 아가 관리위원회에서 회계과장과 회계원처녀가 관리위원장이 가져다주라고 했다면서...그 자리에서 되돌려보내려 했으나...》

자기잘못이기나 한듯 안해가 주눅들린 소리로 피염피염 뇌인다.

《흠 알겠소. 난 그만한 뽕물쭈름 먹구 끄떡두 안하는 사람이요.》

장명선은 쓴웃음을 짓고 방안으로 들어가 전화를 걸어 그 모든것들을 그대로 관리위원회로 실어가도록 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여전히 강가에 서계시었다.

눈은 하염없이 내리고있다.

어찌면 저 눈발속을 헤치며 뺨대가 굵직굵직하고 키가 후리후리한 장명선이 성큼성큼 걸어와 거수경례를 할것만 같이 생각되시었다.

웅케 이겨냈다. 그러자니 마음고생인들 오죽이했겠는가. 인간의 진면모는 현실속에서, 어려운 시련속에서 알수 있다. 혁명가에게는 오직 하나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주저않지 않고 자기 본연의 자세대로 투쟁해나가는 계속혁명의 투철한 정신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장명선의 사업과 생활에서 바로 그것을 보시었다.

참으로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귀중한 재부를 안으신것만 같으시었다.

창가에서 돌아서신 그이께서는 집무탁앞으로 다가가시여 힘있고 박력있는 필체로 문건표지에 《법대로 처리할것》이라고 쓰시고 날자와 자신의 존함을 적으시었다.

## 6

세월은 살같이 흘렀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시고 방안을 거니시면서 자주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시었다.

장명선을 기다리시는것이다.

(그러니 벌써 3년세월이 흘렀구나!...)

3년!... 인생에서 많은것을 얻을수도 있고 많은것을 잃어버릴수도 있는 기간이다. 그 기간 장명선은 인간으로서 일군으로서 귀중한 체험과 사업성과를 쌓았으며 성장해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로동신문》 4면 상단에 실린 《우리 안전원》이라는 궁정 기사를 몇번이나 읽으셨는지 모른다.

보풀이 일고 어떤 대목에는 붉은 연필로 밑줄까지 그으셨다. 읽을수록 장명선이 대견하게 생각되시었다.

(도착할 때가 되었는데...)

그이께서는 가슴을 울렁이시며 조급한 마음을 달래시었다.

문이 열렸다. 장명선이 들어섰다.

그는 갑자기 현훈증이 오는듯 발을 헛짚으며 비칠거렸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띠우신 김정일동지께서 두팔을 벌리시고 빠른 걸음으로 마주 나가시었다.

《왔구만! 왔어!...》

《최고사령관동지!...》

간신히 자신을 다잡은 장명선은 거수경례를 하고 인사말을 하다가 그만에야 끝을 맺지 못하고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견잡을수 없는 감격과 격정으로 하여 그의 어깨는 세차게 떨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쉬임없이 오르내리는 장명선의 어깨를 쓰다듬으시며 갈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그만하오, 그만해, 응.》

그럴수록 장명선은 어린애처럼 흐느꼈다.

장명선이 진정하기를 기다리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두손으로 그의 양어깨를 잡으시고 얼굴을 들

여다보시었다. 그러시고는 중좌의 전장도 어루만져 보시고 색이 바른 정복도 쓰다듬어주시었다.

《얼굴도 검실하게 타고 정복도 색이 바랬구만.》

그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급히 오다보니. 그리구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부르신줄을 모르구...》

장명선은 얼굴을 붉히며 얼버무리었다.

《일없소, 나는 동무가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새 정복을 입고 나타났더라면 이렇게 기쁘지 않을것ियो. 입던 그대로가 좋소.》

《!...》

장명선의 눈곱엔 눈물이 흥건히 피여올랐다.

《힘들었지? 응.》

그이의 다정한 음성이다.

《예, 처음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음- 그랬을테지, 그랬을테지... 자리에 좀 앉자구. 그동안의 이야기나 좀 들읍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장명선을 소파에 앉히시고 자신도 그 옆에 나란히 앉으시었다.

《사실.》

장명선은 침착하려 애쓰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 강직되어 호암리로 내려갔을 때는 죽고싶었습니다.》

《허 허!-》

**김정일**동지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정깊은 시선으로 장명선을 돌아보시었다.

《대추나무집로인이 방비를 들고 내쫓으려 했다면서...》

장명선은 그때 일이 떠올라 얼굴을 붉혔다.

《그런 일이 있었습시다.》

장명선은 눈길을 떨군채 방바닥을 줄곧 내려다보기만 한다.

《참 로인이 결작입니다. 일을 잘못하면 방비자루가 아니라 홍두깨로 맞아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그러시고는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다가 두손을 맞잡고 경건한 자세로 서있는 장명선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명선동무, 거 보시오. 생활이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인민대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자는 구호를 제기하는것입니다. 인민들의 사상과 감정, 생활과 정서를 모르면 인민들에게 맞는 정책을 할수 없습니다. 동무가 파오를 범하게 된것도 그것을 외면했기때문입니다. 어느덧 자기를 인민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버릇되었기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민들을 하대하게 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판료화되는것입니다.》

니다.》

《...》

그이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들을수록 장명선은 가슴이 저려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방안을 거니시며 말씀하시었다.

《<이민위천>의 사상,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받든다는 수령님의 이 사상이 한갓 구호로서, 학습토론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명실공히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사업의 전과정으로 되고 또 그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사회안전사업도 결국은 수령님의 이 사상을 잘 받들고 철저히 옹호보위하는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침해하는 사소한 요소와도 무자비하게 투쟁하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장명선은 눈물이 글썽해서 말했다.

《명선동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가 언제였지?》

그이께서는 나직이 물으시었다.

《저, 30여년전 어느 비오는 날...》

장명선은 북받치는 감격을 누를길 없어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그때가 새벽이었지,》

**김정일**동지의 얼굴에는 못잇을 회억의 빛이 짙게 어리었다.

그이께서는 또다시 방안을 거니시었다.

방안에는 숨엄한 정적이 흘렀다.

그이의 발자국소리만이 조용히 울리었다.

《나는.》

그이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하여 떨리었다.

《언제나 그날 새벽비를 맞으며 무연탄이 씻겨내리지 않도록 삽질을 하던 동무의 모습을 잊을수가 없었소. 물론 그것은 그리 큰것이 아니요. 허나 인민의 재산을 아끼려는 그 마음이 귀중한게 아니겠소. 그 마음이... 그래서 난 동무를 사랑했고...》

《최고사령관동지, 저와 같이 배은망덕한놈은 이 세상에 없습시다.》

장명선은 가슴을 찢는듯한 아픔을 느끼며 신음소리를 냈다.

그의 눈에서는 피같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손을 그의 어깨우에 얹으시었다.

《울지 마오. 진정하십시오. 사람이란 파오를 범하지 않는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위우치고 그것을 씻을줄 아는것이 더 중요한거요. 동무는 그동안 일을 잘하였소. 자 보오.》

그이께서는 책상우에 펼쳐놓은 《로동신문》을

가져다 보여주셨다. 거기에는 장명선에 대한 긍정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려있었다.

며칠전에 간간 기사다. 장명선이 자신도 이미 그 일에 대해서 잊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저으기 흥분하신 어조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나는 동무가 내려간후 동무의 사업정형을 보고 반군했는데 결국 이 짧은 기사에 그 모든 내용이 다 있다고 할수 있소. <우리 안전원>! 얼마나 듣기 좋은 이름이요. 참 기사의 제목이 좋소. 나는 이 기사를 읽고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룰수가 없었소. 허허, 누가 이 기사의 주인공을 그전의 장명선이라고 할수 있겠소. 난 정말 기뻐소. 내 그래서 동무를 불렀소.》

《!...》

장명선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어제는 파오를 범한 전사가 가슴아파 잠못이루셨을 그이, 오늘은 그 전사가 파오를 씻었다고 기뻐 잠못드시는 그이의 친어버이사랑앞에 목이 꼭 메여왔다.

**김정일**동지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그의 귀전을 계속 울리 었다.

《동무는 그동안 일을 잘했소. 어려운 고비들을 용케 이겨내었지. 힘들었을거요. 참기 어려운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을것이구... 하지만 사회안전원은 없어놓아도 뒤집어놓아도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변심을 모르는 조선로동당의 당원이 되여야 하오. 변심을 모르는...》 .

《최고사령관동지!...》

장명선은 몸가짐을 바로 하며 그의 모습을 경건히 우러러보았다.

창가에다가가시여 먼 하늘가를 바라보시던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마음속생각을 무르익히시듯 장명선을 향해 돌아보시였다.

《명선동무, 나는 동무를 보다 중요한 혁명초소로 파견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겠소?》

《최고사령관동지, 명령만 주십시오. 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장명선은 차렷자세를 하고 힘있게 대답했다.

《지금 미제와 세계반동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질식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소. 특히 적들은 분계연선과 국경연선을 통하여 온갖 이색적이고 비사회주의적인 황색바람을 우리내부에 불어넣으려고 갖은 모략책동을 다하고있소.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당의 정치보위대인 사회안전기관을 더욱 강화해야 하오.》

**김정일**동지의 안광에서는 섬광이 이는듯했다.

《나는 동무를 국경연선인 00도 안전국장으로 파견하려고 하오.》

《예?! 도안전국장으로 말입니까?》

《그렇소.》

《...》

장명선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착각이 아닌가 했다. 어떻게 자기가 것처럼 높은 신임을 받을수 있단 말인가.

《허허, 왜 자신이 없소? 장명선이답지 았구만 응.》

**김정일**동지께서는 크게 웃으시며 장명선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였다.

《나는 동무가 꼭 해내리라고 믿소. 언제나 <우리 안전원>이라고 불러주던 인민들을 잊지 마시오. 그렇게 일하시오. 그렇게!...》

《최고사령관동지, 너무나 높은 신임이여서...》

《아니 동무는 할수 있소. 동무야 오래동안 부에 있으면서 여러 단위의 안전사업을 맡아본 경험도 있지 않소. 더구나 3년동안 하부말단에 내려가 일한 경험이 있는데 뭐가 두렵소. 잘해보시오. 장명선이답게 <우리 안전원>처럼 말ियो!》

《!...》

장명선은 아무 말씀도 울리지 못하고 쿵쿵 뛰는 심장의 박동소리만을 듣고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림영옥이 모자와 군복을 받쳐들고 들어와 책상우에 놓았다. 테두리에 누런금줄이 간 장령모자와 금빛견장이 빛나는 장령복이었다.

《자, 어서 입어보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장명선에게로 다가가 단추를 벗기고 군복저고리를 입혀주시였다.

모자도 그렇게 씌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돌려세워보기도 하시고 옆으로도 보시고 앞으로도 보시더니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음, 좋아, 명선동무 장령복을 입어야 어울려. 3년전보다 더 림름해졌는걸.》

《최고사령관동지!...》

장명선은 그만에야 오열을 터뜨리고말았다.

《어깨에 왕별을 단 사람이 자꾸 울기만 해서야되나. 사실 동무를 보내놓고 나도 얼마나 괴롭던지...》

**김정일**동지의 눈가에 물기가 번쩍거렸다. 장명선은 크나큰 걱정을 안고 그이를 우려했다.

한번 믿음을 주시면 끝까지 믿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그 품에 나의 운명이 있고 우리모두의 운명이 있고 조국의 운명, 사회주의운명이 있지 않는가...

아, 이 세상 끝까지 따르리라! 그 운명의 품을 지켜 한생을 다 바쳐가리라!

창문가로 흘러든 눈부신 해빛이 방안을 가득히 채운다.

# 좋은 아침

성민백

이른아침  
물오리떼 깃을 치는 강기슭에  
철갑모 눌러쓴 공병중대 사관장  
투박한 공병가위로  
마분지를 오리며 앉았네

도하훈련을 앞두고  
야영지 천막속에서  
중대의 전우들 굳잠에 든 이 아침  
어디선가 조용조용 들려오는 말소리...  
가까이 다가서는 발자욱소리...  
사관장은 벌떡 일어섰네

수려한 산발넘어  
아침해가 떠오르는듯  
환하게 웃으시며 곁에 오신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신것 아닌가  
꿈인듯 생시인듯  
사관장의 가슴 그냥 울렁이네

-사관장이구만  
여기서 뭘하오  
땅에 떨어진 공병가위 집어드시며  
장군님께선 다정히 물으시네

-아이들의 채양모를  
만들던중입 니다  
어릴적 장난하다 들킨 아이처럼  
얼굴 붉히며 주저하며  
사관장은 오리던 마분지를 장군님께 드렸네  
따라선 장령의 어이없는 시선  
철없는 병사를 나무라고있었네

- 채양모라 채양모...  
그렇듯해  
알뜰한 정신이 깃든  
한 마분지를 드시고  
떠들떠들 이어가는 사관장의 설명을  
유심히 들으시던 장군님  
이것은 묘한 발명이라고  
장령들을 둘러보시네

-얼마나 좋소  
이런 좋은 발명을

우리 병사가 했던말이요  
오늘 아침은 정말 좋은 아침이구만

기쁘시여  
못내 기쁘시여  
사관장의 어깨를 두드리주시는 장군님  
꽃같이 고운 우리 아이들  
이 모자를 쓰면  
여름철 피약벌에도 타지 않을거라고  
미래를 위해 사색할줄 아는  
이런 병사들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네  
-이 동무를 평양에 보내어  
과학기술축전에 참가시킵시다  
그래서 온 나라 아이들이  
여름철에 이런 모자를 쓰도록 합시다

아 장군님  
능금같은 아이들의 두볼이  
해벌에라도 끄슬릴가싶어  
그토록 마음쓰시는 온 나라 아이들의 아버지  
장군님의 즐거운 미소 가득 어렸는가  
온통으로 하늘가에 금노을 펼쳐지네

이 아침, 좋은 아침  
장령들의 가슴 달아올랐네  
그 사랑 끝없이 비껴가는 저 하늘가에  
어느놈이 감히 핵구름을 몰아온다더냐  
어느놈이 감히  
검은 포연으로 그 하늘 흐리울수 있다더냐

사관장은 가네  
금노을로 단장한 산속길 지나  
야전승용차를 타고 평양으로 가네  
이렇게 가네 우리 조국은  
장군님 이끄시는 총대에 받들려  
더 아름다운 미래로

허나 사관장은 알지 못했네  
다시 전선길 가시는 장군님  
새 기술 혁신봉화상을 수여하라고  
야전지휘차안에서 전화들 걸고계시는줄...  
이렇듯 크나큰 사랑속에 마련되는  
우리 조국의 더 좋은 래일인줄...

# 이날의 감격

(총련) 김학렬

한송이 한송이  
고르고 또 골라  
꽃바구니를 엮은들  
아름다운 가락으로  
다함없는 노래를 지은들  
어이 다할가 이 마음을

줄줄이 기쁨이요  
줄줄이 환희요  
하늘을 덮는 축포인들  
다하지는 못하리  
이 마음에 솟구치는  
격동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  
그이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신  
평양의 거리는  
거리마다 춤이요  
거리마다 노래요

덩실덩실  
춤판에 뛰어드노라  
어깨를 들썩이며  
내 마음의 격정을 터치노라  
바다 건너 일본에서 온  
이 시인도

비바람 세찬 이역땅  
조선대학의 지붕에 높이 날리는  
람홍색 공화국기발을 보며  
조국!  
가벼이 속삭여도  
금시 망울을 터치는  
향기론 꽃으로 설레던  
이 마음

남의 나라 남의 땅이여도  
머리 높이 들고 사는  
조선사람의 긍지를 안으며  
장군님 존함을 외우기만 해도  
절로 힘이 되고  
노래로 자던  
이 가슴

그러하더라  
조국을 멀리 떠나있어도  
우리 해빛같은 밝은 마음을 안고  
우리 해빛처럼 밝은 미래로 갈 때면

장군님 우리러  
이 심장이 축포마냥 터쳐오르던것은

이 땅의 기쁨이 하늘에 닿고  
저 하늘에 닿은 기쁨이  
이 땅에 넘친  
경사로운 조국의 환호에  
10만 재일동포들의 마음을 합쳐  
평양의 하늘아래에서  
내 마음껏 터치노라

점점이 붉은 모란봉의 단풍잎에도  
저 먼 산천의 시내물소리에도  
땅우에 가지를 휘며  
붉게 타는 향기로운 열매도  
아, 이날의 감격  
이날의 환희로 넘쳤노라

한점 구름 없이  
맑고 푸른 저 하늘  
풍요한 가을날의 바람도  
력사의 환희  
력사의 감격을  
세상에 나르노라

내 조국만이 안은  
내 조국에서만 볼수 있는 경사여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으리  
까불지 말라 원썩들아  
이런 인민을 다치지 못하리  
날치지 말라 원썩들아  
사회주의를 확신하는  
이런 인민을 꺾지 못하리

한손을 높이 드시여  
승리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  
그이를 높이높이 모신  
인민의 행복, 인민의 영광  
뜨거운 내 조국땅은  
하나의 꽃바다가 되어 설레이노라  
그이의 노래로 진감하노라

내 조국의 하늘은  
줄줄이 기쁨이 되어 내리는  
줄줄이 환희가 되어 내리는  
축포의 꽃불로 덮인듯  
찬란한 해빛이  
저 하늘에서 쏟아져라

## 하늘이 낸 신동

양덕군에 자리잡은 대탕지혁명사적지에는 어린 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동네아이들과 군사놀이를 하신 뜻깊은 사적들이 많다.

언젠가부터 이고장 사람들속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적과 더불어 그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들이 전해내려오고있다.

그 가운데서 한편을 소개한다.

해방후 첫봄, 대탕지의 산골짜기마다엔 봄빛이 완연하였다. 겨우내 그늘졌던 음지의 허연 눈들도 이젠 모두 녹아내렸고 바늘글처럼 뽕죽뽕죽한 얼음 버के들이 하얗게 덮었던 땅우에는 가물가물 아지랑이 뛰논다. 하늘에선 밝게 빛나는 태양의 웃음과 종달새의 노래소리 정다왔고 땅우에선 송림의 싱그런 봄향취와 내가에 피어오르는 온천수의 하얀 물김이 산천을 감쌌다.

천자만홍이라 산마다에 울긋불긋 피어난것은 꽃이요, 파릇파릇 움터나는것은 새순에 새 잎이다.

비단같이 너울너울 흐르는것은 푸른 봄물이요, 넘실넘실 차넘치는것은 해방의 기쁨이라 오히려 이해의 몸은 앞전한 아씨라기보다도 꿈이 많고 떠들여대기 좋아하는 장난꾸러기 아이들같은 인상을 주는 산천의 활기넘친 새봄이었다.

해방의 기쁨에 종달새는 하늘높이 날고 송아지는 《음매-》 하고 한목소리 뽐아보는 산촌의 패청한 봄날은 뭉치뭉치해도 이곳 양덕군 대탕지마을 아이들의 봄이기도 하다.

희창한 5월의 봄날, 따스한 해월에 등을 쏘이며 아이들은 산기슭에 모여 군사놀이편을 가르고있었다.

먼저 《돌》편과 《가위》편을 가르고 그다음 두편의 대장을 선출하였다.

그런데 대장은 늘 고정되어있었다. 대장으로 선발된 두 소년중 한 아이는 나이가 열살이나 되어보이는 키도 크고 힘도 센 억쇠라는 소년인데 그는 동네조무래기중에서도 그중 《좌상》이었다.

억쇠는 늘 《가위》편 대장으로 되군하였다.

《돌》편 대장은 억쇠에 비해서뿐만아니라 그들중에서도 어려보이는 소년이었다.

그의 새별같이 반짝이는 눈정기는 총명해보였고 웃을 땀 앵두알같은 볼우물까지 꽤여 매우 귀인성스러워보였다.

사실 군사놀이도 이 소년이 발기한것이었는데 그

는 평양 어디선가 부모님을 따라와 며칠간 여기 온천골에 머물러 있다는것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네아이들은 제기차기를 하거나 때로는 고무총으로 닭이나 짐승들을 쏘군하여 동네어른들의 욕을 듣기가 일쑤였다. 이럴 때 평양에서 왔다는 이 소년이 군사놀이를 발기했던것이다.

그러니 군사놀이라는것을 처음 해보는 온천골아이들인자라 이 놀이를 발기한 그 소년을 대장으로 추천하는것은 응당했다.

그는 늘 억쇠의 상대편 대장으로 뽑히군했다. 그 꼬마대장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따라 양덕군 대탕지로 오신 어리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대탕지로 오시지마자 이처럼 곧 동네아이들과 친숙해지시였는데 그들과 함께 고무총놀이도 하시고 내가에서 배놀이도 하시면서 형제처럼 가까와지시였다. 또 어떤 날에는 동무들의 집일을 도와주자고 발기하시여 땀나무도 해오고 산에 매놓은 짐승들도 끌어다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여러가지 놀이들가운데서도 군사놀이를 제일 즐겨하시였다.

군사놀이는 편을 갈라서 진행하군했는데 술방울을 던져서 맞은 아이는 죽은것으로 하고 군사놀이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한자리에 앉아있어야 했다. 이런 군사놀이를 아이들은 매우 재미있어했다.

또한 장군님께서 비범한 전술로 매양 놀이를 기발하게 꾸미시니 아이들은 놀이에 열중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이들의 놀음이라도 승부는 머리수나 나이만으로 결정되는것이 아니요, 그 역시 기발한 전술과 지혜로 상대편을 제압하고 타승하는 술기의 놀이이니 누가 대장으로 선출되는가에 따라 이길수도 있고 질수도 있었다.

군사놀이는 장군님께서 대장이 되시여 지휘한 《돌》편이 언제나 이기군하였다.

《가위》편 아이들은 대장이 지휘를 잘못된탓에 자기들이 늘 지기만 한다고 불이 부어있었다.

흔히 싸움에서 승패는 병가의 레상사라 놀음놀이나 유희에서도 승과 패가 있는것은 비비유지한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장군님을 대장으로 모신 《돌》편은 늘 《가위》편을 이기기만 하였다.

지금껏 《돌》편이 《가위》편에 비기거나 진적은 한번도 없었다. 말하자면 《돌》편은 백전백승



이요,

《가위》편은 백전백패였다. 역쇠는 그이께서 하시는 모든것이 신기해보이기만 했다. 그는 **김정일** 장군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군사놀이를 하는것이 여간 행복하지 않았다. 역쇠는 **김정일** 장군님과 함께 있는 동안 그이에게서 많은것을 배우리라 마음먹었다.

역쇠가 기어이 배워야겠다고 결심한 장군님의 신통한 재주에는 고무총재주도 있었다.

언젠가 그이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참새잡이를 하신적이 있었다. 그때 다른 애들은 보통 한두마리 기껏해서 서너마리정도 잡았지만 그이께서는 14마리나 쏘아잡으셨는데 그놈들은 신통하게도 모두 노란 부리에 맞아 혼절해서 떨어진놈들이었다.

그러니 하늘의것을 쏘시면 툭렁 떨어지고 매달리는것을 겨누시면 돌인듯 우뚝 멈춰서고 바위처럼 서있는것을 쏘아맞히면 빙긋 불꽃이 튀기며 구멍이 뚫리었다. 그래서 역쇠는 슬금슬금 그이의 재주들을 눈에 익히고 손에 숙달하기에 힘썼다.

그러던 어느날 역쇠가 점심먹으러 집에 들어가보니 뜻밖의 불상사가 그를 마중하였다.

어머니가 산에서 산나물을 뜯다가 발을 헛디더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누워있는것이였다.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나면 달여주라고 의원할아버지가 탕약을 지어놓고 가면서 약을 달일 때 까마귀꼴을 얻어다 함께 넣어달이라고 이르고 갔다는것이였다.

역쇠는 고무총을 들고 까마귀를 잡으러 마을동구밖에 서있는 백양나무아래로 달려갔다. 백양나무에는 검은 물둥이같은 까마귀등지가 두개나 없혀져있었던것이다.

그는 고무총에 돌을 채우고 까옥까옥거리며 오락가락하는 까마귀를 향해 연방 쏘았다.

고무총알은 까마귀등지에도 못미쳐 하늘에 포물선을 굽더니 나무가지들과 함께 맥없이 툭렁 떨어졌다.

암만 쏘아야 하늘에 대고 주먹질하는 격이였다.

마치 머리에 낫추 뜯 대보름달을 떨구어보겠다고 하늘에 돌팔매질을 하는 장난꾸러기소년의 부질없는 놀음같아보였다.

어지간히 맥이 빠진 그는 자기의 고무총을 가지고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숙소로 달려가 그이를 찾았다.

《고무총을 좀 빌려주렴. 내 망가뜨리지 않고 도로 가져올테니.》

장군님께서서는 선뜻 자신의 고무총을 내주시였다. 고무총을 받아든 역쇠는 너무 기뻐 꺽충 내달음쳐갔다.

백양나무아래에 다달은 역쇠는 장군님께서 고무총에 돌을 채우고 까마귀를 겨누어 힘껏 당겼다.

하나 어찌된 일인가.

역쇠의 기대와는 달리 고무총알은 까마귀등지도 채 못미쳐 떨어지는것이였다. 아무리 힘껏 당겼다 놓아도 총알은 처음 날아올랐던 그 높이 더 오르지 않았다. 그는 고무총을 손바닥에 찬찬이 살펴보았다 분명 그이의 고무총임이 틀림없었다.

그가 이상하여 머리를 기웃거리고있는데 갑자기 등뒤에서 《까마귀를 잡자고 그러니?》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언뜻 돌아다보니 장군님이시였다.

역쇠는 그이께 지초지종을 말씀드렸다.

《그것참 안됐구나! 그런데 아직 까마귀를 못잡았니?》

역쇠는 그렇다고 대답올렸다.

《그럼 고무총을 이리 줘. 내가 한번 쏘볼테니...》

그이께서는 역쇠가 드리는 고무총을 받아주시고는 재빨리 돌을 채우셨다. 그리고는 방금 등지에서 나와 백양나무우등지에 꼬리를 감싸거리며 앉은 까마귀를 겨누어 힘껏 줄을 당겼다놓으시였다.

순간 고무총알은 탁-탁 백양나무가지들을 부트리며 쏘살같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까옥》-

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까마귀 한마리가 털썩 역쇠의 발치에 떨어졌다. 역쇠는 놀라왔다.

《이제 두마리만 더 잡으면 되지?》

역쇠는 미처 대답을 못올리고 그이께서 고무총을 쏘시는 모습을 그냥 황홀한 눈길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이번에도 장군님께서서는 별로 힘들게 겨누시는 기색도 없이 슬쩍 줄을 당겼다 놓으시였다

그러자 고무총은 또 한마리의 까마귀를 명중시켰다.

장군님께서서는 재빨리 백양나무에서 기겁해 달아나는 다른 한마리의 까마귀를 향해 세번째 돌을 날리시였다.

처음엔 빗맞았는데 잠시후에 그놈도 비행방향을 획 꺾으며 땅에 내리쫓혔다. 역쇠가 세마리의 까마귀를 주어서 살펴보니 장군님께서 이번에도 전번 참새잡이때처럼 모두 부리를 명중시켜 잡으신것이 아닌가! 정말 놀라운 사격술이였다.

(아까 내가 쏘았을 땐 왜 맞지 않았을까?)

장군님의 고무총을 빌리기전까지만 해도 그이의 고무총이 신기한 조화를 부린다고 생각했으나 지금보니 그것도 아니였다.

(그 비결은 그분이 백두산의 어린 장수이기때문일거야.)

그날저녁 역쇠는 장군님께서 잡아주신 까마귀꼴



을 넣고 정성스레 약을 달여 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러자 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심한 뇌타박으로 눈정기가 흐려지고 입안으로 혀가 가드라들었던 억쇠어머니는 한술두술 아들이 따라주는 약물을 받아 넘기더니 곧 혼미하던 정신이 초량초량해져 눈정기가 돌아섰다. 그러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앉는 것이었다.

억쇠어머니의 병이 걱정되어 한밤중에 다시 찾아왔던 의원할아버지도 깜짝 놀랐다.

《아니, 그 약을 한번 자시고 일어나았단 말인가?》

그는 억쇠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려면 적어도 두달은 치료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던 것이었다.

《참 모를 일이군, 모를 일이야.》

하나 억쇠에겐 영문모를 일이 아니였다.

**김정일** 장군님께서 잡아주신 까마귀를 약으로 썼기때문이라는것을 억쇠는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던 것이다. 그리니 그에게는 조금도 신기하게 생각되지 않았고 오히려 응당한 일로 여겨졌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의원할아버지에게 그대로 말씀드렸다.

억쇠의 말을 듣고 의원은 무릎을 쳤다.

《그러면 그럴테지. 글썄 아무리 명처방에 명약이라 한들 이렇게 효험이 높을수야 없지. 하늘이 낸 신동의 덕망이 어려 신기한 약효를 낸게 분명해.》

이 일이 있은뒤 대량지사람들은 어르신 **김정일** 장군님을 신동이라고 하면서 더 높이 존경하고 따랐다고 한다.

**김우경**

## 오늘도 그 언덕에 서시여

**홍문수**

부르는 노래로  
웨치는 구호로  
수령결사옹위의 맹세  
질적으로 다지는 그런 때이면

아, 그런 때이면  
준엄했던 대사하치기의 언덕에서  
사령관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신  
위대한 김정숙어머니의 모습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신다

아직도 그 포화속에 서계시는듯  
불같은 시선으로 적진을 꿰지르시며  
성새로 방패로  
육탄으로 막아서신 친위전사

크나큰 그 심장의 일편단심 박동소리  
우리의 가슴속에 메아리쳐와라  
보위색군모의 붉은 오각별  
승엄한 빛발로 천만대오를 불러라

하늘땅이 뒤집 힌대도  
영원히 지켜가실 삶의 그 위치  
락원의 강산에 행복은 넘쳐도  
어머님은 오늘도 그 언덕에 서시여  
수령결사옹위의 혈통을  
세대와 세대로 이어주고계시나니

병사들의 총창에서  
아이들의 눈동자와  
어른들의 발걸음에서  
시련도 광풍도 식힐수 없는  
굽이쳐 뜨거운 조선의 그 혈통!

아아, 휘날리는 붉은기에  
불멸의 그 혁명정신  
뜨거운 그 당부를 물들여 새기신  
위대한 어머니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나라라  
조국의 무궁한 미래와 함께!  
천만이 굳게 뭉친 우리의 혁명대오와 함께

## 향도의 자욱을 따라 6천리

김대성

### 자력갱생의 본보기공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간고분투할 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장강2호발전소에서 복천을 따라 강계쪽으로 10리가량 내려가면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도관개건설사업소가 있다.

우리가 사업소정문에 들어서니 넓은 마당에 불도젤들과 굴착기들, 트랙트르와 자동차들이 출발준비를 갖추고 대형을 지어 서있는 모습이 전투적인데 그 맞은편에 서있는 차수리장의 지붕우에 크게 써 붙인 구호 역시 전투적이였다.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

이 구호만 바라보아도 강행군의 분위기가 질겨 느껴지는 여기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린 자력갱생의 본보기공장이였다.

장강2호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이 공장의 로동계급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망에 망라되어 거의 모든 성원들이 기사, 준기사, 기수의 자격을 받았으며 누구라 할것없이 료전기재를 능숙히 다루고 창의고안 명수이기도 했다.

이들은 자체의 힘과 지혜로 산소수소발생장치, 고주파유도로, 송탄유생산설비, 메탄가스발생기를 갖추어놓고 무려 150여종에 달하는 료전기재부속품과 많은 량의 대용연료를 생산하여 농촌기술혁명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을뿐만아니라 물판을 조성하여 염소를 기르고 온실에서 남새를 키우고 버섯을 재배하여 식생활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하고있다.

장강군에는 이미 돌아본바와 같이 중소형수력발전소가 이르는곳마다에 있었다.

그러나 유독 이 공장에서만은 그 신세를 지지않는다.

언제나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는데 습관된 이 공장의 로동계급은 대용연료에 의한 전기생산설비도 훌륭히 꾸려놓고서 공작기계들과 목공설비들을 정상가동시키고있었다.

이 생산공정은 비교적 단순하다고 볼수 있다.

자그마한 방에 90마력짜리 자동차기관을 내려놓고 대용연료에서 나오는 가스로 돌리는데 거기에

발전기를 련결하여 전기를 생산하는것이다.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썰고 쪼개여 건조시킨것을 이 설비에 넣어주면 15키로와트시의 전기가 나온다고 한다.

이 전기를 가지고 교차생산을 하면 차수리도 하고 기계설비도 돌리며 건물조명도 보장한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장강군에 있는 중소형수력발전소들을 돌아보시고 이 기업을 찾아오셨을 때는 점심시간이였다.

그이께서는 가스냄새가 나고 동음이 요란한 작업장에 허물없이 들어오시여 대용연료에 의한 전기생산과 리용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아주 재미나게 잘 만들었다고 치하해주시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깃든것이려면 무엇이냐 대견하게 여기시며 높이 평가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강행군길의 전투에 서시여 식사시간마저 잊으신 그이를 우리러 이 공장 로동계급은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걱정들 누를수 없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하신 자욱이 어려있는 이 자그마한 발전기실을 떠날수 없었다

누구든지 자력갱생의 마치고소리 높이 울리는 여기 자강땅 자강강반에 와보시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어려운 때일수록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자기의 마을과 일터를 꾸려나가면 두메산골도 우리가 것처럼 바라마지 않던 공산주의리상촌으로 변모된다는것을, 자체로 생산하는 전기로 밥을 짓고 방을 덥히고 텔레비죤도 보고 랑동기도 돌리는 55동 살림집들이 전국각지에 일떠서게 되면 내나라, 내 조국이 공산주의의 높은 명마루에 올라서게 된다는것을.

향도의 자욱을 따라 6천리,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의 가슴엔 신심과 락관이 차넘치거나 최후승리는 의심할바없이 눈앞에 있다. 그것은 우리의것이다.

보라!

조건의 불리한 자강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벌써 시련의 고비들 넘어 락원으로 들어서고있지 않은가. 그들을 따라 우리모두 신심도 드높이 나아가자, 우리가 살길인 자력갱생의 한길로...



## 영웅의 삶을 빛내주는 은혜로운 품

우리 나라는 시대의 영웅들이 끊임없이 배출되는 영웅의 나라이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한생을 빛내인 영웅들의 삶은 우리인민들을 새로운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영웅으로 키워주고 그 삶을 빛내주시는 위대한 스승의 품,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의 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에게는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하며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유명무명의 영웅들도 많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그들이 세운 영웅적위훈을 잊지 않을것입니다.》**

지난 5월 22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 근위제172군부대를 찾으시고 부대의 관하에 있는 김광철영웅중대에 들리시였다.

김광철영웅중대가 자리잡고있는곳은 최전연의 최전방으로서 적들의 도발이 그칠새가 없는 위험한 전선구역이였다. 바로 이런곳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광철영웅을 잊지 못하시며 몸소 찾아가신것이였다. 진정 그 길은 친부모도 줄수 없는 정을 안고 영웅의 부모들을 대신하여 걸으신 친어버이 사랑의 길이였다.

몸소 험하고 가파로운 산길을 헤치시여 김광철영웅중대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영접보고를 올리는 지휘관들속에 서있는 소위의 견장을 단 한 청년군관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어딘가 몹시 낯익은 얼굴이였다.

때마침 젊은군관이 씩씩하게 인사를 올리며 자기의 직무와 이름을 보고드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짐작하신대로 그가 다름아닌 김광철영웅의 동생임을 알아보시고 아, 광철이의 동생이구만라고 하시며 못내 반가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동생이 형을 닮았는데 키는 좀 차이난다고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순간 동행한 일군들과 중대군인들은 저도 모르게 뜨거움에 눈시울을 적시였다. 온 나라 군인들을 거느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많은 영웅전사들을 두신 그이께서 8년전에 사진으로 보신 한 군인의 모습을 얼마나 깊이 새겨두시고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였으면 그의 동생의 얼굴에서 떠나간 영웅의 모습을 선뜻 알아보시는것이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형이 섰던 초소에 대를 이어 선 김윤철동무를 더없이 대견하게 여기시며 고향의 부모들은 다 잘 있는가, 무슨 일을 하고있는가, 언제 어느 군관학교를 나왔는가 등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 혁명초소를 대를 이어 지켜선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높이 치하시며 갓 군관생활을 시작한 김윤철동무를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이어 중대교양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광철영웅이 쓰던 학습장이며 수첩들을 갈피갈피 번지시며 그가 쓴 글들을 보여주시고 영웅이 평소에 당의 사상과 고상한 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해 애썼기때문에 혁명동지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영웅적인 행동을 할수 있었다고, 군인들속에서 영웅의 위훈을 잊지 않도록 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또한 리수복영웅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해 적화구를 막고 청춘을 바쳤다면 김광철영웅은 총소리가 나지 않는 때에 동지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라고 하시면서 전사가 아닌 때에 발휘한 무비의 희생성인것으로 하여 전사의 위훈이 그토록 값높은것이라고 뜨겁게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광철영웅은 90년대의 첫 영웅이라고 감회가 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90년대의 첫 영웅!

참으로 깊은 사연과 뜻을 담으신 말씀이시였다.

90년대의 첫해가 시작된 그해 1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훈련도중에 폭발직전의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덮어 대원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한 인민군소대장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었다.

이름 김광철.

직무 조선인민군 소대장.

1965년 12월 3일 구장군 룡문로동자구에서 탄부의 맞아들로 출생.

1990년 1월 23일 전투임무수행중 전사.

...

전사의 경력은 간단하였고 그가 살고간 생은 너무도 짧았다.

묵묵히 문건을 들여다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색은 흐려 있었다.

꽃나이에 생을 마친 전사의 일이 가슴아프시였고 어린 나이에 총을 메고 조국보위초소에 섰던 아들을 더는 보지 못하게 된 전사의 부모들의 심정이 더없이 무겁게 안겨오시었던것이다. 그러하실수록한 평범한 전사의 영웅적미거와 고상한 정신세계가 무척 장하고 귀중하시였고 전사가 두고 간 구만리 앞길에 영광과 행복을 가득히 채워주고 싶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펜을 드시어 문건에 전사의 영웅적소행을 높이 평가할데 대하여 친필을 남기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김광철동무에게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고 온 나라 인민들과 군인들이 영웅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위훈에 대하여 알도록 하시었다.

김광철동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러한 사랑과 믿음속에 두번다시 태어나 인간으로서 걸을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영생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혁명가로서 오를수 있는 가장 높은 영광의 마루에 설수 있게 되었다.

그후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김광철영웅의 소행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영웅의 고결한 투쟁정신은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이 따라배워야 할 숭고한 모범이라고 강조하시며 그의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김광철동무를 90년대의 첫 영웅으로 불러주시면서 전군이 영웅이 지냈던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혁명적동지애, 군사복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영웅이 있던 중대를

《김광철영웅중대》로, 그가 다니던 모교를

《김광철고등중학교》로 명명하게 하시고 영웅의 발자취가 여러 있는 학교마당에 그의 반신상까지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친히 그 형성도안까지 보아주시었다. 또한 영웅과 함께 군사복무를 하던 수많은 제대군인들을 영웅의 부모들결에 보내여 함께 일하도록 해주시었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광철영웅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배려에는 그가 다 누리지 못한 삶을 동지들과 고향사람들, 후대들과 더불어 길이 꽃피우도록 하고다 받지 못한 당의 사랑과 친부모의 정을 백배로 더하여 안겨주시려는 숭고한 뜻과 어버이정이 대해마냥 차넘치고있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처럼 최전연 영웅의 중대에까지 찾아오시여 그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니 떠나간 영웅전사를 잊지 못해하시며 그들이 영생의 삶을 이어가도록 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에는 정녕 끝이 없는것이다. 영웅은 죽는 법이 없다.

살아서도 빛나고 죽어서도 영생하는것이 영웅이다. 김광철영웅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우리결을 떠났으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속에 오늘도 영생하고있다.

어찌 김광철영웅뿐이라.

리수복, 길영조... 우리 시대의 영웅들은 누구나 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속에서 태어나고 영웅으로 자라난 사람들이다. 자그마한 공로나 공산주의적소행도 귀중히 여기시고 알려지지 않은 위훈도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기에 평범한 사람들도 영웅이 되고 그들의 가슴에 금별메달이 빛나는것이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의 품은 이땅에 생을 둔 사람모두를 다 영웅으로 키워주는 위대한 스승의 품이며 그들의 삶을 영생으로 빛내주는 영원한 삶의 품이다.

영웅이 많은 나라는 강하고 흥하는 법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그 품이 있어 우리 나라는 앞으로도 영웅의 나라로 자랑떨칠것이며 우리 조국은 영원히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부강번영할것이다.

## 새아침

변월녀

## 1

위대한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숙소를 나서 시면서 빈틈없이 맞물려있는 하루사업계획을 시간별로 가늠해보시었다. 오전에는 우선 원흥인민학교에 가서 농촌학교들의 교육실태를 료해하고 대책을 세워준 다음 돌아오는 길에 기관차대에 들러 사업할 예정이시었다.

류달리 큰 콩꼬투리와 같은 자귀나무열매가 마가을바람에 한들거리는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생각을 이어가시던 그이께서는 뒤미처 따라나서며 하는 옥화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었다.

《정숙동지, 오늘은 우리 동무들이 손꼽아 기다린 날입니다.》

《?...》

《머칠전에 회령고향집에 가보자고 약속한 날이 오늘이잖나요. 어제밤에 명희는 정숙동지와 손잡고 고향집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회령에 가는 꿈요요?!》

어머님께서서는 유정한 목소리로 뇌이시며 언뜻 북쪽 멀리로 시선을 보내시었다.

아, 회령, 꿈에도 못있던 고향! 한여름에도 성에가 내불리는 박우물의 맑디맑은 수면우에 봄바람에 날린 하얀 백살구꽃잎들이 점점이 떠오르고 거기서 양증한 오지동이에 물을 퍼담아 인 소녀가 아장아장 오산덕집으로 걸던 모양이 삼삼히 떠오르시었다.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시지 않는 품팔이 간 어머니를 기다려 가슴태우던 일이며 살길을 찾아 두만강을 넘을 때 망양나루에서 눈물속에 고향을 되돌아보며 망막에 새기던 일이 회억되시었다.

아아, 고향떠나 어언 스무해... 피눈물속에 살아온 부암동의 나날과 풍찬로숙하시던 항일무장투쟁의 그 나날에 항시 그리워 마음 달리던 고향이 지적에 있는것이였다.

《정숙동지! 오늘은 꼭 가십시다. 예-》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청을 올리는 옥화의 검은 두눈에 뽀얀 이슬기가 확 끼쳐돌았다. 옥화는 조선인민혁명군에서 김정숙동지와 함께 생활해 온 전우로서 그이가 얼마나 떠나는 고향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것이였다.

어머님께서서는 온몸에 찌릿하게 젖어드는 향수를 어쩔수 없으시었다. 그러나 강잉히 머리를 저으시

였다.

《옥화동무! 오늘은 농촌학교에 가보아야 합니다. 어제 가본 청진녀자고등중학교의 교육실태와 같은지 아니면 더 관심하고 풀어주어야 할 문제등이 있는지 시급히 료해해보아야 해요.》

《정숙동지, 그러면 학교에는 저희들이 가서 실태를 정확히 료해하겠습니다. 그러니...》

간절하게 뇌이는 옥화의 두눈에 금시 흘러내릴듯 맑은 이슬이 함썸 고였다.

《아니예요. 제가 꼭 가봐야겠어요, 고향에는 후에가봐도 되지만 장군님의 건국사업을 받드는 일은 한시각도 미뤄서는 안되지 않나요.》

《...》

옥화는 더 어찌는수 없이 어머님의 뒤를 따라 걷기만 했다.

김정숙동지께서 북방의 한 도시인 이곳 《天》시에 도착하신것은 얼마전이였다. 그이께서는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자면 조국의 현실을 깊이 파악해야 한다시며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에 머무르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도착하신 첫날부터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현실을 료해하시면서 그들에게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알려주시고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시며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시었다. 어느날에는 이곳에 파견되어 온 항일투사들과 만나시여 그들의 보고도 들으시고 또 어느날에는 파괴된 공장과 부두로부터 자그마한 가게방과 시장, 살림집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돌아보시며 산업시설의 복구정형과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찾아가야 할곳이 많으시었다.

새 조국건설에서 교육사업을 바로잡는것이 중요하기때문에 어제는 녀자중학교에 가신데 뒤이어 오늘은 또 농촌학교까지 찾아 떠나신 길이였다.

그들은 등성으로 올리뎀은 소로길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등성의 양지바른 기슭에 금시 주저앉을듯한 초가집들이 있고 거기에서 한 오리남짓한 저쪽 건너편에 백양나무들로 둘러싸인 길다란 단풍건물이 보였다. 이것이 이 지구 몇개 면중에 하나밖에 없는 원흥인민학교였다.

문득 어디선가 애들의 랑랑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께서서는 소로길이 뻗어간 등성이쪽으로 눈길을 보내시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고있었다. 바지가 정갱이까지 올라간 사내애가 숨



털처럼 하르르한 속새풀대를 겹쳐들고 지휘자처럼 박자를 치는데 그에 맞추어 아이들은 저마끔 목청을 돋구며 노래를 불렀다.

어머님께서는 아이들의 노래소리에 귀를 강구시더니 미소를 머금으시었다. 노래는 소꿉시절 친한 동무를 그리면서 외로움에 잠겨있는 아이를 표현한 것이었는데 아이들이 노래의 박자를 무시하고 제흥에 맞게 부르다보니 슬픈 노래가 유쾌하게 들리기까지 하였다, 춤추듯 뽀박질하며 부르는 그 노래소리는 점점 가까와졌다, 알뜰한 학습장을 무명보자기나 물날은 광목천자투리로 싸든 애들도 있었고 학습장을 맨손에 들었거나 빈손의 아이들도 있었다. 속새풀을 휘두르던 밤톨머리총각애가 걸음을 멈추며 어머님을 바라보더니 굵적 인사를 하였다.

뒤이어 약속이나 한듯이 다른 애들도 허리를 굽혔다. 제일 뒤에 섰던 키작은 처녀애가 가슴팍으로 말려올라간 적삼을 끄당기며 머루알같은 눈을 반짝이면서 어머님을 뵈히 올려다보았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제비초리같은 머리꽂지를 랑쪽으로 갈라서 땀은 처녀애의 볼을 쓰다듬어주시며 다정하게 물으시었다.

《학교에 가는 길이나요?》

《에...》

제비초리 처녀애는 부끄러운듯 어물어물하는데 얼굴이 우둥둥하고 짙은 눈섭아래서 검은 눈이 지혜롭게 반짝이는 총각애가 대답하였다. 그애는 물날은 양복을 알뜰히 기워입었고 엇가로 멘 썩색보자기도 깨끗했다.

《그래 무슨 공부를 하나요?》

《우리 나라 글을 배웁니다.》

《그래요?!그리구 노래공부도 하나요?》

그이께서는 방금 애들이 부르던 노래를 넘두에 두고 이렇게 물으시었다.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시선을 발부리로 떨구는데 제비초리같이 머리를 꽂진 처녀애가 시무룩히 머리를 저었다.

《요즘 노래공부는 못합니다. 노래배워주던 선생님이 떠다가셨습니다.》

총각애가 이렇게 보태었다.

《떠나가다니요?》

그이께서는 이상한 생각이 드시여 애들의 얼굴을 살피시었다.

《아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린 노래공부를 못합니다.》

처녀애가 속삭이듯 말했다.

《...》

그이께서는 잠시 무엇을 생각하시며 말쑤이 없으시다가 모두들 어디에 사느냐고 물어주시었다.

《나와 광국이오빠 저기 양지마을이구 응성이오빠와 일규, 홍일이는 삼태골이예요.》

이제까지 입술을 오무리고있던 처녀애가 발췌 웃으며 떠들떠들 말하였다.

처녀애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시는 어머님의 눈길은 앞에 서있는 애의 정쟁이에 미치시었다. 어린 살을 파먹는 상처는 별결게 성나있었다.

《나무하러 산에 갔었는데 고약한 심술할미 엉경귀풀이 할퀴여놓았어요.》

속새풀을 활기있게 휘두르던 애는 어줍게 귀밀을 굵적거리었다. 어머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상처자욱을 쓸어주시었다. 나이는 기껏해야 열살이 넘었을가, 어머님께서는 눈빛을 흐리시며 그애의 가느다란 목과 애리애리한 어깨를 바라보시면서 물으시었다.

《그래 학교에 오지 않는 애들은 없느냐?》

《있어요.》

처녀애가 입빠르게 대답하며 발돋움을 하고 어머님께 속살거렸다.

《영기가 있는데 엄마와 아버지가 싸움을 했어요. 아버지가 입던 옷을 벗어놓고 줄여주라고 했는데 그애 엄마는 줄여주지 않았거든요. 영긴 아버지의 옷은 입지 않겠다고 시내로 도망쳤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아이들을 둘러보며 물으시었다.

《어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 학습장을 좀 볼까요?》

아이들은 활기를 거두고 주뭉거리며 서로 마주보는데 한 아이가 어깨에 메었던 썩색보자기를 풀어서 펴보이였다. 학습장이라기보다 여기저기서 한장 두장 모아서 맨 현종이뭉음과 흡사했다. 그렇게 묶은 학습장에는 《우리 나라》, 《새 조선》,

《백두산》...이라고 연필로 박아쓴 글자들이 또 박또박 적혀있었다. 어떤 책장에는 침을 바른 얼룩이 무늬져있었다. 뒤장에는 《우리 마을》이라는 제목아래 천진한 동심이 살아 숨쉬는 작문이 써여있었다. 그아래에는 세련된 글씨로 상세하게 지정한 교원의 평가가 적혀있었다. 간명한 분석속에 학생들의 재능을 키워주려는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글이 교원의 능력은 은연중 짐작할수 있게 하였다.

《그럼 어서들 학교로 가보세요. 선생님님이 기다리겠어요. 공부를 잘하세요.》

《예!》

아이들은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는 《야!》 소리치며 뽀박질쳐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즐겁게 지저귀며 날으는 새우리처럼 달려가는 애들의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웃으시었다.

옥화도 어머님을 마주보며 사뭇 밝게 웃었다.

《아이참 애들두...》

어머님께서는 애들이 먼저 달려간 학교정문에 이르실 때까지 아무 말쑤이 없으시었다. 어째선지 노

래를 배워주던 선생이 어디로 떠나갔다면 서사무룩히 대답하던 처녀애의 목소리가 귀전에서 떠나지 않았었다. 애들이 부르던 노래도 애수에 잠긴 노래인데 그마저 음악선생이 없다고 하니 마음에 걸리시었다.

그이께서는 학교정문을 지나 운동장을 가로질러가시는데 흰종이로 꽃문양을 따서 정성스레 창문에 붙인 교실에서 풍금에 맞추어 부르는 가냘픈 노래 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아이들이 부르던 그 노래였다. 노래소리는 짝 잃은 의로운 새가 동무를 찾아 푸른 하늘로 퍼덕이며 날으고 싶어하는듯 애절하게 들려왔다.

어머님께서는 옥화와 함께 조용히 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서시었다. 바닥이 깊은 교실은 채광마저 잘되지 않아 습하고 어스레하였다.

책걸상이 주련이 놓인 한옆에서 풍금을 치며 노래를 부르던 처녀교원이 인기척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풍금덜거에 턱을 고이고 처녀교원의 곁에 웅기종기 모여섰던 애들도 돌아서며 외진 농촌 학교로 찾아온 낯선 손님들을 의혹에 잠겨 바라보았다. 처녀교원의 가름한 흰 얼굴에서 쌍겹진 두눈이 눈물에 젖은듯싶은데 그의 표정은 구슬퍼보였다.

나이는 스물두셋이나 되었을가 어머님께서는 외로움에 시달려 생기를 잃은듯한 처녀의 얼굴을 거쳐 둘러선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옮기시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도 짙은 시름이 비껴있었다. 어머님께서 가슴에 빠근하게 마쳐오는 아픔을 느끼시며 불시에 눈앞이 어두워지는듯하여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었다.

《선생님이신가요? 학교를 좀 돌아보려고 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옥화가 소개말을 하려는 기미를 느끼시자 눈짓으로 말리시며 처녀교원앞으로 다가가시었다.

처녀선생은 어머님의 모습에서 류다른 기풍을 느꼈는지 옷깃을 여미면서 의자를 권하였다.

《갓 해방이 돼서 부족하고 없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닐텐데 선생님들의 수고가 많겠어요.》

어머님께서는 학생의자에 앉으시여 교실을 간간히 둘러보시었다. 칠판우에는 하늘색바탕에 붉은색으로 쓴 《절세의 영웅 김일성장군 만세!》라는 구호가 걸려있었다. 칠판의 좌우로 지시봉과 나무줄자, 칠판지우개, 산수풀이와 구구표를 써놓은 걸그림종이들이 모양새며 크기에 맞게 정연하게 걸려있었다.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각이한 연령심리적인 특성에 맞게 교육하기 위한 교원의 정성이 다분히 엿보였다.

《선생님이 말은 학급에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그는 출석부를 펼치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었다.

《학교에 입학은 하였지만 당장은 먹고살기가 어려워 장마당에 벌이를 다니는 학생도 있고 학교에 입교울 옷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과 한책상에 앉아 공부하기가 부끄러워 오지 못하는 나이많은 학생들까지 합치면 열명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학교적으로는 더 많겠구만요.》

《그렇습니다.》

《교원들도 모자라겠지요? 참, 아까 오는 길에 학생들을 만났는데 음악선생님이 어디론가로 가셨지요?》

김정숙어머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언지시 물으시자 처녀는 눈길을 내리깔며 대답을 못했다.

《다른 학교로 조동이라도 뻤는가요?》

처녀는 대답대신 긴숨을 내쉬었다. 그이께서는 대답을 기다리시었다. 애들이 부르는 처량한 노래도 마음에 걸리는데 교원마저 그 노래를 부르며 외로워하는것을 보시니 필경 무슨 연고가 있을것만 같으시었다.

《그 선생님은 아주 가버렸습니다.》

처녀의 어조에는 애석함과 원망이 착잡하게 엉키어있는듯싶었다.

《아주 가버리다니요? 어디로 말인가요.》

《여기서 교원을 하면서는 자기의 포부와 희망을 실현할수 없다면서...》라고 말머리를 뎀 처녀는 음악선생의 이름은 김수균이라는것과 원래 작곡을 지망한 교원이었는데 해방을 맞자 도시에 들어가 보다 큰일을 하겠다면서 떠나갔다고 했다.

《아니 그런 재능있는 선생을 놓쳐버리다니요? 선생님이 부르던 노래도 수균선생이라는분이 지은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 아쉽게 뎀군요. 해방을 맞은 아이들에게 새 노래를 지어 배워주는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겠어요.》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쉬운듯 곱씹어 말씀하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학교의 교육형편과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방도를 토론해주신후 학교를 떠나시었다.

처녀선생이 그이를 정문밖에까지 내려워드리었다.

그이께서는 그의 이름도 물어주시고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것이라고 그의 마음을 달래주시었다.

처녀는 차거운 날씨에 외진 학교까지 찾아주시고 자기를 다심하게 대해주신분이 어떤분이신지 알수 없으나 어째서인지 첫눈에 끌리고 헤어지기 아쉬워 그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오래 서있었다.



## 2

협의회를 마치고 시당청사를 나오시던 김정숙 동지께서는 정문에서 기다리고있는 옥화를 만나시었다. 아마 퍼그나 오래 기다린 모양이었다.

《김정숙동지, 어떻게 되신 일입니까. 점심도 건너지고...》

옥화는 걱정이 어린 눈길로 어머니를 맞이하였다.

《참 미안하게 됐어요. 오늘은 정말 바빴어요. 그 러나 한끼쯤 밥을 굶어 큰일날것도 없지 않아요. 산에서 싸울 땐 며칠씩 굶기도 하였는데...》

김정숙동지께서는 흔연히 웃으시면서 옥화의 손을 꼭 잡아주시었다.

《어서 가십시오. 오늘은 제가 특식을 대접해드릴려고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래요? 마침 잘됐구만요. 그렇지 않아도 좀 출출하기도 해요.》

김정숙어머니께서는 웃는 얼굴로 옥화를 바라보고 나서 나란히 정문을 나서시었다.

그이와 함께 유보도를 따라 숙소로 돌아오는 옥화는 오늘이야말로 자기의 소원이 풀리는듯싶었다. 해방동에 숙소를 잡으신지 며칠이 잘되었는데 언제 한번 그이께 특식 한끼 차려드리지 못하였다.

조금이라도 색다른 음식을 대접하려고 해도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어 엄하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백두산에서 싸우시며 곱쌓였던 피로를 잠시나마 풀어드리려고 원심을 써도 밤낮을 이어 사업에 몰두하시었다. 어떤 날에는 제기된 자료들을 료해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푸실방도를 모색하시느라고 밤을 꼬박기 새우시고는 낮에는 낮대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또한 찾아갈곳이 많으시여 줄곧 시간을 내지 못하시었다. 오늘은 마침 일요일이여서 오후에라도 숙소에 계시는가 했는데 점심마저 건너지며 온종일 시당에서 일을 보시는것이였다. 다행히도 날이 저물기전에 일들 마치고 정문을 나오시는

그이를 맞이하고보니 옥화는 그지없이 기뻐다.

《정숙동지! 제 오늘 무슨 별식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정숙동지께서 좋아하시는...》

《...》

《그리고 정숙동지... 래일은 꼭 회령고향집에 가십시오. 장군님께서도 회령고향집에 다녀오시도록 말씀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즐거운 기분으로 말을 잇던 옥화는 걸음발이 떠지는 그이를 발견하고 무춤 서며 말허리를 끊었다.

그이의 마음속 생각을 한치도 짐작할수 없이 옥화는 걱정스레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어디 편찮으신데라도...》

《아니 그렇게 아니에요. ...참 옥화동무, 어쨌으면 좋을가요. 온종일 여러가지 일들에 다몰리다보니

꼭 찾아보아야 할 사람을 잊었었구만요.》

김정숙어머니께서는 옥화의 마음이 흐리어질가 저어하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었다.

《또 말입니까? 래일 만나면 안되는 사람입니까?》

점심끼니마저 건느신 그이를 제시간에 저녁이라도 대접해드리고싶어 옥화는 안절부절을 못하고 사정하는 눈길로 그이를 우려했다.

《아니 래일로 미룰수 없어 그래요. 옥화동무도 원흥인민학교에 함께 갔었지요. 애들에게 노래를 배워주던 선생이 떠나버렸다고 안타까와하던 그 처녀선생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애들은 오늘도 해방전에 부르던 슬픈 노래를 부르며 학교로 오갔을거예요. 수군이라고 하는 그 젊은 작곡가선생이 어데 사는가를 알아냈어요. 옥화동무, 미안하지만 먼저 가보세요. 내 잠깐 들렀다 가요. 그렇게 하지요?》

어머니께서는 동의를 구하듯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었다.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옥화는 어스름이 깃드는 저녁거리를 걱정스럽게 둘러보았다.

《일없어요. 작곡가선생네 집이 여기 어디 근방이라고 했으니 혼자 갔다와도 돼요.》

하시고는 주위를 살피시었다. 그때 마치 음향으로 자기의 집을 알리기라도 하듯 가까운곳에서 피아노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피아노소리가... 맞지요? ...자, 그럼 옥화동무! 어서요.》

김정숙어머니께서는 움직일줄 모르고 버티여서 있는 옥화의 등을 가볍게 떠밀어주시고 음악소리가 울리는 빨간 벽돌집을 향하여 바삐 걸음을 옮기시었다. 골목길에 들어서니 봄의 훈향과도 같은 잔잔한 선율이 은은히 들리는가 하면 기슭으로 밀려온 거센 파도소리인양 장엄하게 울리는 피아노의 격동적인 음향이 마을의 저녁소음을 삼켜버렸다. 이곳이 바로 재능있는 청년작곡가 김수군의 집이였다. 그이께서는 엇그제 시안의 문예활동가들과의 좌담회석상에서 그의 낮을 익히시였으며 주소를 알아두시었던것이다.

집앞에 이르신 어머니께서는 피아노소리가 멎기를 기다리시었다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시었다. 문이 열리면서 보통기에 어깨가 다부진 청년이 번듯한 이마아래 홀어진 머리칼을 쓸어들리며 밖으로 나왔다. 그가 바로 청년작곡가 김수군이었던것이다.

《아니 어머니께서...》

명상에 잠겨 은근하던 두눈에 불을 켜듯 번쩍빛을 뽐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방이 루추해서...》

오시겠다는 말씀은 계셨으나 김정숙동지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리라고는 믿지 않았던 수군은 어쩔바

를 몰라하였다. 그는 피아노우에서 흘러떨어진 오선지들을 간중그리기도 하고 널려진 책들은 한쪽으로 쌓아놓기도하며 그이를 반기였다.

크지 않은 방의 한가운데에 해방덕에 적산품으로 받았다는 피아노가 놓여있었다. 피아노의 보면대우에 방금까지 작곡을 하던 《해방의 봄》이라고 제목을 단 오선지가 펼쳐져있었다. 방의 한쪽켠에 놓여있는 책상우에는 호화롭게 장정을 한 베토벤, 슈베르트, 차이콥스키 들 세계 이름있는 고전작곡가들의 교향악총보들이 무드기 쌓여있었다.

《수군동문 조선의 베토벤이 될 포부를 지닌 열정적인 신진작곡가입니다.》

문예부문 사업을 맡아보는 시의 한 일군이 수군의 재능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던 끝에 한말이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이젠 됐다고, 앉아서 이야기나 나누자고 말씀하시며 방안을 살피시다가 장식대우에 세워놓은 책상액틀속의 사진에 문득 눈길을 머무시였다. 노래를 부르는 한 처녀의 독사진이었다. 발등까지 끌리는 긴 치마에 무늬가 연하게 돌친 브라우스를 받쳐입은 처녀가 꽃같은 웃음을 날리며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상큼한 목, 가름한 얼굴, 함함한 머리칼이 물결치듯 뒤로 흘러가고 그윽한 두눈이 밝게 빛나고있었다. 낮익은 모습이어서 어머님께서서는 찬찬히 여겨보시였다.

때로 해방된 거리에서 만리광야 이름없는 산야에 누워있는 전우들과 비슷한 모양이 눈에 비추일 때마다 산같이 쌓인 그리움이 폭발하려는듯 몸시도가슴이 뛰시였다. 세월이 흘러도 그리움과 애석함은 더더욱 짙어지는것이였다.

사진속의 처녀는 원흥인민학교에서 만났던 그 처녀교원 장희영이었다.

그이께서는 그제야 비로소 회영이가 빈 교실에 혼자 앉아서 풍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던 일이며 떠나가버린 수군을 두고 원망과 야속함을 감추지 못해하던것이 리해되시였다.

방을 정리하느라고 주섬거리던 수군은 그이의 시선이 처녀의 사진에 머무시는것을 눈치채고 조금 멋적어했다.

《혹시 제가 와서 창작에 방해를 끼치는것이 아닌가요?》

그이께서는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수군은 어머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자기를 찾아주신것이 선뜻 리해되지 않는듯 몸가짐을 정중히 하며 대답을 올리였다. 그러면서도 뜻밖엔 차례진 행운이 꿈만같아 했다. 요즘 온 시내는 얼마나 그이에 대한 소문으로 들썩하고 있는가!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백두산에서 10여년을 싸우신분이라요.》

《김일성장군님처럼 축지법을 쓰신답니다.》

《5리밖의 염전을 쏘아 구멍을 내신다요.》

사람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이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고있으며 이곳 《새길신문》은 《어머님의 반생》, 《독립과 해방을 위해 너성의 몸으로 반생을 투쟁, 따르자, 이 회생정신을!》 등의 제목으로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소개하는 글들과 그이의 이 도시에서의 활동소식을 련일 대서특필하고있었다.

그처럼 위대하신 그분께서 집에까지 찾아오시여 자기와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다는것이 꿈만같은것이였다.

수군은 인민극장과 중앙극장에서 진행된 환영 대회에서 먼발치에서나마 어머님을 만나뵈웠으며 문예인들과의 좌담회에 참석하신 그이를 뵈옵기는 하였지만 이렇듯 몸가까이 모신것은 처음이였다. 이것은 누구도 쉽게 누릴수 없는 무상의 행복이였으며 행운중의 행운이 아닐수 없었다.

《작곡가 선생님의 생활형편도 알아보겜 한번 찾아 온다는것이 늦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그윽한 눈빛으로 수군을 바라보시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여 저는 해방덕을 분에 넘치게 받고있습니다.》

수군은 민족적량심을 지닌 음악교원이였던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애국적인 노래를 지어 인민들을 각성시키려고 애써왔으나 일제의 압제 밑에서 그 뜻을 실현할수 없었다는데 대하여, 해방이되여 비로소 무한한 창작의 길이 열렸다는데,대하여 격동된 심정으로 말씀드렸다.

《수군선생은 요즘 대단한 작품을 창작하신다는데 어떤 노래를 짓고있습니까?》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미소를 머금으시며 물으시였다.

수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이어 그는 가슴속에서 용암의 분출마냥 창작적흥분이 되살아오르는것을 느끼며 열띤 어조로 대답을 올렸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40여년간 일제의 억압 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찾아주신 해방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방을 맞은 조국의 환희, 인민의 환희를 선률에 담아 교향곡을 지으려고 결심했습니다. 베토벤은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교향곡 5번을 창작하였다면 저는 해방된 조국의 거세찬 환희와 광활한 조선의 미래를 향하여 력사의 문을 두드리는 교향곡을 쓰려고 합니다.》

젊은 작곡가는 조심성마저 잃고 손세까지 쓰며 웨치듯 말씀드렸다.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열정에 넘쳐 자기 심정을 토

로하는 그를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참 훌륭한 생각을 했습니다. 잃었던 조국을 다시 찾은 우리 인민은 나라의 주인일뿐 아니라 예술의 주인, 노래의 주인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각계각층인민들은 누구나 애국적열성을 발휘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조선 건설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수군선생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노래를 많이 창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따뜻한 고무의 말씀을 하시였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욕망뿐입니다. 거창한 새 시대의 역사를 음악선물에 담기에는 제 재능이 너무나 부족한것만 같습니다.》

《아니 저는 믿어요. 수군선생은 오래전부터 창작적기초를 쌓아왔으며 노래를 많이 지은 경험도 있지 않습니다.》

수군은 자기의 보잘것 없는 재능과 창작경험을 높이 사주시며 고무의 말씀을 하여주시는 어머님앞에 깊이 머리가 숙여졌다.

《지난날 저의 창작경험이라고 해야 고작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지은데 불과할뿐이지 이렇다할 작품 한편 창작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티없이 깨끗한 아이들의 가슴속에 조선사람의 넋을 부어주고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아동가요를 창작하는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훌륭한 일이 아닐가요. 실은 오늘 제가 작곡가선생님을 찾아온 용무의 하나도 아이들이 부를수있는 노래를 부탁하고싶어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기대어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였다.

《아니 그럼 어머님께서 아이들의 노래때문에 저를 이렇게 찾아주셨단 말씀이신가요?》

수군은 도저히 믿을수 없다는듯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래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해방을 맞고도 부를수 있는 노래가 없어서 해방전의 옛날노래들을 부르고있습니다. 해방된 조선의, 어린이들은 조국을 어깨에 떠메고나갈 미래의 기동감이 아닙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후대들을 잘 키우고 육성하는것은 혁명의 피줄기를 대를 이어 곳곳이 지켜나가도록 하는 중대한 사업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

수군은 이때까지 아이들의 노래를 그렇듯 조국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창작분야로 인정하지 못했었

다. 그가 작곡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도 세계 이룬 난 작곡가들의 대작들에서 충동을 받았기때문이었다. 그는 그 대작들을 쓴 작곡가들과 자기의 어깨를 견주어보려고 모지름을 써왔었다. 그가 해방전에 농촌학교에서 음악교원을 한것은 일체의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민족말살정책에 도전하고 그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피신하기 위한것이였다.

아이들의 노래를 몇곡 지은것은 일제에 항거하는 자신의 심정을 아이적인 선물로 표현한데 불과한것이였다. 그런데 어머님께서서는 아동가요창작의 중요성을 이렇듯 크게 보시는것이였다. 아직은 말씀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수 없는 그였지만 자기로서는 녀사의 부탁을 받은 영광을 지녔다는 격동으로 하여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열정이 북받쳐오르는것이였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를 노래를 지으려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뎡데요?난문제가 뭔지 털어놓고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수 있는 일이라면 힘써보겠어요.》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무엇인가 짚이는바가 있으면 진지한 어조로 물으시였다.

《저는 작곡공부는 좀 했지만 가사까지는 아직...제가 아이들의 노래를 지은것도 함께 교원생활을 하던 한 녀선생이 가사를 만들어준것이였습니다.》

《참 그렇지요. 창작도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자기 전공분야가 따로 있겠지요. 그리고보니 당장은 가사가 문제이구만요.》

그이께서는 수군의 심정을 이해하신듯 잠시 말씀이 없으시였다.

《그럼 작곡가선생! 이렇게 하면 어떨가요. 제가 가사는 말아보겠어요. 선생님이 저의 부탁을 쾌히 들어주실 의향이시라면 말입니다.》

어머님께서서는 웃음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아니 그런것까지 어떻게 어머님께 수고를 끼쳐드리겠습니까?》

《수고랄것이 없지요. 오히려 저는 보람있는 일로 생각하겠어요. 저도 수군선생처럼 작곡을 할수있는 재능만 있다면 평생 아이들의 노래를 짓는데 고스란히 바치고싶어요. 그러니 다르게 생각지 말고 가사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김정숙동지!...》

수군은 가슴이 뭉클해남을 느끼였다. 저절로 눈물이 핑 고였다. 백두광야를 주름잡으며 일제놈들을 당황망초케 하시던 항일의 녀걸, 백두산의 녀장수 김정숙동지께서 어쩌면 이리도 너그럽고 도량이 넓으시며 평범하실수 있는가! 조선은 얼마나 위대한 혁명의 어머니를 모시고있으며 조국의 미래인 새 나라 어린이들은 또 얼마나 큰 복을 받아안은것인가.

김정숙어머님을 바라우고 돌아온 수균은 밤이 깊어가는것도 모르고 오래도록 깊은 명상에 잠겨 피아노앞에 앉아있었다.

### 3

《처녀는 누구네 집을 찾고있기에 두리번거리고 있소?》

희영은 등뒤에서 묻는 뜨직한 목소리에 놀라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수염발이 허연 로인이 허리를 약간 굽힐사하고 희영을 경계하는듯한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망설이다가 찾아 떠난 희영은 무슨 잘못을 저지른 학생처럼 아래입술만 감싸고있었다.

그는 오늘 시내에 불일이 있어 들어왔다가 며칠전에 학교에 찾아와 주소를 적어주면서 꼭 한번들리라고 당부하던 어머님이 생각나서 해방동마울로 발길을 옮기었던것이다.

《혹시 이 집을 찾아오는 손님이 아닌가?》

로인은 조금 높은 둔덕에 자리잡고있는 2층 양옥집을 가리키는것이였다.

《저 여기 주소가 적혀있습니다.》

희영은 마침 잘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손수건에 찢은 수첩을 펼치고 주소를 읽었다.

《옳구만. 내 어쩐지 그럴것 같더라니까. 요즘 백두산의 녀장군님을 찾아오는분들이 그칠새없다우.》

《아니, 백두산의 녀장군님이시라니요? 그럼 김정숙어머님께서?!...》

희영은 갑자기 가슴이 활랑거렸다.

《그럼 처녀는 이 집에 누가 계시는지 모르고 찾아온단말인가?》

로인은 알수 없는 일이라는듯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렇게 아니라 사실은...》

희영은 종잡을수 없는 마음으로 떠듬거렸다. 그렇다면 그날 내가 만나뵈온 그분이 우리 도에 오셨다는 항일의 녀장군 김정어머님이란 말인가?!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도 다 있담...》

《어쨌든 바로 찾아왔수다. 그분께서는 찾아오는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천만시름 다 풀어주시는 파시 세상에 둘도 없는 귀인이시라오.》

희영은 온몸이 화끈 달아올랐다. 로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분앞에 얼마나 경거망동을 했는가. 절세의 위인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녀성의 몸으로 나라 찾는 혈전에 한몸 바쳐싸우신 녀장군님께 변변히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속에 품었던 말을 가림없이 다했으니...희영이 선뜻 걸음을 내짚지 못하고 그자리에 굳어진듯 서있는데 2층 양옥집 현관앞에서 한 녀인이 그를 반겨 맞이하였다.

《아니 희영선생이구만. 그렇지 않아도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어요. 어서 들어가자요. 지금 김정숙녀

사께서 집에 계십니다.》

희영은 옥화가 팔을 잡아 이끄는대로 2층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이게 누구예요? ! 원 이런 희영선생이구만요. 어서 들어와요. 어쩐지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꼭 찾아올것 같더라니까요.》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희영을 앞세우고 방으로 들어가시여 따뜻한 아래목에 앉히시였다,

그이께서는 희영에게 그간 학교형편과 아이들의 학습정형에 대하여 물으시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이때 옥화가 문을 열고 들어와 먹음직스럽게 익은 빨간 사과가 담긴 다반을 살며시 놓고 나갔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큼직한 사과 한알을 드시고 손수 깎으시였다. 하얀 속살이 드러나게 껍질을 벗기신 그이께서는 칼로 절반을 쪼개시고 그중 한쪽을 희영의 손에 들려주시였다.

《희영선생, 우리 꼭같이 한쪽씩 나누어먹자요. 그래야 정이 더 깊어진대요.》

희영은 눈굽이 후끈해와 손에 든 사과를 입에 대지 못하였다.

《자, 어서 들어요. 희영선생과 마주앉아 사과를 나누어먹으니 산에서 싸울 때 장군님께서 우리 아동단원들에게 조국의 사과를 보내주셨던 생각이 나 누만요, 우리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먹었었어요. ...이젠 나라가 해방되었으니 우리 아이들은 장군님의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고 노래부르고 행복하게 자라게 됐어요. 그러니 장군님의 아들딸로 씩씩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키우는 희영선생은 얼마나 좋겠어요. 막 부럽구만요.》

김정숙어머님의 말씀의 마디마디는 희영의 가슴에 맑고 깨끗한 샘처럼 흘러들었다. 그는 아이들을 배워주는 교단에 서있지만 어머님께서 의의를 부여하시고 바라시는것처럼 일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은연중 귀뿌리가 붉어졌다. 수균은 학교를 떠나가면서 《한뼉 조롱속의 새처럼 농촌학교에 갇히워있겠는가? 이제는 해방이 되었으니 우리도 청춘의 리상을 꽃피우자면 활무대로 나서야 한다.》고 권고하고 요구하였다. 그 요구와 권고 앞에 희영은 동요를 일으키고 번민의 나날을 보내고있었던것이였다. 하여 희영은 어머님앞에 더욱 고개가 숙여지고 지난날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벽장문을 열어 커다란 학습장통구리와 종이꾸레미를 희영이앞에 내놓으시였다.

《제가 선생님의 학급 학생들에게 주려고 마련해놓은 학습장과 연필이에요. 비록 많지는 못하지만 받아주세요.》

《아니 이리저 마십시오. 정말 자꾸만 이러시면전 정말...》



《그저 제 성의로 생각해주면 고맙겠어요. 앞으로 파괴된 공장들이 복구되면 나라에서는 학용품들과 교과서들을 우선적으로 생산공급하게 될거예요. 그러구 이건 우리가 산에서 싸올 때 자체로 지어서 부르던 아동가요가 적혀있는 수첩이예요.》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표지에 보풀이 일고 모서리가 단 가지색 뚜껑의 작은 수첩을 회영이에게 주시었다.

회영은 그이께서 주신 혁명가요가 적혀져있는 수첩을 소중히 받아들고 번져나갔다, 《아동단가》, 《소년애국가》, 《어데까지 왔니》, 《어린 동무 노래부르자》...회영은 대뜸 노래에 심취되어 단숨에 읽어나갔다.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노래가 흘러나왔다.

목에다 두른것은 붉은 넥타이  
등에다 짐을 지고서 훈련을 나간다  
장하다 그의 이름 아동단 아동단 아동단  
세상이 모두다 칭찬한다 아동단 아동단

...

회영이의 선창을 받쳐주며 혁명가요 《우리는 아동단원》을 함께 부르시던 김정숙어머님의 눈앞에는 불현듯 1934년 봄 어느날의 일이 되살아올랐다. 유격구에서 그때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여러날 아동단연예대의 공연준비를 시키고계시었다. 공연종목에는 가무 《단심줄》과 무용 《흰갈매기》가 들어있었으며 하모니카 독주 및 합주, 독시, 합창시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동단연예대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며 종목이 바뀔 때마다 박수도 쳐주시었다. 연길현 아동단연예대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른다고 앞으로 계속 공부도 잘하고 연예대활동도 잘하라고 하시면서 40개의 붉은 넥타이를 선물로 안겨주시었다. 아, 그때의 기쁨과 행복은 얼마나 컸던가!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때 붉은 넥타이를 아동단원들에게 매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었다.

《동무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혁명의 후비대로 억세게 자라라고 우리들에게 이 붉은 넥타이를 주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붉은 넥타이를 앞가슴에 날리며 언제나 장군님께 충성다할 일념으로 한마음 불태워야 합니다. 모두 다 오늘의 이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의 참된 전사로 준비해나갑시다. 항상준비하자!》

그때 다같이 아동단경례를 하면서 《항상준비!》

하고 힘차게 화답하던 아동단원들...나이는 어려서 아이지만은... 회영은 승엄한 감정에 잠겨 오래동안 말이 없었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오늘은 아동단원들의 뒤를 이어 새 조선의 기둥이 될 후대들이

자라고있으며 또 그렇게 키워내야 하는것이였으니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회영이와 같은 교원들이 자기 역할과 임무를 자각하도록 이처럼 마음쓰시는것이였다.

## 4

김정숙동지의 바래움을 받으며 골목길을 나서 큰 길에 들어선 회영은 건다가는 멈춰서 다시 뒤를 돌아보곤했다. 이제는 해방동의 그 집이 보이지않건만 지금까지도 김정숙동지께서 서계시는것만 같이 느껴져서였다. 다시 만나자고, 이제부터는 혈육처럼 가까이 지내자고 하시던 그이의 따뜻한 말씀이 귀전을 떠나지 않고 울리는것만 같았다.

조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건국위업을 만드느 보람찬 삶에 대하여 가슴뿌듯이 새겨주시고 이끌어주신 아, 김정숙동지! 회영에게는 그이께서 손수 장만하여 주신 학습장과 연필, 혁명가요가 수록되어있는 수첩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것으로 여겨지며 힘을 주어 껴안았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 걷던 회영은 이윽하여 걸음을 빨리하였다.

(수균선생을 만나야 해. 꼭 만나서 김정숙동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들려주어야 해. 그는 도대체 아이들을 버리고 어디에서 헤매고있단말인가?)

김정숙어머님을 만나뵈옵고 세상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듯 눈앞이 환히 밝아진 회영은 자기를 버리고 애들을 버리고 큰일을 해보겠다고 떠나간 수균을 어서빨리 만나고싶었다. 그를 만나 설분을 터뜨리고 깨우쳐주고싶었다.

수균을 찾아 걸음을 다그치는 회영의 귀전에는 헤여지면서 하시던 김정숙어머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되새겨졌다.

《회영선생, 그때 우리의 아동단원들과 유격대원들이 부르면서 싸움터로 나간 그 많은 혁명가요들은 전문가들이 아늑한 방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창작한 노래들이 아니였답니다. 눈길을 헤치는 행군길에서, 일제와 싸우는 전장에서 가사도 만들고 곡도 붙였습니다. 그 노래들을 지어부르며 용기백배하여 싸웠고 조국의 래일을 락관하며 중첩되는 시련을 뚫고나갔어요. 며칠씩 굶으면서 백두밀림의 허리치는 눈을 헤치고 하루에도 수십차례 달려드는 원수들을 물리치면서 부르던 노래...그 노래가 단순히 노래였겠습니까. 우리는 노래를 혁명의 위력한 무기로 간주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우리혁명은 노래와 함께 시작되였고 노래와 함께 전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노래와 함께 승리할것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니 회영선생, 그 누가 노래를 지어줄것을 바라지 말고 자신이 해보세요. 회영선생은 그전에 가사를 쓴 경험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회영선생이 잘 아는 수균선생과 같은 재



능있는 작곡가도 있구요.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교육사업이 중요하다는것만 자각한다면 지금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서로 힘과 지혜를 합쳐서 아이들에게 새노래를 얼마든지 지어서 배워줄수 있고 공부도 더 잘 가르칠수 있을거예요. 아이들의 새노래가 창작되면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나는 그날을 꼭 기다리겠어요.》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은 마음속으로 이런 다짐을 하면서 수균이가 살고있는 집쪽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수균이 학교를 떠나간후로 몇번 다녀간 길이었다. 《수균씨, 어쩌면 그렇게도 야속하게 떠나버릴수 있어요》 아이들을 버리고 그렇게도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던가요?》

찾아올적마다 다시 함께 교단에 서자고 설복도하고 애원도 하였었다. 그때마다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희영이 언제 계몽되겠는가 하던 수균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에도 금이 가고있었던것이었다.

《희영씨, 동무는 천성적으로 좋은 그 목소리를 그래 촌학교의 아이들을 위해 바치겠다는거요? 동무는 자기의 목소리로 세상사람들의 절찬과 감탄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왜 리해 못하오. 그래 동무에게는 리상도 없소? 개인의 명예가 필요없다는거요? 마음내키는대로 하오. 나의 성스러운 음악창작을 더는 방해하지 말기를 바라오. 난 우리의 사랑을 귀중히 여기오. 그러나 해방된 조국땅에 나의 교향곡이 울리게 될 명예하고는 바꿀수 없소.》

수균의 이러한 주장과 요구 앞에 희영의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을수 없었다.

바로 이런 때 김정숙동지께서 자기를 찾아주시고 힘을 주시였으며 교육자의 영예와 보람을 안겨주시었던것이다.

문득 피아노소리가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그가 울적마다 건반을 들부실듯 울리던 피아노소리, 해매몽롱하고 종잡을수 없으며 번잡하기까지하던 피아노소리였다. 수균은 그 선율속에 신비한 음악의 세계가 있다고 력설하였었다. 허나 지금 울려오는 피아노소리는 전혀 다른 색깔의 음향이였다. 종달새가 지저귀는 소리갈기도 하고 시내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인가 하면 두몽실 떠가는 흰구름을 따라잡으려고 웃고 떠들며 뛰여가는 아이들의 목소리 갈기도 하였다. 어쩌면 발랄한 아이의 음향이 그의 방에서 울려올수 있단 말인가.

희영은 전에 비해 너무나 달라진듯싶은 선율에 자기가 혹시 집을 잘못 찾아온것이나 아닐가 하고 두리번거리기까지 하였다. 아니면 다른 음악가의 곡을 놓고 합평회를 하고있는지도 몰라, 틀림없이 다른 작곡가의 곡이 분명해...

수균을 찾아온 희영이었지만 지금은 동심의 세계

를 발랄하게 선율에 태운 피아노소리에 이끌려 한 걸음두걸음 다가갔다. 음악에 침혀된 연주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줄도 모르고 건반우에 손을 날리고있는것이였다.

(아니 저이가?!)

피아노연주가는 분명 수균이였다, 희영은 무겁게 들고온 학습장통구리를 놓을줄도 모르고 굳어져버렸다.

《아니 이제 누구요? 희영! 희영씨가 어떻게? 내 그렇지 않아도 희영을 찾아가려던 참이었소.》

피아노의 선율이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뜻밖의 음악이였다면 자기를 대하는 수균의 반가움 또한 전혀 상상밖이여서 희영은 어리벉벉해졌다.

《희영! 왜 그러고 섰소? 어서 여기 앉아 이 선율을 들어보오. 마음에 드는가?! 아이들의 마음에 들겠는가 의견을 내놓으란 말이요.》

《?!...》

수균은 그전의 그가 아닌듯했다. 아무리 세계적인 명곡을 창작한다고 머리를 싸매고 오선지속에 묻혀있었지만 저렇게 흥분과 열정에 뜬 수균을 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수균씨, 한가지 물자요. 수균씨가 방금전에 연주한 음악은 누가 작곡한거지요?》

희영은 이름할수 없는 기대를 가지고 물었다.

《누가 작곡한거라니 ? 하 이런...》

수균은 희영의 짐을 너찍 받아 책상우에 놓고 피아노앞에 마주앉았다.

《참 마음에 드는 선율이에요.》

《이 선율이 마음에 든단 말이지? 됐소. 이제 됐소.! 김정숙어머님께서 친히 주신 과업을 수행한 셈이요.》

수균은 기쁨을 금치 못해 그냥 싱글거렸다.

《아니 이제 뭐라구 했어요? 어드분이 주신 과업이라구요?》

희영은 성급히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희영은 아직 그분을 모르고있단말이요? 하긴 촌 학교에 있으니 알수 없겠지. 그분은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일체의 백만대군을 **무찌르**는 싸움을 벌리신 백두산의 녀걸 조선의 녀장군 김정숙어머님이시란말이요. 그분께서 우리 집에까지 몸소 찾아오시여 아이들의 노래를 지으라고 부탁하시였던말이요. 그런데 가사가 문제거든. 생각하고 또 생각한 나는 오늘 희영을 찾아 원흥인민학교에 가려던 참이었소. 그래 희영이 가사를 지어주겠소? 나를 좀 도와주겠는가 말이요?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눈물을 흘리오. 왜 그러오?》

수균은 그제야 희영의 눈에서 샘솟듯 흐르는 눈물을 발견하고 놀라는것이였다.

《너무 기뻐서 그래요...너무나 행복해서 그래요... 저 학습장이 어떤것인줄 아세요? 이 혁명가요집

을 어느분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주셨는지 알기나 하는가 말이예요?)

《그럼 회영이도…?!》

《그래요… 어머님께서 우리 학교도 찾아주시었어요. 우리 애들은 정말 행복해요. 온 나라 아이들은 귀인을 만났어요.》

회영은 더 말을 잊지 못하고 수균의 가슴에 와락 얼굴을 묻었다.

## 5

함박눈이 소복이 내린 아침이었다. 해방을 맞아 처음으로 내린 흰눈이었다.

수균은 이날 시안의 문화인들속에 섞이여 김정숙 어머님을 만나뵙게 되었다. 일행이 그이께서 숙소를 정하고 계시는 2층집에 이르니 현관에서 옥화가 그들을 맞아들였다. 그들이 응접실에 자리를 잡기 바쁘게 안쪽방문이 열리며 김정숙동지께서 들어서시었다. 가볍게 머리를 숙여 레의를 표하신 그이께서는 미소어린 따뜻한 눈길로 좌중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었다.

《오시느라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처럼 초청한것은 다름이 아니라 새로 지은 아이들의 노래를 함께 들어보고싶어서였습니다.이젠 오실분들이 다 오신것 같은데 그럼 우리 함께 가서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직접 들어보는것이 어떻가 합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말씀하시자 모두가 기꺼이 동의 표시하였다.

마당에는 언제부터인지 풍을 친 자동차가 목탄연기를 피워올리며 기다리고있었다.

자동차는 어느덧 시내를 벗어나 농촌길로 접어들었다. 얼마간 달리니 지붕우에 눈이 하얗게 쌓인 학교교사가 나졌다. 자동차가 학교앞에 들어서자 호기심에 찬 눈빛들이 창문가에 조롱조롱 매달렸다. 누구인가 주의를 주었는지 아이들은 인차 문에서 물러서고 교사는 고즈넉한 정적속에 잠기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일행을 인솔하고 어느한 교실로 들어서시었다.

풍금앞에 서있던 회영이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자 서른명 잘되어보이는 학생들이 칠판앞에 두줄로 나란히 서서 인사를 하였다.

그이께서는 아래단에 하얀 줄을 수놓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곁에 받쳐입은 처녀애들과 검은 양복을 의젓이 입은 남학생들을 다정히 일별하시었다.

아이들은 금시 달려가 자애로운 그이품에 와락 안길듯 설레었다.

일행은 책상을 뒤로 밀어놓고 렬을 맞추어놓은 학생용결상에 자리를 잡고앉았다.

어머님께서 회영이와 눈길을 주고 받으시고나서 좌중을 둘러보시었다.

《그럼 오늘 아동가요합평회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미 알고계시는바이지만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아동가요는 청년작곡가 김수균선생과 이곳 학교교원인 장희영선생이 창작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서로 눈길을 주고받기도 하고 조용히 수군거리면서 감탄하여마지 않는 좌중을 잠시 둘러보시었다.

《더우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주는것은 이번에 해방된 조선의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를 창작하는 과정에 작곡가 김수균선생이 한생을 아동가요 창작에 힘쓰겠다고 결의하여 나선것입니다.》

그러자 박수갈채가 터쳤다.

《앞으로 아동가요를 전문창작하게 될 김수균선생과 장희영선생님들의 창작에 도움이 될 좋은 의견들을 기탄없이 내놓기를 바랍니다.》

김정숙동지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과일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회영은 치마를 쓸고 풍금앞에 앉았으나 인차 전주를 떼지 못하였다. 오늘의 이 영광을 안겨주신 녀사에 대한 고마움의 걱정이 세차게 가슴속에 끓어올랐던것이다. 처녀교원의 그 걱정이 그대로 좌중에 옮겨진듯 모두 경건하고 숭엄한 눈길로 그이를 우러렸다.

김정숙어머님께서 그만 진정하고 노래를 들어보라고 말씀하시듯 다정한 눈길로 회영을 바라보시었다.

그제야 회영은 풍금우에 접어놓았던 악보를 펼치고 몸가짐을 바로하였다.

줄지어 서있던 학생들속에서 한 아이가 몇걸음 나서서 노래종목을 소개하였다.

《처음 들으실 노래는 <우리는 새 조선의 꽃봉오리>입니다.》

이어 전주가 울리고 풍금반주에 맞추어 아이의 힘찬 노래소리가 울려퍼졌다. 후렴구에 이르자 처녀애들은 박수를 치며 나팔나팔 춤을 추고 총각애들은 어깨를 으쓱거렸다. 창공높이 자유로이 날며 청고운 목소리로 지저귀는 새들처럼 생기발랄하게 부르는 노래를 들으시는 어머님의 눈귀는 자꾸만 젖어 들었다.

저절로 봄물결처럼 흘러드는 추억속에 잠기시는 것이었다. 풀뿌리마저도 더는 켈것이 없는 기근의 유격근거지, 왜놈 《토벌》에 불타버린 학교, 부상한 팔이며 다리를 베천오리로 싸매고도 유격대원들과 아버지, 어머니들이 적들을 죽치는 전호를 찾아가 씩씩하게 노래를 불러주던 아동단원들… 그들에 미소를 머금을 때면 불우물이 유표하게 패이하던 동생 기송이도 있었고 새벌처럼 빛나는 눈가득 웃음을 머금고 노래를 부르던 금순이도 있었다. 해방될 조국의 래일을 위해 천신만고를 달겨여기다가

너무나 일찌기 생을 마친 그들!...그들이 지닌 불굴의 신념과 투지는 혁명적인 노래속에서 다져졌고 노래와 함께 발현된것이다. 아이들의 성장에 노래는 것처럼 중요한것이다. 아이들에게 훌륭한 노래를 많이 지어주어 이 나라 모든 아이들을 아동단원들처럼 혁명의 피줄기를 튼튼히 이어갈 투사로 키워야 하고 그 노래소리로 해방된 이 강산을 들끓게 해야 한다.

노래는 다섯곡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시 들어보자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예정보다 퍼그나 시간이 흘러서야 음악감상이 끝났다.

저저마다 앞을 다투어 자기들의 의견을 내놓았다. 가사에 대한 의견도 있고 곡상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대체적으로는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새 조선의 어린이들의 감정과 지향을 진실하고 소박하게 노래했다고 일치하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작곡가 수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제기된 의견들에 대하여 고맙게 들었다고 하면서 김정숙어머님께서 말씀해주실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어머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머금으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노래를 참 기쁘게 들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시대적사명감을 깊이 자각한 지식인들의 이악한 노력은 성공함을 쌓을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느끼였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위한 노래를 더 많이 지어주실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구태여 저의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마지막노래의 제목입니다. 가사도 그렇고 선율도 그렇고 나라를 찾아주신 위대한신 **김일성**장군님을 해님으로 받들어 따르는 어린 아이들이 해방의 새

아침을 맞으면서 부르는 내용을 담은만큼 노래제목을 《새아침》이라고 했으면 어떻가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어머님께서 어린이들에게 바치시는 뜨거운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하며 박수를 보내었다.

옥화도 그들과 함께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여러분은 우리의 김정숙장군께서 항일혈전의 나날처럼 그리던 고향 회령을 지척에 두고도 가기를 뒤로 미루고 새 조선의 어린이들과 지식인들을 위하여 로동자, 농민, 각계각층 인민들의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끼니도 휴식도 잊으시며 낮에 밤을 이어 얼마나 헌신분투하시는지 알지 못할것입니다.

하나 이때 옥화도 어머님께서 것처럼 그리시던 고향으로 영영 가보지 못하실줄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

그날 원흥인민학교의 학생들이 부른 노래는 해방이 되어 처음으로 열린 설맞이 어린이공연무대에서 다시 울리였다.

그때는 바로 새로 창건된 첫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의정으로 연필문제가 상정된 력사의 장을 남긴 해였던것이다.

잊을수 없는 그해에 수군과 회영은 조선소년단창립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전국아동가표현상모집에서 영예의 1등수상자가 되여 김정숙어머님께서 계시는 민주수도 평양을 향하여 나란히 렬차에 몸을 실었다....

## 가사

# 백두산 녀장군의 노래

김봉운

항일의 혈전만리 피어린 길에  
사령부의 안녕지킨 백두의 녀장군  
수령웅위 한길우에 빛나는 한생  
천만년 따르리 김정숙장군

백두의 붉은 태양 받들어올려  
밝은 미래 열어주신 혁명의 어머니

이 조선의 력사우에 빛나는 영웅  
천만년 따르리 김정숙장군

혁명의 붉은 기발 휘날리시며  
조국위해 한생 다한 민족의 녀장군  
인민들의 심장속에 빛나는 모습  
천만년 따르리 김정숙장군

# 흰눈에 대한 서정

주원

송이송이  
눈송이  
날리며 감돌며 속살거리며  
하냥 이야기 많고많은 흰눈송이

산에 들에  
거리에 마을에  
때맞춰 펄펄 내리고내리는  
이해도 12월의 첫 눈송이

기다렸다고  
김정숙어머님 탄생일 기다렸다고  
저 하늘도  
환희의 눈꽃보라 뿌려주는가

반가움에 겨워 한줌  
그리움에 사무쳐 또 한줌  
듬뿍 두손 가득 떠안으니  
들려오네 어머님의 그윽한 음성-

산과 들은  
우리의 집이에요  
흰눈은 숨처럼 포근히  
산과 들을 덮어줄거예요

아, 어머님!  
눈오는 계절에 탄생하신분이어서  
류달리 좋아하셨던가  
그 흰눈을

장군님 품에 안긴 삼도만의 봄날  
그날부터 장장 수만리  
싸움의 눈보라길 멀고멀었어도  
해방의 봄빛만을 안고계신 어머님

어머님께 흰눈은  
추억의 꽃이었네  
마음속에 향시 피며 지지를 앓던  
오산덕의 맥 살구꽃 우렁이 그려주는...

어머님께 흰눈은  
정깊은 노래였네  
광명성 부르시던 밀영의 자장가소리  
어디 가나 못잊어 은은히 실어오는...

장군님 안녕지켜 지새우신  
밤들에 즐겨 맞고 또 맞으신  
아, 하얀 눈 하얀 눈 송이송이는  
친위전사의 기쁨이었네 행복이었네

세월은 멀리 흘러갔어도  
수령복 장군복 꽃피주신  
어머님의 숭고한 그 뜻  
하늘에 어리어 땅에 어리어

이 나라의 천년앞날 축복하는가  
이해도 12월의 첫 눈송이  
날리며 감돌며 속살거리며  
하냥 이야기 많고 많은 흰눈송이!

가사

# 결사옹위 첫 전사

리명근

항일의 그날에도 첫자리에 서계셨네  
해방된 그날에도 첫자리에 서계셨네  
김정숙어머님은 결사옹위 첫 전사  
수령님 옹위하는 첫자리에 서계셨네

준엄한 전장에선 방패되어 지키셨네  
먼곳에 계실 때도 성새되어 싸우셨네

김정숙어머님은 결사옹위 첫 전사  
영원한 친위대오 첫자리에 서계셨네

혁명의 천만리에 변함없이 서계시네  
천만을 이끄시며 변함없이 서계시네  
김정숙어머님은 결사옹위 첫 전사  
장군님 옹위하는 첫자리에 서계시네

# 아, 회령땅아!

주광남

어려울 때만 그림고  
좋은 날엔 그리움이 식어져  
항일의 나날 그리도 외우시던 이 고향에  
단 한번도 아니오셨던가

피눈물에 젖은 작은 짚신자욱  
떠나가신 자욱은 새겨졌어도  
기쁨에 넘쳐 고향땅 안으시며  
들어서신 자욱은 여기 없는  
아, 회령땅아!

그토록 간절히 그리지 않으셨대도  
이 가슴 이토록 저며들지 않으리  
생전에 단 한번만 와보셨대도  
걸음걸음 이토록 생각깊지 않으리

밀영의 밤 두둥실 달이 솟아오르면  
저 달빛 회령에도 비칠거라고  
행군길에 되풀령을 넘으시면서도  
회령은 저 멀리 어디바루냐고...  
아, 귀전에 쟁쟁 지금도 울리어  
가슴치는 어머니의 그 말씀!

가까운 혈육들을 혁명에 다 바치시고도  
귀중한 청춘시절 불길속에 다 바치시고도  
고향땅 찾을 권리 부족하셨던가  
흩어져갔던 온 나라 인민들  
제 고향에 다 돌아갔건만  
부령의 갈림길 그 지척에서조차  
발걸음 돌리신 김정숙어머님

수령님 받드는 그 길에만  
그 길에만 한생의 자욱 새겨가셨기에  
자신을 위한 발걸음  
단 한자욱도 새겨있지 않은 이 거리  
인민은 뜨거운 소원의 자욱  
덧새기며 걸나니

들어설 땐 그리움의 자욱  
떠나갈 땐 맹세의 자욱  
아, 회령이여  
여기서 새로이 첫자욱 땐 발걸음  
새겨가리라 한생토록.  
어머님 따르는 그 길로만!  
장군님 받드는 그 길로만!

가사

## 우리 장군님 아시는 처녀

최충웅

이른봄 산기슭의 진달래같이  
귀엽게도 수집을 잘 타는 처녀  
우린 정말 몰랐네 그 처녀가  
영예군인총각을 찾아갈줄을  
아, 그 처녀는 아, 그 처녀는  
언제나 일밖에 모르던 처녀

총각들 찾아와 만나자며는  
부끄러워 어쩔줄 모르던 처녀  
우린 정말 몰랐네 그 처녀

불같은 사랑을 간직한줄을  
아, 그 처녀는 아, 그 처녀는  
아무도 그 이름 모르던 처녀

뜨거운 진정을 가슴에 안고  
영예군인가정에 꽃이 된 처녀  
우린 모두 알았네 그 처녀가  
장군님의 제일 큰 기쁨된것을  
아, 그 처녀는 아, 그 처녀는  
우리의 장군님 아시는 처녀



# 눈보라여

김선환

깊어가는 한밤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눈보라 눈보라  
내 마음 두드리는  
눈보라 눈보라

정초에 우리 장군님  
굽이굽이 험한 령길  
눈보라 헤쳐 전연초소 찾으실 때  
내 가슴 에이도록  
몰아치던 눈보라 눈보라

일년사계절 어느 한시도  
내 가슴에 잡지 않던 눈보라  
우리 장군님  
자강땅 굽이굽이 령길을 넘으실 때도  
마음속에 야속하던 눈보라  
굽이굽이  
가파로운 령길  
눈바람속에 묻히면 길을 내시며  
우리 장군님 헤쳐가실 때

아 이 마음속에  
인민의 마음속에 야속하던 눈보라  
오늘의 강행군길 그 간고함을 새겨안을때

가슴에 땀히던 얼음덩어리  
  
하지만 눈보라여  
너 아무리 사납게 휘몰아쳐  
하늘땅을 다 얼군대도  
우리의 신념은 얼굴수도 없고  
우리가 가는 길은 막을수도 없노라

문득 이런 밤에  
또다시 네가 몰아치니  
멀고먼 전선길에 계실  
우리 장군님생각에  
잠못드는 이 마음

내 서둘러 신들메를 조이고  
일터로 향하노라  
걸음걸음 너를 맞받아  
위훈을 수놓으리니

오, 눈보라 몰아치는 이런 날이면  
가슴속에 맹세의 불길 더 세차게 일어번진다  
이 땅의 눈비를 남먼저 헤치며  
위훈의 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  
너를 휘어잡으리라

가사

## 염분진은 절경일세

김파

염분진 도래굽에 은구슬을 뿌려주며  
천만자갈 구울리는 파도소리 정다워라  
인민위해 오시였던 백두산의 3대장군  
사랑의 자욱어려 더없는 절경일세  
에헤요 동해의 염분진은 아름다운 절경일세

희디흰 갈매기들 너울너울 춤을 추며  
경치좋은 기슭으로 모여들어 멋이로다  
계승봉에 오르시여 굳은 맹세 다지시던

장군님 영상 어려 더없는 절경일세  
에헤요 동해의 염분진은 아름다운 절경일세

기암절벽 도래굽이 하도 좋아 찾아오며  
홍성이는 꽃물결 끝이 없어 즐거워라  
장군님 여기 오서 명승지로 꾸려주고  
그 이름 빛내주어 더없는 절경일세  
에헤요 동해의 염분진은 아름다운 절경일세

《영웅적으로 살며 영웅이 되는것은 자주적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값있고 보람찬 삶으로, 가장 높은 영예로 됩니다.》

김정일

실화문학

## 백날과 하루

한정아

수훈식을 앞둔 회의장은 흥분으로 설레었다.

며칠째 계속된 전국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게 되었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고난의 행군》에서 큰 위훈을 세운 대회참가자들을 위하여 오늘의 수훈식을 마련해주셨던 것이었다.

회의장에 앉아있는 남포화학공장 지배인 오택석의 마음도 벽찬 충동으로 높뛰고있었다. 대회연단에서 울려나오던 신심에 넘친 목소리들과 전민을 최후승리로 호소하는 힘찬 구호들로 하여 열풍처럼 몰아치던 회의장의 분위기가 아직도 오택석의 가슴에서 그대로 끓어번지고있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격동적인 이번 회의의 순간순간에 시종 놓지 못하고 이어지는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나이에 대한 생각이였다. 앞뒤를 둘러봐도 자기처럼 예순을 넘긴 나이의 대표가 별반 눈에 띄이지 않기때문인지... 때와 장소에맞지 않게 이 무슨 당치 않은 생각인가고 애써 털어버리려 했으나 그 생각은 지긋게도 뇌리를 감돌며 떨어지지 않았다.

오늘 수훈식에서는 영웅들이 많이 나오고 높은 급의 수훈자들도 많이 나올것이라고 한다.

영웅, 얼마나 빛나는 영예인가. 당과 조국, 인민을 위해 커다란 공헌을 한 공민들에게 차례지는 가장 높은 영예를 받아안게 될 사람들의 생은 얼마나 빛나는것인가.

불현듯 대회로 떠나오던 날 아침에 있는 일이 떠올랐다. 대회장에서 입을 그의 양복에 훈장을 달기 위해 훈장함을 꺼내여 열던 딸 현심이 놀라는 것이었다.

《어마나, 아버지예겐 아직도 공로메달만 있구만요. 하나, 둘, 셋-일곱... 어떻게 공로메달만 많이 탔어요?》

딸의 놀람에는 30여년간 지배인사업을 해온 아버지에게 이런 공로밖에 없는가 하는 의미가 숨어 있었다.

《사람은 명예를 바라고 사는것이 아니다.》

남편의 옷매무시를 바로잡아주던 안해가 딸에게

엄한 눈길을 보냈다. 한생 교육자로 일해온 안해여 서인지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된 딸의 언행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을 바라보는 안해의 부드러운 눈길에 한순간 그늘이 비끼는것을 오택석은 놓치지 않았다. 물론 그 눈빛의 의미는 딸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였다. 그것은 앞으로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남편의 나이에 대한 은근한 서글픔과 같은 것이였다. 이제는 정말 일할 날이 길지 않았다.

안해의 서글픔은 오택석자신도 이즈음 종종 느끼는 심정이였다.

더구나 오늘과 같은 영광의 좌석에서 해놓은 일 없이 황혼기에 이른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니 허전함이란 이루 말할수 없었다.

개관사정(관뚜껑을 덮을 때 가셔야 사람을 평가한다는 말)이라고 하지만 사실 예순을 넘긴 자기 나이를 놓고보면 지금 그의 한생을 총화짓고 평가한다 해도 결코 이르다고는 할수 없을것이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흘러온 자기의 생을 돌이켜보았다.

생산계획에 쫓기우며 초조하게 맞고 보낸 낮과 밤들밖에 떠오르는것이 없다.

추억속에 새겨진 자옥이 많아야 값있는 생이라는 데 나에게는 그러한 자옥이 어디에 있는가. 해마다 분기마다 달마다 계획수행을 위해서 뛰어다닌 걸음 밖에 기억에 남는것이 없다.

남들처럼 공장을 나라의 굴지의 생산기지로 꾸렸 다거나 세상을 놀래울만한 발명을 하였다거나하는 것은 더구나 없었다. 크지도 않은 자그마한 공장에서 생산계획을 완수하자고 분주히 흘러보낸 해와 달들의 련속, 이런 평범한 날들의 주기적인 반복, 이것이 그가 걸어온 한생이였다. 하기에 이 전국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에 참가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오택석은 손을 내흔들었다.

《제가 무슨 일을 한게 있다고 그런 큰 대회에 참가하겠습니까.》

그러자 시당책임일군은 도리어 그에게 물었다.

《그래도 월계획, 분기계획, 년간계획을 수행하는데서야 시적으로 오동무네 화학공장이 첫째가 아니

였소?》

《계획이야. 노동자들이 하지 지배인이 합니까?》  
시당일군이 또 한번 그를 쳐다보았다.

《그렇다고 수십명 노동자들을 다 올려보낼수아  
없이 않소. 그래서 대표라는거지.》

…갑자기 장내가 조용해지는바람에 오택석은 생  
각에서 깨어났다.

사회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  
수여에 관한 정령을 낭독하기 시작하였다.

《부르는 동지들은 차례로 앞으로 나와주십시  
오.》

이어 환영곡과 박수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호명된  
수훈자들이 앞으로 나갔다.

오택석의 눈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50대의 젊은  
이가 비쳐들었다. 검덕의 금골분광산 4.5갱채광공  
청년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검덕의 로동계급을 찾아주신  
주체50(1961)년에 태어난 동갑나이들과 함께 소대  
를 못하고 17년간을 충성과 혁신으로 수놓아왔다.

해마다 년간계획을 두달이상 앞당겨 끝낸 이들은  
계획보다 수만톤의 광석을 더 캐는 자랑을 떨쳤다.

30대면 인생이 바야흐로 시작되는 초입과 같다.  
그런데 인생의 마감에 가서도 올라서기 어려운 위  
훈의 상상봉에 그는 벌써 오른것이다.

넓은 회의장을 빼곡이 차지한 참가자들은 영웅메  
달을 단 영웅광부에게 우뢰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오택석도 박수를 보냈다.

30대에 영웅이 된 청년, 내 아들과 같은 청년이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냈을까.

청년은 두손을 높이 흔들며 웃고있었다. 노력의  
열매를 한아름 안고 만사람의 축복속에 있는 그가  
한없이 돋보였다.

(나는 저 나이때 무엇을 했던가?)

어슴푸레한 기억을 헤치며 지나온 청춘시절의 화  
폭이 다가온다.

황량한 들판에, 메아리치던 메질소리가 다시금  
귀전을 두드렸다. 중소화학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29살 홍안의 나이  
에 지배인으로 배치되어 공장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아준것은 국가에서 공장부지로 명시해준 갈밭과  
공장인장이 전부였다. 공장이라는것은 이름밖에 없  
었다. 아름다운 감이 들었다. 광장의 종업원구성도 여  
러 생산협동조합에서 모여온 나이많은 노동자들이  
태반이었다. 공장을 세우는 사업은 모든것이 부족  
한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때는 전후복구건설이 갖  
끝난뒤였다. 한쪽에서는 불로크를 빗어 건물벽체를  
쌓아나가면서 설비를 마련하기 위한 일도 동시에  
밀고나갔다.

우선 노동자들속에서 팔팔한 젊은 제대군인을 선  
발하여 우리 나라 굴지의 가성소다와 염산 생산기

지인 함흥에 파견했다. 그들에게서 생산방법을 배  
워오기 위해서였다. 제대군인은 사흘길을 이틀에  
다녀왔다.

정말 절도있고 팔팔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거기서는 가성소다와 염산을 습법에 의해 생산한다  
는것이였다. 습물질은 외화를 들여야 하는 수입자  
재였다. 그런데 지방산업공장에서는 지방의 원료자  
재로 생산을 보장해야 하였다.

《다른 방법은 없나오?》

오택석은 행여나 하여 제대군인 김선남에게 물었  
다. 그러나 김선남은 눈길을 아래로 떨구며 《발전  
된 나라들에서도 이 방법으로 밖에는…》 하고 입  
을 다물어버렸다.

오택석은 잠시후 말문을 열었다.

《그 방법은 우리 공장에 도입할수 없소. 다른 방  
법을 찾아봅시다.》

선남은 놀라는 눈으로 지배인을 보았다. 겨우 공  
장터전을 담고있는 형편에서 새 방법이라니…

그 방법대로 생산공정을 꾸리기도 수월치 않겠는  
데…

그의 의문은 무리가 아니였다.

그 당시 공장의 기술력량은 매우 빈약했다. 대학  
졸업생은 고사하고 화학전문학교 졸업생도 한명밖  
에 없었으니 그가 바로 지배인자신이였다.

새로운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겠는가?

오택석은 공장설비때문에 뛰여다니다가 어느날  
다른 공장의 기사들이 나눈 말을 곱새기였다.

《시도서관에 가봐야겠어. 여느 도서관들보다 기  
술서적이 더 많구만. 새로 온 녀성관장이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인지 과학서적을 많이 구해다  
배치했다네.》

오택석은 그날부터 시도서관의 기술문헌실을 몽  
땅 뒤졌다.

습물질을 쓰지 않는 습법에 의한 가성소다, 염산  
생산방법이 약간 언급된 책을 찾았을 때 그는 아이  
들처럼 막 환성을 올릴번했다.

아직 공업에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실마리를 찾아  
진것만 해도 대단한것이였다.

오택석은 곧 노동자들을 불러일으켰다. 그 어디  
서도 아직 실현하지 못한 새로운 생산공정 설비를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에서 제작한다는 공지가 그  
들에게 힘을 주었다. 노동자들은 파철더미에서 관  
쇠를 골라오고 망치로 두드려 전해설비를 만들어  
나갔다.

간단신고를 겪으며 전해조 50대가 무어질무렵  
뜻밖에도 현장으로 장공장과 비누공장 지배인이 지  
원물자를 싣고 나타났다.

《이 공장에서 염산이 생산되면 살고날건 우리 장  
공장이요. 술한 난알을 절약하면서도 맛있는 간장

을 만들수 있으니말이요. 이제 평양간장 못지않은 간장을 먹게 되었다고 우리 마을 아낙네들이 여간 기뻐하지 않는다오.》

장공장 지배인의 말에서 오택석은 화학공장에 대한 남포시민들의 말없는 기대를 느꼈다. 시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는 책임감은 일손을 더욱 다그치게 했다. 하루하루 생산기술공정은 거의 완성되어갔다.

그런데 전해공정에서 심장과 같은 대형직류발전기가 없어 시운전을 할수 없었다.

오택석은 여러명과 로동자들과 함께 큰 공장들을 찾아다니며 탐문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어느한 전기공장에서 사장된 발전기를 얻어냈다. 왕복수천리길을 달려 화물자동차에 발전기를 싣고 온 그날은 온 공장이 명절처럼 들끓었다.

시운전이 시작되었다.

오택석은 합성탑과 각종 관들을 주의깊게 살펴며 분과 초를 재었다.

그런데 얼마 안있어 《팡!》하는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폭탄터지는 소리보다 더 요란했다. 수소폭발이었다. 오택석은 앞이마를 후려치는듯한 타격에 쓰러지고말았다. 얼마후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공장을 바라본 그는 아찔하여 눈을 감고말았다.

한순간에 공장건물을 치반들고있던 대들보는 뭉쳐 끊어져내리고 크고 작은 설비들은 산산이 부서져나갔다. 앞이 캄캄했다. 더는 일어설것 같지 못했다.

술한 자금이 하늘로 날아났다. 생각이 많아졌다.

(대학도 나오지 못한 내가 과연 새 방법을 성공시킬수 있을까?)하는 의혹에 시달릴 때 그에게 힘을 준것은 나이많은 로동자였다.

《지배인, 어서 지시를 내리게. 뭘 하라나?》

오택석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그를 보았다.

전기기술을 익히려고 왜놈기술자밑에서 별의별 천대를 다 받았다는 아바이였다.

《난 해방전에 짐승처럼 일해왔네. 그러나 누구도 나를 사람값에 쳐주지 않았지. 그걸 생각하면 뼈를 갈아서라도 우리 손으로 꼭 해내야 하네. 그래야 지방산업공장을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수령님의 뜻을 만들수 있지 않겠나!》

소박하게 울리는 그의 말에 오택석은 가슴이 뭉클해 졌다.

겉보기는 유순하고 말이 없지만 그의 심장속에는 얼마나 심오한 철리가 깃들어있는가.

그 철리는 책에서가 아니라 두 체도를 살아온 산 체험속에서 체득된것이다. 문득 그의 머리속에는 자기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아버지, 어머니가 뼈빠지게 일해도 변변한 신은 고사하고 입에 풀칠조차하기 어려웠던 어린 시절이

였다.

그러나 오늘은 당의 손길에 이끌려 이렇게 한개 공장을 책임진일군으로 일하게 된것이 아닌가.

당에서 하라고 한일은 기어이 해내야 한다.

그는 온몸에 우뚝 솟구치는 힘을 느꼈다. 우리 로동계급의 힘은 그전날 생존을 위해 애쓰던 그런힘이 아니다.

우리 인민을 잘 살게 하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받들려고 일떠선 자각된 무궁한 힘이다. 그 힘을 옹게 이끈다면 못해낼 일이 무엇이랴.

오택석은 다시 일어섰다. 드디어 1,500번의 실패 끝에 B방법은 성공되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만약 그때 자신이 일을 더 짜고들고 실무가 높았더라면 1,500번이라는 그 실패회수를 훨씬 줄였을것이라는 가책을 금할수 없다. 공장조업기일도 앞당겨졌을것이고 국가에 그만큼 더 리득을 주었을것이 아닌가...

수훈식단우로 채광공청년의 뒤를 이어 흰저고리에 곤색비로도치마를 받쳐입은 40대의 녀성이 오르고있었다.

군당아유치원공급소 지배인이다. 그는 가정부인들로 꾸려진 30여명의 집단을 이끌고 간석지를 개간하여 수십정보의 원로기지를 조성하고 현대적인 가공기지를 꾸려 군안의 탁아소, 유치원에 공급한것은 물론 인민군대를 물심량면으로 적극 원호했다.

한사람이 네뭇 다섯뭇 한샘이다.

몸매 자그마한 녀인이 어쩌면 대장부도 아름답차할 그렇게 많은 일을 해제졌는지 놀랄 정도이다.

저런 사람들이 영웅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창조자들!

기지와 판단력이 가장 왕성한 인생의 중년기에 쌓을수 있는 최대의 탑을 녀성의 힘으로 쌓아올린 영웅지배인!

오택석은 자기의 중년기를 돌이켜보았다. 별로 추억할만한것 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장조업당시 세웠던 몇개의 단층건물들의 초라한 외형이 떠오른다.

《아버지네 공장도 수지일용품공장처럼 크게 못짓나요?》

이것은 생산정상화때문에 밤을 새우는 그에게 밥을 가져온 안해를 따라 공장에 왔던 딸 현심의 말이었다. 어린 딸의 판단은 그르지 않았다. 그의 공장앞에 덩지를 크게 지은 수지일용품공장이 선 다 음부터 왜소해보였던것이다. 그때 인민학교 학생이었던 현심이가 다 자라 어머니가 될 때까지 공장의 외형은 별로 달라진것이 없었던것이다.

고심끝에 새 방법이 생산에 도입되었으나 합성탑과 배관이 자주 터져 애를 먹었다. 한대밖에 없는 대형직류발전기는 한달이 멀다하게 말썽을 부렸다.

결정적으로 생산설비들을 개조해야 생산정상화

를 실현할수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민경제계획을 제때에 수행하기도 어려웠다.

오택석은 노동자들에게 파비닐수집을 호소했다.

수지일용품공장에서 관에 쓰일 염화비닐을 광광 생산하고있었으나 빈손으로는 신세를 지자고 할수 없었다,

《지배인동지, 우리도 제기해서 자금을 좀 해결 받으시다.》

파비닐무지를 놓고 머리쓰는 지배인을 보기가 딱했던지 생산지도원이 한마디 하였다. 오택석은 그가 수지일용품공장을 녀두에 두고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수지일용품공장은 기초건설시기부터 국가적투자를 받았다. 어느 정도라도 대부를 받는것이 빈주먹으로 시작하는것보다 한결 험하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수지일용품공장은 이미 있는 공장건물을 더욱 확대하는 공사를 벌리고있었다. 그들은 화학공장이 보란듯이 정문도 본래보다 두배나 늘구었다.

그들이 부럽기도 했다.

그러나 오택석은 그와 견해를 같이 할수 없었다. 국가에서 받는것보다 하나라도 더 보탬주는것이 경제일군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생각했다.

파비닐을 싣고간후 며칠 지나서 수지일용품공장 지배인이 염화비닐관을 한차 싣고왔다.

《옆집에서 미쳐 돌봐주지 못해 안됐소. <형>공장이 <동생>네를 돌봐주지 않으면 체면이 안서지.》

그들이 증산투쟁으로 뿔었다는 비닐관은 화학공장 노동자들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른다. 뜻하지 않은 도움으로 관문제를 해결한 오택석은 기쁨을 감추며 엇드레질 했다.

《너무 큰소리치지 마시오. 이다음엔 우리 신세를 지게 될테니.》

어려울 때 자진하여 도와주던 그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후터워진다. 그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라면 생산정상화에서는 정말로 큰 지장을 받았을 것이었다. 모두가 달라붙어 노력한 결과에 배관과 합성탑은 풀렸지만 대형직류발전기는 여전히 난문제로 남아있었다. 공장에서 고장난 집채만한 대형발전기를 끌고 250리가 넘는 전문공장에 자주 다니는품도 보통 아니었지만 그때문에 생산이 멎게 되는것이 더 안타까웠다. 오택석은 생각다 못해 직류발전기 한대를 더 마련했지만 그것도 해결책이 못되었다. 전력이 많이 소비되었던것이다. 전력을 초과소비하는것은 국가에 손을 내미는것보다더한 것이다. 전력소비기준을 낮추면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이 초미의 문제였다.

그는 노동자들과 토론해보았다. 그러나 직류발전기 개조부터가 높은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인지 신통한 안이 나오지 않았다. 피우지 않던 담배를 기침을 해가며 연신 피워빠는 지배인의 정상이 하도 민

망스럽게 보였던지 한 노동자가 이렇게 중얼거렸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내 조카녀석이라고 이런 때 있었으면.》

조카애의 힘이라고 빌려보았으면 하는 그의 진정을 오택석은 지나는 말로 들었다.

《전기부문이요?》

《예, 반도체 공학부라던지...》

《반도체?!》

오택석은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반도체, 반도체라, 오택석은 그날 저녁 공장에서 전기기술이 높은 덕철아바이와 마주앉았다.

《나도 이미 대형직류발전기대신 반도체정류기를 만들 생각을 해보았네. 아직 전해공업에 정류기를 받아들인데는 없네만 그거야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런데 소자가 문제세.》

오택석은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역시 지혜는 군중속에 있었다.

《소자는 제가 구해보겠으니 당장 제작에 착수합시다.》

오택석은 크고작은 공장들을 찾아가보았으나 반도체소자의 예비는 없었다. 그러나 오택석은 실망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성격을 불에 비꼈다.

순간의 정지도 모르고 활활 타오르는 불, 일단 결심이 서면 지체없이 행동에 옮기는것 이것이 그의 주되는 특질이었다. 이번에도 오택석은 좋은 착상이나 묘안이 떠오르면 주춤하는 법이 없이 즉시 실천에 옮길뿐아니라 끝장을 볼 때까지 온갖 정력을 쏟아부었다. 어느 한 연구소에서 실험용으로 마련해둔것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화학공장 생산정상화를 위해 애를 쓰는 그의 노력에 감복된 연구사는 먼저 쓰라고 주저없이 내놓는것이였다.

오택석은 연구사의 소행에서 비록 자그마한 공장이지만 시민들이 화학공장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반도체소자가 해결되자 그는 곧 덕철아바이를 조장으로 하는 기술혁신돌격대를 무었다. 반도체정류기의 시운전은 제작에 착수하여 두달후에 진행하였다.

스위치를 넣자마자 정류기는 고르롭게 동작하기 시작했다. 모두 긴장해서 정류기를 주시했다. 시간이 흘렀다. 이상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공이었던것이다. 사과상자만한 반도체정류기가 집채같은 대형직류발전기보다 더 믿음성있게 가동하는것을 보면서 오택석은 대중의 창발력을 잘 동원하는것이 기업관리에서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절실히 체험하게 되었다.

그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에도 수훈자들은 계속 단상에 오르고있었다. 50을 넘긴듯한 장년의 사나이에 영웅메달이 수여되고있었다. 어느 수산사업소 지배인이다. 빈터우에서 목조어선으로 선단을 무어 어로계획을 넘쳐수행했다고 토론하던 그의 목



소리가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았다.

오택석은 빈터우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나 노래를 들으면 전후시기만이 아닌 최근 《고난의 행군》때의 일이 떠오른다.

아버이수령님을 잃은 슬픔으로 온 나라가 비통한 눈물속에 잠겼을 때 그도 수령님의 제자로서 아버이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금치 못했다.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 인민을 제국주의원썬들은 전대미문의 봉쇄와 고립압살의 울가미로 조이려하였다.

그러나 비분을 안고 적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맞서 일어난 우리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했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호소를 받들고 《고난의 행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화학공장에도 .큰 난판이 닥쳐왔다.

가성소다, 염산 생산의 주원료인 소금이 떨어지기 시작했던것이다.

제염소에 갔던 자재지도원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지간히 담이 큰 오택석이였지만 한순간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상기후현상으로 레년에 없는 불리한 일기조건이 계속되어 소금생산량이 꺾줄어들어서 다른단위들에도 절반씩밖에 배정하지 못했답니다.》

지도원의 말속에는 자재를 못받아 계획을 못하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의미가 담겨있었다.

(어쩔수 없다니. 생산계획을 미달한다면 그것은...아니 절대로 안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소금문제를 풀어야 한다.)

소금부족이라는 난판은 공장의 숨길을 끊어놓는것과 같은것이였다.

그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제염소로 향해졌다.

제염소로 들어가는 길목에 술한 자동차들이 늘어서 있는것을 보았을 때 그는 주춤해졌다.

어떻게 할것인가.

제염소에 찾아간다면 호인형의 지배인의 립장만 딱하게 할것이였다. 지금껏 화학공장에 계약된 소금은 한번도 어김없이 보장해준 지배인이다.

《주어야겠는데...야단났구만.》

그는 첫마디에 이런 걱정부터 앞세울것이다. 그 지배인이 술한 단위들에 수많은 소금을 공급해야 하겠으니 얼마나 속을 태우랴. 아마 밤잠을 잇고 떨것이다.

오택석의 눈길은 소금밭이 무연히 펼쳐진 바다기슭에서 떨어질줄 몰랐다.

소금이 허영계 드러난 발들과 물속에 잠긴 발들이 해빛에 번쩍이고있었다.

(소금이 없으면 소금밭에 잡아놓은 물이라도 날라다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결심은 또 다른 생각에 발목을 잡혔다. 수송은 무엇으로 하겠는가, 최근에는 연유도 긴장했다. 그렇다면 등짐으로?!

그런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오는 그들에게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지우겠는가.

굶임없이 겹쳐지는 생각때문에 그는 해가 지는것도 가늠하지 못했다.

공장에 돌아온 오택석은 노동자들에게 소금밭앞에서 세웠던 결심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묻지도 않고 묵묵히 등짐을 지고 지배인을 따라나섰다. 그들의 대렬속에는 반도체정류기를 창안한 덕철로인도 있었다. 사람들은 일흔이 가까운 그를 만류했다.

《나는 48년도 당원일세.》

짤막한 그의 대답에 일군들도 더 만류하지 못했다. 많은 의미가 담겨져있는 그의 말은 오택석을 크게 감동시켰다. 공장기초건설때부터 늘 앞장에서 일해온 아바이, 그는 공장의 말없는 기수였다.

생산교대를 마치면 소금생산전투가 진행되였다.

낮과 밤을 이어 진소금을 질통에 진 대렬이 바다가로부터 공장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어느날부터인지 소금운반에는 시민들과 학생들까지 끼여들기 시작했다. 방송차에서 《적기가》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방송차와 함께 나타난 구역당책임비서를 보고서야 당조직에서 밀어준것임을 알게 된 오택석은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당의 손길이였다.

《책임비서동지, 우리에게 저 노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신념이 더 굳건해집니다.》

장마가 겹치는바람에 일은 더 어려워졌다.

소금생산을 위한 마지막전투가 벌어지고있던 때 덕철아바이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

《지배인동무, 일이 어렵더라도 소금생산은 멈추지 말아야 하우다. 그래야...》

《아바이, 걱정마시우.》

그들은 소금생산을 멈추지 않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끝내 생산정상화를 보장하였다.

회의장에서는 또다시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그러나 오택석은 격동된 주위의 분위기속에서 솟구치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여 눈가에 손수건을 가져갔다.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어 의지가 되던 아바이, 꾸준한 노력으로 쌓은 높은 기술과 기능으로 공장의 어려운 모퉁이를 바위처럼 억세게 말아나섰던 아바이이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아바이의 유순한 눈매가 안겨오며 《여보게, 주저않지 말게.》하며 힘을 주던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듯했다.

우리 공장 노동자들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

공장건설시기부터 그들은 공장과 운명을 함께 하며 어렵고 힘든 고비들을 묵묵히 넘어왔다. 그들이 아니었다라면 공장은 계획을 못했을것이다.

소금문제를 해결하니 전국이 떨어졌다. 오택석은 공장초급일군들을 데리고 제강소로 떠났다. 거기에서 나오는 파전극을 재생하여 쓰려는 타산에서였다. 새벽에 집을 나서는 그를 안해가 멈춰세웠다.

《여보, 래일로 돌아올수 없을가요?》

평생 남편일을 간섭하지 않고 살아온 안해가 오늘엔 웬일인가 하여 오택석은 의아한 눈길을 치였다. 남달리 고집이 센 남편을 섬기느라 주름살도 많이 간 안해였다. 그러나 마음씨 고운 안해는 언제나 그것을 타내지 않고 오택석의 뒤바라지를 착실히 해왔다.

그런데 한정없는 그의 출창기일을 래일로 끝내 주었으면 하는 안해의 의도는 무엇때문일까.

《애들이 래일 다 오겠단데...》、

안해는 영문모를 소리를 한다.

《애들이 왜 온다오?》

《래일이 당신의 60돐이에요요.》

《영?!》

기쁨보다 서글픔이 먼저 왔다.

그것은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의례히 찾아오는 본능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여보, 당신을 보고 예순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물거예요.》

안해는 역시 마음이 고왔다. 남편의 미간에 나타난 그늘을 보고 위로하는것이였다.

《어찌겠소. 애들이 오면 당신이 잘 대해주오. 섭섭치 않게 말이요.》

이런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서는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공장일을 좀더 짜고들었다면 안해나 자식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주는 일은 없었을것이다.

대회로 떠나오기 전날에 장공장 지배인이 했던 말도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염산을 가득 실은 자동차를 타고 정문으로 나오던 장공장 지배인은 오택석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고맙네. 자네네 덕분에 우리 공장은 계획을 넘쳐하게 됐네.》

이때 옆에 있던 수지일용품공장 지배인이 한마디 했다.

《화학공장 정문은 여전히 분주하구만.》

그의 말대로 생산품을 실은 차들이 정문으로 비좁게 빠져나가다보니 분주한것만은 사실이었다.

공장설립당시 세웠던 정문 그대로이다. 그의 말을 들은 장공장 지배인이 부릉부릉 떠나는 자동차 운전칸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여보게 <수지일용>! 자네네 모자를 (그는 몹시 한적한 수지일용공장의 정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화학공장모자와 아예 바꾸지 않겠나?》

《예끼, 이사람, 우리- 모자도 이제 좁아질걸세.》

웃으며 응대하는 말이었으나 거기에는 진정이가려있었다.

그러나 오택석은 두 지배인의 말을 웃음으로 감수할수가 없었다. 그들의 찬사가 공장의형에 너무도 무관심한 그에 대한 질책으로 안겨왔던것이다.

수훈식장에 앉아있는 이 시각에도 오택석은 할일을 더 못한듯한 자책감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하기에 대회의 두번째날 연단에 올라 경험토론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는 난감했었다.

무엇을 가지고 토론한단 말인가. 크게 해놓은 일이 없는데, 32년간 지배인사업을 하면서 매달 매분기 계획수행한것밖에 없다.

계획수행, 그것은 공장을 책임진 일군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의무이다.

그가 토론을 마쳤을 때 참가자들은 우렁찬 박수를 보내었다. 오택석은 그 박수소리가 나이많은 사람의 토론에 대한 청중의 동정이라고 생각했다.

그 누가 말한것처럼 인생은 순간처럼 짧다더니 일할새 없이 빨리도 지나갔다는 느낌이 들었다.

인생의 먼 앞날처럼 생각되던 한창나이가 엇그제 같다. 그런데 벌써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려안았다.

일을 하느라고 뛰어다니는 사이에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가버린것이다.

다시 생을 시작한다면 종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겠는데 ...

별안간 장내가 조용해지는바람에 그는 생각에서 깨여났다.

영웅칭호수여 식이 끝난것이다. 사회자가 연단에 나섰다. 그는 이제 다음급의 수훈자명단을 부를것이였다.

그런데 이때 주석단뒤로 준수한 용모를 갖춘 한 일군이 흰 종이장을 정중히 받쳐들고 나와 사회자에게 넘겨주는것이였다.

그것을 받쳐든 사회자가 격동된 자세로 마이크 앞에 섰다.

《대회참가자들에게 한가지 알리겠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울리는 사회자의 말이 감격에 젖어 떨고있었다.

다가올 격동의 파도를 예고하는듯한 그 음성이 대회장의 정적을 한층 더 깊게 만들었다. ,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자가 여기까지 말했을때 장내는 숨소리마저 멎은듯했다.

(아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택석은 온몸에 줄달음치는 흥분의 선물을 느끼며 긴장해졌다.

사회자의 말이 계속 울렸다.

《...이번에 진행된 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사업을

료해하시고, 남포화학공장 지배인 오택석동무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배려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순간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오택석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만세소리는 아득히 먼곳에서 울려오는것 같았다, .

(내가 지금 꿈을 꾸는것일까. 아니야. 잘못 들은것이 분명해. 다른 사람의 이름이다.)

오택석은 이렇게 단정했다. 영광의 그 위치에 내가 어떻게 감히...

세찬 격랑의 파도가 장대를 휩쓰는 가운데 오택석은 자기 가슴에 영웅메달이 빛나게 되었을 때에 감격에 넘쳐 소리없이 울었다.

(아, 장군님께서 평범히 걸어온 내 인생의 자욱자욱을 것처럼 세심히 살펴주시고 이처럼 값높이 내세워주시다니 ... 농사군의 자식이 영웅으로...)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큰절을 올렸다.

형언할수 없는 걱정과 감긴 그는 언제 좌석에 들

어섰는지 수훈식이 언제 끝난지도 알지 못했다.

기자들이 그를 에워쌌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와 축하의 인사를 했다. 이번 대회의 대표로 함께 온 장공장 지배인이 눈시울을 습벽이며 그의 어깨를 으스러지게 잡았다.

《백날을 하루처럼 살아온 자네야말로 영웅이지. 우리 장군님께서 높이 내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시는 자네의 인생이야말로 우리모두를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오직 중성의 한길로 굳건히 걸어나가도록 고무해주고있지 않나.》

오택석의 눈앞에는 공장과 함께 살아온 노동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현심아, 우리 장군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이나 변심없이 당을 받들어 성실히 일하면 다 영웅으로 내세워주신단다. 그래서 영웅이 많은 내나라, 내조국이 아니냐, 영웅의 시대로 빛나는 김정일시대를 빛내이기 위해 우리 더 힘껏 일하자.)

## 나의 하루, 나의 한생

오재신

때로 내  
지나온 나날 그 회억속에  
펼쳐보노라  
나의 당생활이 새겨진  
보물진 수첩들을

그러면 내 풀머슴살이  
장알박힌 손에 먹물을 묻히며  
한자한자 입당청원서를 쓰던  
그 시절이  
그 글발우에 우렁이 떠오르고

무명고지 바위우에  
보병삽날을 갈며  
당세포회에서 다지던 그 맹세  
그 글발우에 총알처럼 일어서고

그러면 아, 그러면  
첫 불을 지핀 용선로결에  
잠자리를 옮기고  
쇠물로 당의 결정을 받들어가던  
그날의 그 불같은 숨결이  
이 가슴에 뜨거워라

아, 어제런듯  
나의 한생이  
위대한 당의 품에 안겨  
세상 더없는 행복  
더없는 영광의 절정으로 이어졌으니  
추억속에 돌이켜보는 그 하루하루에  
젖어있구나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행복  
젖어있구나  
나의 힘 나의 열정 나의 희망

정녕 나처럼 이렇게  
크나큰 자랑을 지닌  
그 어떤 다른 누구를 내 알것이나  
내 걸어온 그 나날에 비길  
그 어떤 좋은 시절을 알것이나

아, 우리 당을 받들어  
변함없이 고동치는 당원의 심장  
그 맥박과 숨결로 이어진  
나의 하루하루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이 소중한것  
내 한생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성실한 당원의 한생이 아닌가

## 군민일치사상을 참신하게 형상한 감동깊은 시초

김의준

우리 당의 독창적인 군민일치사상을 정서깊이 노래한 혁명적시가들은 오늘 전장에 울리는 돌격나팔소리와도 같이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에 펼쳐 나선 군인들과 인민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예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어떤 시는 우리 시대 군민의 숭고한 력사적사명감과 자각을 풍만한 정서와 호방한 기상으로 노래하여 사람들의 심장을 뚫게 하고있다. 또 어떤 시는 혁명적군인정신의 불패성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탐구와 진실한 예술적해명으로 독자들을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시는 눈물겹게 오가는 군대와 인민의 정을 아름답고 감각적인 언어표현, 류창하고 우아하게 파동치는 음악성으로 보여주어 군민을 매혹시키고있다. 그리고 어떤 시는 강성대국건설예로의 열렬한 호소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하여 군민의 가슴에 역센 담력과 혁명적량만을 안겨준다.

시초 《군민의 노래》(조선문학 주체87(1998)년 11호)는 우리 시대의 괄목할 풍모인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세계, 농업전선을 함께 지켜가는 군민의 일치한 사상과 감정, 의지와 숨결을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철학성있게 정서깊이 노래하였다.

시초 《군민의 노래》는 떨기떨기 피어난 가지각색 아름다운 꽃송이들로 이루어진 한묶음의 소담스런 꽃다발인양 하나의 사상주제적지향속에 7편의 시들로 엮여져있다. 여기에는 군민일치의 향기가 넘쳐나는 참신하고 풍만한 서정세계가 펼쳐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문학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군민일치사상이 꽃피어나고있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며 군민의 미감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형상하는것은 오늘 우리 시문학이 지닌 숭고한 사명중의 하나이다.

시초 《군민의 노래》는 시인들이 시대의 요구를 안고 모지름을 쓰면서 사색과 열정으로 무르익힌 열매이다.

군대와 인민이 어깨결고 나라의 쌀독을 마련해가는 오늘의 벽찬 현실앞에서 백발의 로시인도 흥안의 젊은 시인도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원천과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절감하고 군민일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시에 담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이

것으로 하여 시초는 최후승리를 위한 사회주의강행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가슴에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락관, 불굴의 의지를 심어주고있다.

시초 《군민의 노래》는 무엇보다도 군민일치가 지는 시대적의의에 대한 새로운 형상적탐구를 통하여 우리 시대 군민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를 격동적으로 노래함으로써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시초에는 생활속에서 예민하게 감수한 군민일치의 시대적의의에 대한 참신하고 무게있는 철학적사색이 서정의 밑바닥에 웅심깊게 깔려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농사과정에 맺어진 군대와 인민의 유정한 관계를 시화한 주제작품들을 적지않게 대하였다. 이 작품들에는 주로 친혈육의 정으로 군민이 서로 위해주며 아껴주고 도와주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가 감동깊이 노래되였다. 그런데 이번 시초에서는 이에 머물지 않고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군민일치의 의미를 새롭게 탐구하였으며 그것을 풍만한 서정으로 다양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오늘 들끓는 농장벌마다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농장에 달려온 인민군군인들이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충성의 땀을 바쳐가고있다. 그들모두의 가슴마다에는 그 누가 주인이고 지원자이기전에 또 누가 군인이고 농장원이기전에 모두가 농업전선의 한초소에서 내 조국을 지켜가는 전투원들이라는 자각, 총대와 함께 쌀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가는 강행군대오의 결사대원들이라는 각오가 세차게 소용돌이치고있다.

하기에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사상과 의지, 감정과 정서에서 일치하고 일본새와 생활기풍에서도 한 모습을 이루고있다. 바로 여기에 군민일치의 참모습이 있는것이며 그 위력이 있는것이다.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군민일치가 있어 우리는 최후승리의 기발을 온 세상이 휘날릴것이며 이 땅우에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삶의 터전을 훌륭히 꾸려나갈것이다.

이런 사상적주장이 시초의 구절마다 스며배여있으며 그것은 참신한 서정적화폭을 통하여 감명깊게 흘러나오고있다.

시초의 첫머리에 자리잡은 시 《전선》(황승명)은 오곡이 자라는 푸른 전야에 대한 정서적체험을 통하여 오늘의 군민일치에 담겨져있는 시대적의의

를 예술적형상으로 밝혀내고있다.

무연한 벌로 뻗어간 동쪽에  
민들레 곱게 피어 반기고  
맑은 하늘에 종다리 우짖는  
여기를 우리는 전선이라 부른다

그것은 무엇때문인가. 총잡은 군대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고 농장벌로 달려  
왔다. 원수와 대결한 준엄한 나날에 초소의 군인들이  
농사를 지으려 초소를 떠나온 엄연한 현실앞에  
서 쌀의 무게를 다시금 깨달았기에 여기를 《전  
선》이라 부르는것인가. 물론 그렇다. 그러나 결코  
그때문만은 아니다. 시는 한결음 더 내짚어 《전  
선》의 의미를 새롭게 밝히고있다.

아, 논머리의 야전전화가  
최고사령부에 이어지고  
농사일의 하루하루가  
전투일보로  
위대한 령장에게 보고되는 여기

하기에 병사들은 낱알 가꾸는 일을 단순한 알곡  
증산을 위한 생산노동으로가 아니라 풍년길을 열어  
전진하는 조국앞에 최후승리의 큰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결사전으로 여기는것이다. 그래서 총을 쏜 손  
에 농쟁기를 틀어쥐고 사래긴 이랑을 가꾸며 피쳐  
럼 진한 땀을 아낌없이 흘리는것이다. 이때문에 시  
는 농장벌을 《여기는 우리의 전장 결전의 1211고  
지여라》고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시는 끝났으나 가슴속충동은 끝없이 물결쳐간다.  
이 결전의 1211고지를 함께 지켜선 군대와 인민이  
있어 우리의 군민일치는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  
이 사회주의를 펼치는것이라고 한 시의 주장은 강  
한 정서를 타고 울리면서 더 큰 공감대를 자아낸다.

시 《우리의 노래는 군민의 노래》(김명철)는 농  
장벌에 울려퍼지는 군민의 노래에 대한 열렬한 공  
정과 격찬을 진실하게 노래하였다.

동트는 새벽 이 벌을 찾아주셨던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어린 발자욱은 지금도 농장벌 곳곳에 사랑의  
글발인양 새겨져있다. 수령님의 그 자욱을 새겨 안  
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시는 날엔 지금 부  
르는 군민의 노래를 풍년가로 펼쳐드리겠다는 소박  
한 감정은 얼마나 진실하고 뜨거운가.

시에서 군민이 가꾼 포전의 풍요한 설레임소리를  
위대한 장군님께 울리는 군민의 송가로 형상하면서  
이 송가를 경애하는 그이께서 정답게 들어주시리라  
고 토로한것은 장군님과 군민사이에 맺어진 혈연관  
계를 감각적으로 시화한것으로서 깊은 감흥을 자아  
내고있다.

군민을 손잡아 이끌어  
한품에 안아주시는 우리의 장군님  
그이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여 군민이 부르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노래!

계절따라 흘러갈 노래가 아니여라  
영원한 이 땅우에 길이 새겨져  
영원한 땅과 함께 대대로 부르며 살  
우리의 진군가여  
시대의 메아리여

보는바와 같이 이 시의 서정은 크나큰 공감대를 불  
러일으킨다. 군민의 노래는 영원히 이 땅우에 울려  
퍼질것 이라는 서정적주인공의 토로는 승리자의 자  
부심과 배심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감정인것이다.  
앞내벌에 모내기를 끝내고 달빛 밝은 이밤 푸른  
달빛에 온몸을 물들이며 나란히 동쪽길을 걸어가는  
병사와 《나》는 어이하여 잠 못 이루고 끝없이 걸  
음 옮기는것인가.

어버이장군님이 사무치게 그리워서이다.

시 《여름밤의 서정》(김정철)은 감정과 정서도  
한껏으로 흐르는 군민의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사색  
깊이 펼쳐보이고있다.

금나락 설레이는 가을을 불러 함께 씨레치고 모  
를 내며 두령과 두령을 참호처럼 넘었고 그래서 마  
침내 풍년의 돌과구를 열어놓은 이밤, 병사와 서정  
적주인공의 가슴에 더더욱 그리워지는 어버이장군  
님의 모습.

시는 못견디게 간절한 그리움에 잠겨 장군님께로  
향해지는 군민의 마음을 꾸밈없이 펼쳐보이고있다.

그 어느 전선길에 제실가 우리 장군님  
하늘가에 드리운 아득한 령길  
내리는 밤안개는 어떻게 헤치실가  
우리 마음 그 안개 헤쳐도 보고  
가다가다 푸른 강 막아서면  
우리 마음 다리가 되어 그 길을 받들고

날과 달을 이으시는 전선길의 차창가에  
이 푸른 벌을 펼쳐가고싶어  
한순간이라도 즐거움이 되시라  
오곡이 우썩우썩 마디를 뽑는  
들의 저 설레임소리를 날라가고싶어...

보는것처럼 시에는 시대의 주도적감정이 진실하  
게 반영되어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경애하는 장  
군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장군님을 하늘처  
럼 믿고 따르며 끝없이 흠모하고 숭배하고있다.

기쁜 일이 생겨도 제일먼저 장군님께 아뢰이고싶  
어하고 피로운 일이 있어도 장군님앞에 털어놓고싶



어하는것이 우리 군민의 심정인것이다.

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모 내기를 끝낸것처럼 변함없는 그리움을 안고 풍성한 가을을 기어이 마련하리라는 맹세의 감정으로 승화 시킴으로써 작품의 정서적감화력을 더욱 높이고있다.

시초 《군민의 노래》는 또한 오늘의 시대정서의 하나인 혁명적랑만성을 줄기차고 풍부히 구현함으로써 사상정서적감화력과 교양적역할을 높이고있다.

혁명적랑만성을 시가문학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우리 인민과 군대는 적들의 전례없는 고립압살책동을 혁명적 신념과 락관으로 짓부시며 비판과 동요를 모르고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휘날리며 군세게 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였기에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 배심을 가지고 부닥치는 난관을 웃으며 이겨나가는 불굴의 기개, 혁명적락관의 정신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떨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나 새겨져있는 힘찬 글발은 혁명적랑만에 충만된 우리 군민의 기상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것 이다.

시초 《군민의 노래》에는 구체적인 생활계기를 포착하고 그를 통해 서정을 퍼내는 시들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일수록 혁명적랑만을 두드러지게 구현하고있다.

시 《병사의 목표에 이삭이 있다》(고남철)는 농사일을 돕는 병사의 생활가운데서 목표를 닦는 모습에 형상의 초점을 맞추고 랑만적정서를 질게 퍼나가고있다.

밭일 설참에 병사는 땀젖은 군모를 벗어들고 목표를 닦고있다. 그 목표의 붉은 별 두리에 벼이삭이 있다. 강행군의 어려운 나날에 한점의 그늘도없이 따듯한 미소를 지으며 목표에 티가 앓을세라 눈부시게 닦는 애젊은 병사의 모습은 얼마나 랑만에 찬 모습인가.

말없이 목표를 닦으며 병사는 벼이삭에 에워싸여있는 붉은별의 위치에 대하여, 붉은별의 빛발을 받으며 무르익는 이삭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였으리라.

병사가 말없이 목표를 닦고있지만 우리에게는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순결한 조국애, 인민애가 우뢰처럼 들려온다.

오, 군모에 빛나는 황금이삭이여  
병사는 그 이삭을  
땀으로 빚어야 한다면 땀으로  
피로 익혀야 한다면 피로 익혀  
대지에 끝없이 펼쳐가나니

그대는 내 조국의 수호자  
이 땅에 부강번영을 안아오는  
락원의 창조자  
그 누가 병사처럼  
이 땅을 사랑하랴

시에에는 병사의 가슴속에 사뭇치는 조국애와 함께 미래에 대한 끝없는 락관이 담겨져있어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준다.

시 《시내가에서》(리명옥)는 농장의 두 처녀가 소곤소곤 속삭이는 이야기형식을 통하여 인민군병사들이 인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바쳐온 헌신적위훈을 밝고 랑만적인 정서로 노래하였다.

이 시에는 현란한 수사학적표현이나 요란한 정치적표현을 나타내는 시어는 없다. 다만 우리가 매일 같이 보고 듣고 느끼는 군인들의 로력적위훈에 대한 속삭임이 있을뿐이다.

이 소박한 형상이 깊은 감동을 자아낼수 있는것은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로 되고있는 인민군인들의 로력적위훈에 대한 감동의 세계가 꾸밈없이 생활적형상을 통해 진실하고 깊이있게 노래되었기때문이다.

시에에는 저녁노을 곱게 물든 맑은 시내가에서 도란도란 속삭이는 처녀들의 목소리가 생활의 랑만적정서를 타고 흐른다.

-오늘도 밭이랑 돌을 타고 김을 매던  
아니 글썽 그 병사가 중대에선 막내래-

...

-정말 대단해  
그 병사가 안변의 백리물길도 열었대-

...

-그 병사들이 구월산의 절벽에 글발을 새겼대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해 1997》 이라고...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군대의 위용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을 맡아 많은 피와 땀을 바쳐온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위훈이 처녀들의 짙막한 소곤거림속에 함축되어 찬양되고있다.

그 속삭임에서 우리는 처녀들의 마음속 금선이 울리는 소곤거림도 엿들을수 있다. 즉 영웅병사들을 소리쳐 자랑하고싶은 마음, 더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주고싶은 심정, 창창한 래일에 대한 확신등을 들을수 있다.

처녀들이 속삭이는 마지막말을 들어보자.

-우리의 장군님이 아신대  
그 병사들이 우리 농장에 왔다누나!...

정서적으로 채색된 이 한마디에 농사일을 맡아

나선 인민군군인들의 지위가 무게있게 담겨져있다.  
그래서 우리의 군민일치는 강한것이다.

시 《한밤의 소나기》(한원회)도 군민일치의 정  
을 낭만적색채가 짙게 펼쳐고있다.

논물이 넘쳐날가봐 걱정되어 종을 쳐서 농장원들  
을 깨우려다가 마을건너 병사들도 깨여날가 넘려되  
여 조용조용 집집의 문을 두드리 깨웠다는 분조장  
처녀에 대한 시적형상, 어린 모들이 비물에 떠내려  
갈가봐 걱정되어 중대비상소집나팔을 불려다가 농  
장원들이 깨여날가 저어하며 조용조용 기상구령을  
내렸다는 중대장에 대한 시적형상은 군민일치세계  
가 생활적으로 정답게 안겨오는 형상이다.

소나기 소나기 한밤의 소나기여  
이런날 이런 밤이

백날이던가 천날이던가  
아, 푸른 들 푸른 대지를 가꾸는  
군민의 마음속에 해가 솟는다  
내 조국의 아침이 밝는다

사람들은 일치한 보폭으로 역세계 활보해가는 군  
민의 앞길에 최후승리의 아침이 찬란히 밝아오리라  
는 확신을 받아안게 된다.

시초 《군민의 노래》는 우리 당의 군민일치사상  
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탐구와 사색, 혁명적량만의  
정서를 진실하게 구현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금  
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우리 시인들은 보다 더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앞  
으로 더 훌륭한 우리 시대의 《군민의 노래》를 창  
작하여야 할것이다.

## 량심앞에 성실하리

박근원

나로 말하면  
머리에 흰서리 내리도록  
크게 해놓은 일 없어  
거리에 나서면  
별로 아내는 없는  
너무도 평범한 사람

내 아직은  
삶의 어느 한토막  
빛내인적 없어도  
나는 바라노라  
나를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앞에  
참되게 살기를

량심으로 말하노라  
내 여직껏 그 누구에게  
돌보이진 못했어도  
육체적생의 향락은  
언제한번 바란적 없었다고

내 비록 투사는 못되었어도  
자신을 알고 인간을 알면서  
량심으로 선언했더라  
사람됨에서 벗어난 행위와는  
언제건 어디서건 자비가 없다고

그날부터 내 심장에 새겼노라  
진달과 게으름  
안일과 라태는  
나에게 있을 자리가 없다고

그날부터 이 심장에 선포했노라  
속임과 거짓은 가장 너절한것  
배신과 변절은 가장 비렬한것  
수령에 대한 배은망덕은  
인간이기를 그만둔것이라고

내 만약  
격랑 세찬 바다복판  
쪽배우에 홀로 있대도  
시뻘꺾게 단 철관우에  
맨발로 선대도  
생을 다할 때까지  
순간의 드림도 없이 성실하리  
순결한 량심앞에

아니 이 한생 끝난대도  
나는 후세에 남기리  
내 심장속에 고여있는  
가장 귀중한 나의것  
티없이 깨끗한 량심을!

## 고마움에 대한 생각

한영애

이해의 마지막명절인 헌법절을 하루 앞두고 나는 주유치원에 다니는 딸애를 데리러 창광유치원으로 갔다.

따뜻한 연미색으로 단장하고 포근한 어머니품마냥 두팔 벌리고 서있는 아담하고 깨끗한 유치원.

이 땅 그 어디에 가나 그러하듯이 여기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꽃동산이 꾸려져있다.

흰눈이 소복이 덮인 마당에서는 울긋불긋한 솜옷을 입은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뛰어놀고있다.

나는 풍금소리에 맞추어 부르는 아이들의 맑고 청정한 노래소리를 들으며 충격을 올랐다.

《낮은 2반》이라고 쓴 교양실문앞에 이르니 기다렸던듯 나의 딸애가 달려나오며 품에 담쪽 안겨 들었다. 나는 그간 더 보동보동해진듯싶은 딸애를 품에 안고 선생님에게 수고했다고 인사했다. 선생님은 주간 잠도 잘 자고 놀기도 잘했다면서, 그래서 빨간별을 2개나 탔다고 칭찬해주는것이였다.

그리고는 28일 아침에 이해의 마지막검진이 있으니 늦지 말고 와달라는것이였다.

나는 의아하여 검진이야 요전번에도 했는데 무슨 검진을 또 하는가고 물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웃으면서 《아이참 영아 엄마두, <어린이보육교양법>에 따라 분기별, 월별, 주별 검진하게 되어있다는 걸 모르세요?》 하고 말해주었다.

《어린이 보육교양법!》

그런 법도 있었던가. 가슴이 몽클 젖어든다. 두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로 된 나도 아직 나라에 아이들을 위한 보육교양법이 있다는것을 모르고있지 않았던가. 하긴 출생하기전부터 정기적인 검진을 받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온갖 혜택을 다 받아온 우리 아이들이 아닌가.

세상에는 수많은 법이 있고 그 법을 지켜가는 인간들이 있을진대 정녕 우리처럼 고마운 제도와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법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될가 하는 생각이 새삼스레 갈마든다.

후대들의 장래를 두고 지구상의 곳곳에서 개탄과 울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래일을 걱정하면서도 학

교, 유치원은 교사하고 초보적인 생활조건도 마련 해주지 않아 철없는 아이들이 거리를 헤매고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물론 11년제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을 다 받으며 자라난 나도 장학금은 알지만 학비가 무엇인지, 세금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오지 않았던가.

나도 그랬거니와 우리 아이들도 맛있는 음식중에서도 또 골라먹고 제일 좋고 훌륭한것은 응당 《나의것》이려니 하고 생각하고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수령님을 모시지 못하였더라면 우리 장군님을 모시지 못하였더라면 이런 행복에 대하여 생각이나 할수 있었을것인가.

전후 재더미속에서도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아야 한다시며 다른 나라에서는 왕들만이 가질수 있는 행복의 요람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고 또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아이들에게 안겨주시며 해빛같이 환한 웃음을 지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복을 받은것이 어찌 우리 아이들뿐이랴!

이 땅에 생을 둔 우리모두를 다 한품에 안으시고 것처럼 귀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이다.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사상도 사람중심의 사상, 정치를 펴시여도 인덕정치를 해오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고 우리 장군님이시다.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노동자들은 세상에서 제일로 귀중하다고 하시고 지식인들을 만나시여서는 당은 오랜 지식인들을 항상 귀중히 여긴다고 우리 수령님 뜨겁게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최전연구분대를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서 병사들의 솜옷의 두께도 가늠해보시며 숨을 좀더 두툼하게 두어 만들어주도록 하시고 녀성해안포중대를 찾으시여서는 바다바람에 튼 녀전사들의 얼굴이 마음에 걸리시여 그길로 사랑의 약크림을 보내주시는 전설같은 사랑도 안겨주시였다.

정녕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그 품에 안긴 사람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그 수를 헤아

릴수 없어도 그 하나 하나는 다 친자식처럼 귀중하게 품어주고 내세워주고싶으신 사람들이었다.

이런 인간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지니시였기에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인민보건법》, 《환경보호법》, 《어린이보육교양법》, 노동계급을 위해서는 《사회주의노동법》 등 수많은 인민적인 법들을 제정하도록 하시고 무상치료, 무료교육, 세금제도 철폐, 유급휴가제, 사회보장제... 등을 나라의 법속에 포함시켜 인민들이 향유하도록 하시지 않았는가.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모두가 누구나 가슴펴고 땀땀이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었다.

술한 법들이 있으나 그 법들이 인간의 손발을 얹어매고 그것으로 그들의 자주성을 억누르니 말못할 고통속에서 걸음걸음 법적제재를 받으며 살고있는 자본주의나라 인민들과 인간중시의 참다운 인민의 법의 보호속에 살고있는 우리와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모두가 나라의 주인, 법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인민!

정녕 이것은 나라마다 차례지는 행운도 아니요 사람마다 누리는 복도 아니다. 오직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만이 받아안은 행운이며 만복이다.

귀여운 딸애의 손목을 잡고 총계를 내려 유치원 정문을 나서니 저 멀리 당중앙청사가 숨엄히 안겨

온다.

저녁노을이 비낀 당중앙청사를 우러르노라니 오늘도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만년을 단신으로 헤쳐나가시며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로고가 비낀 우리 조국을 만대에 길이 빛내실 확고한 의지를 안으시고 불철주야의 낮과 밤을 보내고계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가슴 뭉클 젖어올랐다.

올해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김일성**민족의 후손들인 우리모두에게 끝없는 만복을 주시려, 우리조국을 영원한 **김일성**조국으로 빛내주시려 우리의 법을 새롭게 **김일성**헌법으로 개정, 명명하도록 해주시였다.

물과 공기가 없으면 한시도 살수 없으면서도 그 고마움을 모르듯 그야말로 가장 인민적인 법의 보호속에 살면서도 그 혜택을 응당한것으로만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자신들이 아닌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철이 든다더니 두 아이의 어머니로 된 오늘까지도 너무나 많은것을 모르며 살아온 자신이 민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나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다시금 새겨안으며 세상에 단 하나인 사회주의 내 조국과 **김일성**헌법을 목숨바쳐 지켜갈 생각으로 가슴불태우며 딸애와 함께 발걸음을 다그쳤다.

## 명언해설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애국심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데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애국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애국심에는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이는 투쟁도 원수들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위하는 투쟁도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실하게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다 애국심의 표현이며 애국적인 행동으로 된다, 그가운데서 가장 참된 애국은 조국이 겪고있는

불행, 민족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을 가셔내는 투쟁에 한몸 서슴없이 바치는것이다.

민족분렬은 우리 인민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민족의 자주적발전의 기본장애물이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조국의 통일번영과 인민의 무궁한 행복을 이룩할수 없다. 그러므로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특색있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함부로 건드리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간섭과 전횡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여야만 할 것이다.》

김정일

## 전쟁로병의 웨침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을 받아안은 나의 가슴은 지금 치솟는 격분과 증오, 복수심으로 활화산마냥 끓어번지고있다.

피비린내나는 살육으로 인디안들의 무덤우에 성조기를 띄운 그 시각부터 침략과 략탈의 피로 얼룩진 력사만을 기록해온 승냥이 미제, 그 짐승의 무리들이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주체의 강국으로 위용을 떨치고있는 우리 나라를 먹어보겠다고 감히 침략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까마귀가 꿩을 잡겠다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나는 벌써 홍안의 10대의 나이에 미국놈들과 맞서보았다. 총구앞에서는 제 오금조차 가누지 못하고 벌벌 떨며 도망칠 구멍부터 찾는 놈들, 그런놈들이 바로 미국놈들이다. 오죽하면 미국놈들의 다리는 도망치기 위해 생겼고 팔은 항복하기 위해 붙어있다는 말까지 생겼겠는가.

그때 미제는 창건되지 두해밖에 안되는 청소환 우리 공화국을 먹어보겠다고 열다섯개 추종국가 군대까지 근 200만의 무력과 현대적인 전쟁장비를 들이밀었고 이른바 《백전로장》이라 불리우는 맥아더, 릿지웨이, 클라크, 워커, 팬플리트 등 온갖 어중이떠중이 《장군》들을 다 내몰았지만 **김일성** 장군님의 지략과 주체적인 전법에 의해,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영웅적으로 떨쳐나선 우리인민의 힘에 의해 참패하고말았다.

지금으로부터 근 반세기전인 50년대에 이처럼 녹아났거늘 하물며 지금에 와서 우리와 맞서보겠더니 정말 어리석은 망상이다.

전후에 우리 인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체의 힘으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 그 어떤 대적이 덤벼들어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단단의 준비를 갖추었으며 우리 인민군대는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다. 이 행성우에는 우리의 타격을 피해서 살아남을 자리가 없다. 미제는 불피고 일찌감치 다른 행성에 피할 자리를 마련해두지 못한것을 후회하게 될것이다.

나는 미국놈들이 우리에게 어찌고저찌고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지난 전쟁때 그놈들을 씨종자도 남지 않게 소멸해치우지 못한것을 후회해왔다. 만일 미제가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는 다시 그런 후회든 하지 않게 전생의 화근인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을 이 행성우에서 깨끗이 없애버릴것이다.

우리에게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김정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있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무적의 인민군대와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된 힘이 있다.

**김정일** 장군님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내 비록 지금은 로병으로 불리우고있지만 이 심장의 피는 총쥐고 나섰던 그때의 그 열도로 끓고있다.

**김정일** 장군님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용약 총을 틀어잡고 조국보위의 성전에 남먼저 달려나갈것이다.

소설가 김익철

## 철천지원수들은 종말을 고하고야말것이다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이 우리를 압살할 야심과 《능력》에 대하여 공공연히 떠벌이고 제2의 조선전쟁계획인 《5027작전계획》이라는것을 공개함으로써 미국의 침략적본성과 속심을 세계만방에 드러냈다.

미제의 《5027작전계획》, 그것은 우리의 강토를 호시탐탐 노려보는 원수들이 시종일관 시도해온 야욕의 일환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것도 아니며 놀라운것도 아니다.

백년속적인 미제침략자들과 반드시 결산하리라는 우리의 배심에는 흔들림이 없으며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로 온몸의 피를 끓이는 우리 인민이다.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은 우리 인민은 《불패》와 《최강》의 력사를 읊조리던 미제를 처음으로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한 위대한 인민이다.

20세기중년대 미제침략자들이 제2차세계대전때의 근 3배나 되는 무력과 15개의 추종국까지 동원하여 우리에게 덤벼들었을 때 창건되지 2년밖에 안



되는 우리 공화국의 무력상태와 국방공업은 미국과 대비할 여지가 없으니만큼 미약했었다. 하여 전쟁에 참가한 병사 한명당 총 한자루도 다 차례지지 못한 형편이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받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힘, 결사옹위정신이 있었기에 침략자무리를 격멸하고 세계를 경탄케 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조국은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철통같이 뭉쳐있으며 지구상의 그 어디에 있는 우리의 원썩라면 모조리 소멸할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있는 군사강국이다.

하기에 미제가 또다시 전쟁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것이며 영원히 멸망시키교야 말것이다.

우리 인민은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의 전사답게 한몸이 폭탄이 되어 원썩격멸의 성전에 떨쳐나설것이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꾸려놓은 모든 군력을 총동원하여 원썩들이 있는 모든곳에 불벼락을 들씌웁으로써 놈들에게 최후종말을 안길것이다.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땅, 도교를 비롯한 일본땅 등 적들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것이다.

그렇다! 20세기중년대에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은 우리 인민은 20세기말년대에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미제를 비롯한 원썩들에게 영원한 종말을 안기교야말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한손에 총을, 다른 손에 펜을 틀어 잡고 원썩격멸의 성전에 삶을 바칠것이다.

소설가 김영근

## 우리는 방패가 아니다

정성환

흉벽을 두드리며  
심장이 운다  
총대를 틀어쥔 주먹이 편다  
전쟁의 불구름 몰아오는 미제를  
우리 어찌 그냥둘수 있으랴  
우리 어찌 그 추종자들을 살려줄수 있으랴

우리는 이 땅에 떨어지는 불을  
막아만내는 방어자가 아니다  
피물은 칼끝에 한몸 내대는  
방패가 아니다

전호가의 잔디를 어루만지던 바람조차  
분노를 안고 술렁거리며  
군복자락을 끄당기는 이 시각  
무엇을 더 참으랴  
총천 병사가

흙 한줌 그러워면  
원썩의 파편이 흙보다 더 많은 땅에서  
뒤집어진 산천을 바로 잡으며  
상처입은 마음들을 싸매며  
뼈와 살에 복수를 재워온 우리  
피가 타는 분노에 가슴 터진다

참을수 없어 더는 참을수가 없어  
폭탄같은 그 가슴들을 안고  
원썩을 일격에 소멸할  
분노한 그 혁명무력이 지축을 울린다

철갑의 강쇠가 운다  
그것은 흠발을 거머진 무한궤도가  
악을 먹는 소리이다  
그것은 미국을 없애버릴 포탄이  
피할수 없는 목표를 치려  
짹짹 장탄되는 소리이다

들으라 원썩들아  
이 소리를  
우리는 너희들을 이 땅에서 막아내는  
방패가 아니다

우리는 **김정일**장군님이 키워내신  
무적필승의 공격수  
너 죽고 나 사는 불사의 군대  
한많은 민족의 복수자

우리는 이제껏 겪은 아픔의 천만배를 더하여  
원한에 찬 복수의 불길로써  
미국을 화형할테다  
멀진 가깝진 그 추종자들을  
씨도 없이 단매에 섬멸할테다  
무주고혼이 되게 하늘로 날려버릴테다

하여 우리는  
다시는 놓치지 않을 기회를 기다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주체조선의 성스러운 존엄을 위하여!  
이 행성의 평화와 정의의 위하여!

## 조국의 부름소리 들으며

최성진

책상을 마주하고 원고지우에 펜을 달리거나 창작적사색의 나라를 펼쳐가느라 땀이 뜨거운 목소리가 귀전을 울리는 듯하다. 사회주의의 원수들이 우리의 요람을 짓밟으려 한다고, 판가리결전에 나설 때가 왔다고.

누구의 목소리인가? 아득히 흘러간 옛시절, 인민학교 교단에서 나에게 우리 글을 처음으로 배워주던 너선생님의 정다운 목소리인가? 아니면 나의 중학교 최우등졸업증을 받아안고 그리고 대견해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나의 입당보증인인, 지금은 대건설장의 한다하는 직장장으로 일하는 옛 분대장의 목소리인가? 귀중하고 잊지 못할 그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조국의 목소리이다.

그렇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있다. 그 목소리가 이 아들을 부르르고있다. 아들아, 지금도 위장망걸려있는 풀색병사배낭 찾아메고 우리 삶의 전부인 사회주의를 지키러 가자! 전선행 군용렬차가 저기 기다리고있다. 어서빨리 오르라는 지휘관의 구령소리가 울려오고있다.

준엄한 시각이 왔다.

원수미제가 이 땅에 대고 전쟁의 포문을 열려고하고있다. 아니, 전쟁의 전주곡은 이미 울리었다. 미제의 침략전쟁직전계획인 《5027》! 그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나는 더 펜을 달릴수가 없다. 피가 끓어올라 잠시 펜을 놓고 창문가로 다간다. 창가림을 제끼고 창문을 연다.

푸른 하늘이 보인다. 가없이 넓은 조국의 푸른하늘! 매일 보아오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이제는 무심히 보게 되지 않는다. 침략의 검은 구름이 저푸른 하늘을 뒤덮으려고 하지 않는가. 조국의 하늘이 저절로 맑고 푸른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생각이 머리를 친다. 렬사들이 흘린 피로 지켜진 푸른 하늘이고 우리 후예들이 또한 피로써 지킬 때 영원토록 푸르려있는 조국의 하늘이 아닌가!

심장의 박동은 높아진다.

문득 오래전의 일이 떠오른다.

다 자라 군복을 입으려 고향을 떠나던 날, 작별의 역두에서 이웃집 형님인 나의 작업반장이 심중의 말을 하던 그 목소리 《우린 그냥 제대되었지만 자네는 조국을 통일하고 오게나!》 해별에 탄 꺼무스

레한 얼굴에는 랑만의 웃음이 병곳이 실리였지만 그 목소리는 갈려있었다.

나는 그 부탁을 안고 초소로 달려나갔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채 복무를 마치고 제대되었다.

그렇다, 병사는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지금도 나의 옛중대 무기고에는 나의 총번호가 새겨져있을것이다.

오늘 조국은 바로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옛병사를 전호로 부르르고있는것이다. 나의 작업반장세대가 다하지 못한, 내 또한 다하지 못했던 임무를 이제는 수행해야 할 때가 왔다.

우렁찬 군기소리가 돌려온다. 열려진 창문이 드르렁 울린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방송차! 꽃물결이 흐르던 정다운 거리로는 보위색옷에 프랑카드를 든 청소년학생들의 대오가 물결쳐가고있다.

텔레비존을 틀어놓으면 아무때건 쇠물폭포 내리는 용광로앞에서 멸적의 맹세를 토하는 로동계급을, 생산을 다그쳐가는 결사옹위, 충효일심의 응결체를 볼수 있다.

온 나라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의지로 일떠섰다. 미제침략자들에게 최후멸망의 선고를 내릴때가 왔다. 원수들이 우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좋다! 해볼테면 해보자!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슴에 맺혀있는 원한의 응어리를 풀고 조국해방의 위업을 완성한, 다시는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이다. 이 행성 어디에도 원수들이 분노한 조선의 보복을 피해있을 자리는 없다..전쟁의 불집이 터진다면 이번에는 온갖 악덕과 불의의 본산 미국자체를 없애버릴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의지이다. 풀뿌리를 씹어야 하는 《고난의 행군》길을 이어오면서도 사회주의 최후승리를 확신하고 강성대국건설의 포성을 울린 우리인민이 다지는 결사의 맹세이다.

이 준엄하고 격동적인 시각에 나는 나를 부르는 조국의 목소리를 듣고있는것이다. 혁명의 붓대를 더 억세게 틀어잡고 병사들의 총창에 멸적의 우뢰를 불러오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글을 더 많이 쓰라! 아직도 벽장에 걸려있는 군복에 병사연장을 다시 달고 돌격선의 참호에 들어서라! 조국은 이렇게 부르르고있다.

나는 다시 원고지앞으로 돌아간다. 열어놓은 창문너머 지척에서 들려오는 군가소리를 들으며...

# 그 기발 나에게 넘겨달라!

최순철

푸르른 조국의 하늘  
그대로 비껴담았는가  
티없이 맑고 푸른 보통강기슭  
승엄히 서있는 전승기념탑의 승리상

포연서린 군복자락 휘날리는 병사  
그대 눈동자엔  
그대로 멸적의 불이 쏟아지는듯  
그대 추켜든 공화국기발  
그대로 뒹굴리며 떠오르는듯  
그대 가슴의 기관단총  
아직도 총신강이 식지 않은듯...

묻지 않노라  
내 묻지 않노라  
포연이 가셔진지도 수십여년  
행복의 꽃물결 설레이는 보통강기슭에  
그날의 돌격로를 이어놓고  
오늘도 그날처럼  
진격의 기수로 결전의 길 가고있는 병사

그대 몇번째 용사였던가  
저 공화국기발 기어이  
한나산마루에 꽂아달라  
피흘리며 쓰러지면서도  
전우들이 넘겨주고넘겨준 그 기발  
역세계 틀어잡고  
불비 쏟아지는 화선의 언덕 넘어온 병사여

추켜든 저 기발엔

다 있어라  
그대 분여받은 땅을 그러안고  
구수한 흙냄새 한가슴에 들이키며  
잠 못들던 그밤들이  
다 있어라  
난생처음 학교로 가던  
아이들의 노래소리  
소방울소리 울리며 애국미 싣고가던  
푸르른 언덕의 그 동구길이

목숨처럼 소중한  
우리 삶의 고귀한 그 모든것  
우리 희망과 념원이 다 어려있어  
죽어도 놓을수 없는 기발  
넘겨달라 병사여  
그 기발을 나에게  
그대 부르는 결사전의 맨 앞자리에  
내가 서리라

우리 가는 강행군길  
몇백번을 다시 걷는대도  
**김정일**장군님 받드는 길에  
한목숨바쳐 람홍색기폭우에  
빛나는 위훈만을 새기리라

아, 통일된 내 조국  
푸르른 하늘가에  
한없이 소중한 내 조국의 기치  
승리자의 긍지높이 영원히 휘날리리라

가사

## 내 마음도 위성과 함께

문기창

저 푸른 하늘가를 바라다보니  
우리의 《광명성1》호 빛을 뿌리네  
조선의 공민 된 긍지를 안고  
내 마음도 위성과 함께 우주를 나네

지금은 그 어데서 날고있을가  
그 이름 자랑높은 《광명성1》호

승리한 인민의 자랑을 안고  
내 마음도 위성과 함께 우주를 나네

이 땅에 강성대국 높이 세워갈  
우리의 신념안고 위성은 나네  
광명성 빛나라 세상 끝까지  
내 마음도 위성과 함께 우주를 나네

## 그날을 생각하자외 1 편

송명근

허리띠 조이면서도 그날을 생각하자  
진펄길 헤치면서도 그날을 생각하자  
최후돌격전으로

승리의 언덕에 붉은기 꽂아놓고  
오늘의 강행군을 총화할 그날을

오! 그날!

스스로 차지하라 자기 순번, 자기 자리  
그 결정권은 다름아닌  
오늘의 하루하루가 주리니  
가슴 쪽 펄 앞자리인가  
고개숙일 뒤자리인가

조국이며, 그대 가장 어려워할 때  
소리치며 난관을 맞받아나아가다  
내 쓰러진대도  
알아달라, 장군님의 붉은기앞에  
전사는 달려와 서있음을  
하나, 자신을 위해 두주먹 부르짖고 뛰었다면

량심에 작은 티라도 있다면  
몸은 비록 왔어도 설자리 없으리

그날을 생각하자, 그날을 생각하자  
오늘의 강행군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다 영웅이었다고  
력사가 엄숙히 선언할제  
북대정자의 봄날  
투사들의 언 뺨에 내리던 두줄기 눈물이  
승리자의 눈물이  
나의 량볼에도 흐르게 될것인가?

그 한방울 눈물에  
다 비끼리니...  
평범한 날엔  
백년을 살아 지닐수 없는  
한생의 영예  
혁명가의 존엄이...

## 이웃집 녀인

이웃집 녀인  
친어머니 되어주겠다고  
부모잃은 어린애의 손목을 끌고왔다  
비닐버치 가득 더운 김 떠올리며  
발가승이 몸 씻기는걸 보니  
내 가슴에도 훈훈히 더운김 서리누나

이웃집 사정  
이웃집에서 모르라  
울망줄망 제자식만도 어려운데

끓는 국가마에 아이뭇으로  
더 붓는 한바가지 물에  
내 가슴 이리도 그들먹 차넘칠줄이야!

나라의 어려움에서  
제뭇을 덜어낼줄 안 이웃집 녀인이여!  
식량보다  
정으로 고난을 이겨가는 사회주의가정이여!  
난관속에서  
더 아름다워지는 장군님의 식솔들이여!

## 감명이 깊은 소설

(중국) 박춘선

나는 최근에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을 다시 읽고 또다시 새로운 감명을 받았다.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감명속에 잠기게 되는것은 이 소설의 사상에술적성과 가치에 그 비결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소설은 자기 고향마을을 살기좋은 락원으로 꾸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인간들에 대하여, 고향사람들을 훌륭한 정신도덕적품모의 소유자들로 키워주며 그들에게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면서 역세계 싸워가는 아름다운 인간들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있다.

소설의 가치는 인간의 참다운 삶을 위해 이바지하는데 있다.

자기 고향과 고향사람들,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치는 훌륭한 인간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끝없이 감동시키며 고귀한 정신적자양분을 준다.

사람들을 올바른 삶의 길로 이끌어주고 생활의 지식과 아름다운 정서를 주는 이러한 소설이 바로 참다운 소설이 아니겠는가.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은 농업협동화라는 거창한 역사적사변을 그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파괴된 농촌경리를 빨리 복구하여 농업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개인농민경리를 협동화하여야 합니다.》**

농업협동화는 파괴된 농촌경리를 급속히 복구하고 령락된 농민들의 생활을 집단의 위력으로 빨리 추켜세우는 가장 올바른 길이었으며 농촌의 세기적 변혁을 이룩하는 일대 역사적위업이었다.

그것을 실현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전쟁의 상처는 혹심했고 모자라는것은 너무나도 많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동요도 주저도 몰랐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강철로 단련되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슴깊이 새긴 인민들은 온갖 난관을 맞받아 헤치며 불과 몇해사이에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라는 역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작가 천세봉도 이 거창한 투쟁의 직접적참가자였다. 그는 고향마을의 농업협동조합준비위원회위원으로서 처음부터 고향사람들과 함께 복잡한 난관과

시련을 헤치며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였다.

그는 농업협동화운동의 거창한 흐름의 한복판에 선 창조자의 한사람이었다.

작가는 자기의 피땀이 습배인 고향마을과 고향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였으며 열렬한 작가적 애정으로 그들에게 창작의 붓글을 돌리며 농업협동조합의 조직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업하는 사랑스러운 인물들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소설의 주인공 김창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업협동화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혁명적인간의 전형이며 사회주의적 개조운동의 앞장에 선 시대의 선구자이다.

전선에 나갔던 창혁이가 정전직후 정든 땅과 부모처자에 대한 애룩한 그리움을 안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것은 원쑤들의 폭격에 부모와 안해가 희생되었다는 비통한 소식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고 어린 딸애만이 외롭게 남아있는 현실, 그것은 창혁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가혹하고 무서운 아픔이었다.

그러나 그는 슬픔속에 주저앉지 않았다. 그는 원쑤들에 대한 끓어넘치는 적개심을 안고 희생된 사람들의 몫까지 합쳐 무서운 정력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업협동화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다.

그러나 농업을 협동화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었다.

한집안 형제끼리도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군하는데 어떻게 온 동네가 한데 모여 농사를 짓겠는가 조합을 외면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전쟁의 후파로 무엇보다도 모자라는것이 축력인데 소있는 사람은 저희끼리 따로 조합을 무으려고 하였다.

나라의 사회주의적발전을 달가와하지 않는 계급적원쑤들이 협동화운동을 파탄시키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했다. 협동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이 떨어져나가고 모아들인 돼지는 죽어가고 관리위원장에 대한 참을수 없는 비난과 모욕이 공공연히 벌어진다.

조합엔 빈농민만 받아들이고 부농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좌경적편향도 있었다.

창혁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깨우쳐주고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은 바로잡아주며 원쑤들의 간계에 넘어가 자기를 정면에서 비난해나서는 사람



들까지도 넓은 아량을 가지고 대해준다.

그리하여 정전직후 주체42(1953)년 11월초순 석개울마을에는 수수천년의 농촌력사에 획기적인변혁을 가져다줄 새작인 《광명농업협동조합》이 세상에 고고성은 울리며 태어난다. 그것은 이 땅의 농민들이 새로운 력사적세대에 들어서는 우렁찬 선언이었다.

창혁은 새로 조직된 농업협동조합의 관리위원장으로 된다. 그는 조합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개인농에 비해 알곡생산량을 훨씬 높이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다.

구들장을 캐서 팔아 소를 사서 제일 어려웠던 축력문제를 해결하고 산골물을 막아 큰 저수지를 건설하여 물문제를 풀며 논풀이공사를 통이 크게벌린다.

첫해농사를 잘 지어 온 마을을 협동조합에 묶어세운 다음에는 일판을 더 크게 벌려나간다.

그는 령상모를 도입하여 알곡생산을 몇배로 높이고 수신평보의 과수원을 새로 조성하며 양과 오리, 돼지 등 축산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농산작업의 기계화를 적극 밀고나간다.

그리하여 석개울은 풍요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전변되고 리기심과 건달풍 등 낡은 사상에 젖어있던 사람들은 어지러운 때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인간들로 변모된다.

소설에는 주인공 창혁이뿐아니라 그와 함께 사회주의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해 손잡고 일하는 여러 인물들의 형상이 창조되었다.

파격한 성미로 종종 말썽을 일으키곤하지만 조합일을 《범같은 기상》으로 밀고나가는 억삼이, 슬기롭고 열정적인 처녀 룡이, 익살스러우면서도 책임성높은 김정근, 근면하고 마음씨 끈은 마름감, 이들은 성격도 경력도 서로 다른 개성적인물이지만 하나같이 사심을 모르고 집단을 위해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남김없이 바쳐가는 훌륭한 인간전형들이다.

소설을 읽으면 누구나 마음이 숭엄해지고 인간의 참된 삶은 바로 자기 고향과 고향사람들,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롭게 음미하게 된다.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이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은 현대소설로서의 특성을 잘 살린것과도 관련된다.

소설은 어디까지나 묘사의 문학이다. 묘사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을 눈앞에 보듯이 방불하게 펼쳐 보여주는데 소설의 진미가 있다.

소설은 소설의 묘사적특성을 그 시대 인간들의 미감과 정서에 맞게 잘 살려내야 한다. 현대인의 높은 지성에 상응한 의미깊은 묘사, 약동하는 현대적감각에 맞는 간결하면서도 동적인 묘사, 이런것들이

현대 소설에서 바람직한 묘사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에서 는 초상묘사와 자연묘사가 간결하면서도 깊이있고 생동하여 인간의 성격과 행동이 눈에 보는것처럼 방불하게 안겨온다.

소설 제2부 6장 《두뭉음의 벼이삭》에서는 주인공 창혁이가 령상모에 대한 경험을 배우려고 길을 떠난날 저녁의 정경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묘사로 주고있다.

이날밤엔 추운 바람이 뽁뽁 불어왔다. 낮에 녹았던 땅이 뽁뽁 얼었다.

창혁은 책 몇권이 든 가방을 들고 집을 떠났다. 달래벌에 나서니 바람이 더욱 사납게 불어왔다. 길은 캄캄하게 어두웠다. 선진영농방법인 령상모를 받아들이자고 일판을 크게 벌려놓았는데 조합원들속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조합농사를 망칠가와 걱정하는 말들이 튀어나왔다. 이것으로 복잡한 일까지 벌어진다.

창혁이자신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책에서 본이상 더 납득시키기 어려웠다.

모대기던 창혁은 언젠가 신문에서 령상상모경험 기사를 본 기억이 나서 신문철을 뒤져보았다. 경험은 평안북도에 있는 대성농업협동조합의것이였다. 기사만 보아서는 알고싶은것이 너무 많아 창혁은 그곳을 찾아가보리라 결심한다. 대성은 저 멀리수천여리 떨어진곳이였다. 그러나 그는 결심이 서자 즉시 길을 떠난다. 급한 일을 처리하고 그밤으로 30리 길을 걸어 정거장으로 가는것이다.

여기에서 사납게 부는 추운 바람, 뽁뽁 언땅, 캄캄한 밤 등의 묘사는 창혁이가 떠난날의 날씨조건에 대한 묘사를 주면서 어떤 사나운 날씨에도 주저하지 않고 밤길이라도 지체하지 않는 창혁의 단호한 결심과 굳센 의지를 강조하는데 바쳐진것이다. 그런데 이 자연묘사의 의미는 여기에 그치는것이 아니다. 낮에 녹았던 땅이 밤이 되어 뽁뽁 언다는 표현과 사나운 바람, 캄캄한 밤에 대한 묘사는 활기있게 전개되던 조합일이 난관에 부딪쳐 진통을 겪는 정형과 창혁의 무거운 심리들 엿보이게 한다. 간결하면서도 깊이있는 이런 묘사는이 소설의 내용을 감명깊게 보여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소설은 립체감이 있게 구성이 짜여져있고 이야기도 속도감있게 전개되어나간다. 그리고 대사도 개성적이고 전반적으로 언어표현에서 흙냄새가 진하게 풍긴다.

소설은 읽고나면 전후 폐허로 되었던 이 땅이 어떻게 인민의 살기좋은 낙원으로 훌륭히 전변되었는가를 더 잘 알게 되고 인간의 삶은 자기 조국의 부강번영에 바쳐질 때 값높은것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절감하게 된다.

# 사랑은 노래를 낳는다

리영

## 1

하늘가 멀리엔 별찌가 난다  
형광등 밝은  
층높은 내 집 창가  
나는 지금 여기서  
한장의 편지를 펼친채 움직일줄 모른다

노래 지어달라고  
좋은 노래 지어달라고  
고향아, 네가 보낸 편지  
그 소박한 당부를 새겨보느라니  
이밤따라 어이하여  
사무치게 너를 안아보게 되는것이나

노래부르긴 즐거웠다  
꿀벌이 봉봉 날아다니는  
살구꽃 피어난 고향집 트랙을  
수수대총을 들고 동네길에 나서면  
바둑이 꼬리치며 텅굴던 박우물가를

노래부르긴 즐거웠다  
맨발로 발범발범 기어오르던  
백양나무우등지 그 까치둥지를  
가득나무잎사귀에 산딸기 싸들고  
코흘리개패들이 밀려다니던 그 푸른 계곡을

고향아, 너는 서정의 샘이었다  
가재잡이하던 시내가, 그 맑은 물소리가  
모교에서 설레던 감나무 그 푸른잎소리가  
시줄이 되어 가슴에 흘러들 때면  
나는 온밤 그 달디단 샘물에 입술을 땄줄 몰랐다

행복했다, 네가 마치 나에게만 있는듯이-  
그래서 너를 찾을 때면  
뜸부기 우는 벌에서  
추리꽃 만발한 금산의 언덕에서  
자주 시상에 잠겨보았던가

너는 나에게 너무도 정다웠거니  
수령님 찾아오셨다고  
그리고 자랑에 겨워 뽕박질하던  
해바라기 키높이 자란 마을길에  
장군님 김매는 기계 보내주셨다고  
온밤 떠들며 웃던  
작업반선전실의 넓은 트랙이

진정 너에 대해  
서툴게 글짓기도 했을진대  
오늘은 붓을 쥔 삶으로 성장했으니  
아지랑이 피어나는 봄날의 전야를 두고  
가을날의 높푸른 하늘을 두고  
내 때없이 시흥에 가슴 뛰놀곤하였다

허나 네 노래 부르기  
쉬웠던가 정말 즐겁기만 했던가  
너를 위한 노래  
많이 불렀다 생각했건만  
불러야 한 노래  
아직 부르지 못한듯  
내 마음 무거워짐은 무엇때문이나

하늘가 은하수는 기울어져가도  
가슴속에 갈마드는 생각이 있다  
물어 보자, 고향아  
내 노래 위해 네가 있어야 했거나  
너를 위해 내 노래 있어야 했거나  
이밤 한장의 편지를 펼친채  
이 아들은 잠간 할말이 있다

## 2

노래부르긴 즐거웠어도  
사랑하긴 힘들었다

아무리 물을 대어도 가물타던  
덕아래 그 사래긴 이랑을  
내 사랑했으며 얼마나 사랑했으랴  
용소골의 그 비탈밭을 내 사랑했다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으랴

장마비에 질척거리는 들길을 나무리며  
삽을 끄올며 어깨쳐져 걸어가던  
그 애송이청년을  
고향아 너도 보았을게다

사랑하긴 힘들었다  
жат나무 심던 한천산의 그 석비레땅을  
허리까지 빠지던 그 수령논을  
하면서도 비와 눈과 뽕벌속에서  
땀을 흘리며 눈물흘리며  
이 아들은 철이 들어야 했다

우리 수령님 어찌하여 이 땅에 오시여  
저물도록 들길을 걷고 걸으셨는지

내 알면 얼마나 알았으랴  
우리 장군님 또 어찌하여  
이 땅에 비료를 선참 보내주시며  
그리도 마음쓰시었는지

사랑할줄 알았다면  
너의 수령논, 그 비탈밭들이  
나에겐 흙으로 되지 않았을것을  
못잊을 그 자옥 새겨진  
구석진 발이랑, 그 마지막이랑까지  
청춘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뿌렸을것을

사랑으로 불탈줄 알았다면  
쌓아올린 다락밭 그 흰구름의 절정에서  
내 로동의 희열을 한껏 노래불렀으리라  
눈꽃이 날리는 산정에서  
후리채 생산하는 처녀들의 랑랑한 웃음소리를  
이미 벌써 아름답게 그렸으리라

그래도 너에게 땀도 흘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고  
제판엔 노래짓는다 자부했던가  
그 나날에  
마치도 내 노래 위해 네가 있는듯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있지나 않았는지...

너에 대한 노래  
추억의 물결우에서만 흘러간듯  
파연 그런 노래  
너는 얼마나 기억할수 있었더나  
이랑에 스며드는 물처럼  
너의 가슴에 받아들일수 있었더나

용서해다오  
사랑할걸 다 사랑하지 못하고  
너의 노래 서둘러 불러왔던것을  
쉽게 부를수 없는것이다, 너에 대한 노래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마음다해 사랑하지 않고서는

나는 빗진 심정이다  
대학으로 나를 내려워주던 고향아  
떠날 때 너를 위해 떠난다고 생각했던만

돌이키면 나 자신을 위해 떠나왔구나  
농사짓는 사람은 따로 있는듯  
나는 그 무슨 성공을 그려왔구나

이 땅을 안고  
조국을 노래하라고  
너는 나에게 큰일감을 주었던만  
나는 그것을  
너무도 가볍게 받아들인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땅과 떨어져  
그 흙냄새 잊고 실아온게 아니라

그래서 밤은 깊어가도  
네가 보낸 편지를 펼친채  
너의 그 이랑들을 사무치게 쓸어보는것이다  
너를 가꾸는 그 거울진 손들을  
하나하나 다시 잡아보는것이다

### 3

노래가 사랑을 낳느냐  
사랑이 노래를 낳느냐  
나 없이도 꽃피나는 산천아  
너무도 단순한것을  
나는 너무도 힘들게 알게 되었구나

너를 가꾸며  
너에게서 벌써 알아야 했을것을  
너를 떠나 늦게야 깨닫게 되는구나  
심장에서 사랑이 움터나듯이  
노래는 사랑에서 시작된다는것을

내 지금 한장의 편지를 받고  
그것을 새삼스레 깨달은것은 아니다  
고향 들릴 때마다  
무렵없이 마라초 권하며  
나와 이야기하고싶어하는  
그 소박한 사람들을 마주할적이면  
어쩐지 마음은 송구스러워지곤하였다

내 때로 할일을 쓰게 못할적마다  
힘든 일은 이들에게 다 맡겨두고  
나는 멀리서 이 벌의 쌀만 축내는듯  
그럴 때면 어쩐지 죄스러워지곤했다  
마음은 무거워지곤했다

이 땅에 흘린 땀만을 두고  
사랑을 말함은 아니다  
천리를 떨어져있다 해도  
고향아, 너를 살붙이마냥 안고사는 그 마음을  
두고  
너와 떼땀이 마주할수있는 그 량심을 두고  
내 사랑을 말하는것이다

훈장과 메달처럼

가꾼 이삭을 가슴에 안아볼줄 아는 사람들  
말 주변은 그리 없어도  
속깊은 진정과 마음속 말을  
땅과 터놓을줄 아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다  
내리는 비면 그 비를  
날리는 눈이면 그 눈을

별에서 고스란히 다 맞는 사람들이  
오는 바람, 가는 바람 다 맞으며  
곡식처럼 자신을 세상에 다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들  
제 살점이 떨어진듯  
비에 허물어진 방축을 쓰다듬는  
이들의 그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강냉이 이파리에 팔을 굽히우며  
포기마다 복을 돌구어주는  
이들의 그 심정을 다 알지도 못하고  
내 이삭의 환희만 먼저 터쳐왔으니  
그 노래 이 땅과 무슨 인연이 있었으랴

인생의 꿈이면 그 꿈을  
인생의 리상이면 그 리상을  
씨앗처럼 묵묵히 땅에 다 묻으며  
빛나는 명에 먼저  
무거운 열매를 조국앞에 바칠줄 아는  
아, 이네들을 떠난  
내 사랑은 무엇을 위한 사랑이고  
이네들이 가꾸는 땅을 모르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고향일것인가

...밤은 고요하다  
창턱의 유선화 곁에 웃는 이런 밤이면  
더더욱 그려보게되는 나의 향촌아  
지금쯤은 새로 쌓은 수로둑 그 풀덤불에선  
찌르러기 찌룩- 찌룩- 울고있으리  
봄물이 주절-주절- 도랑물도 흘러가고있으리

노래부르기 앞서  
나는 먼저 안아보리라  
그 땀에서 사시절 입고다니는  
농장벌쳐너들의 흙물묻은 작업복들을  
바지가랭이 걷어올리고 두렁길로 다니는  
논물관리공들의 수고많은 발자욱들을

노래부르기 앞서  
나는 먼저 쓸어보리라  
흙을 다루는 그 장알진 손들이며  
오늘의 강행군길에서 더 역세게 들어온

그 번쩍이는 삽이며 팽이자루들을  
비오나 눈이 오나  
곡식을 가꾸는 보탑같은 그 성실을 모르고  
씨앗같은 깨끗함과  
벼꽃같은 소박함을 다 모르고  
내 노래 지으면  
무슨 노래 지을수 있으랴

조국이라는 크나큰 대지를 안으시고도  
빼기밭까지 다 밟아보신  
수령님의 뜻이 어린 땅에  
두렁길에 오래도록 서계시던  
장군님의 그 은정 새겨진 바로 이 땅에  
운명의 뿌리 억척스레 뻗치고있는  
그 웅심깊은 마음을 모르고  
내 어떻게 이 산천을 안아볼수 있으며  
이 땅을 위해 감히 붓을 들수 있으랴

타고장에서 이런 말 한다고  
고향아 나무람말아  
너를 안고 산다면  
너의 곁에서 노래부른들 어쩔고  
너를 떠나 노래부른들 어찌리

마음의 나래 타고  
나는 네곁에  
너는 내곁에  
서로 함께 있는것이거니  
기왕 시작했던 노래  
멀리서 너를 위해 바쳐야 할 노래짓기도  
결코 헛치 않음을 알아다오

삼복더위 김매기철  
길고긴 이랑끝 필력은 그 기밭말에  
나의 노래도 있으리  
결사전가 드높이  
폭우속에 어깨걸고 지켜가는  
그 수로둑에도  
나의 노래는 있으리

내 이제는 네앞에 말할수도 있다  
너에 대한 노래 부른다면  
그 노래 비도 눈도  
이 땅과 함께 다 맞게 되리라는것을  
그 노래 곡식엔 거름이 되고  
정다운이들에겐 길동무 되리라는것을

내 이제는 약속할수도 있다  
그 노래속에

뜨락또르 동음소리 더 우렁차게 울리고  
 이삭의 파도소리 메아리치리라는것을  
 그 노래속에  
 파원의 꽃은 더 활짝 피어나고  
 수로의 물결은 더욱 출렁이리라는것을

그래서 나의 노래도  
 알찬 열매되어  
 이 땅에 바쳐진다면  
 사회주의대지  
 테제로 살진 그 이랑 이랑들에  
 승리의 찬가되어 울려간다면  
 내 이 땅에서 태어난  
 시인된 뭇을 다 하는게 아니라

하여 그 노래  
 고향아 너는 기꺼이 받아주리라  
 포기마다 흘린 나의 땀처럼  
 두렁길로 걸어간 나의 발자욱처럼  
 사시절 이 땅을 안고산 나의 숨결처럼

안고살줄 안다면

노래는 저절로 태어나리라  
 안고살줄 모르고  
 너의 노래 짓는다면  
 논판의 돌피처럼  
 그 노래 받아주지 말아다오

사랑은 노래이기전에  
 땀이며  
 량심이며  
 뉘었것을

고향아  
 나의 노래위해  
 내 열정 너에게 바치지 않으리  
 너의 노래 위해  
 내 열정 너에게 강그리 바치리

사랑은 영원한 나의 노래  
 고향아 나의 젖품아  
 너에게 먼저 사랑을 바치마 심장처럼  
 노래는 후에 그 후에 부를지라도...

## 신천의 흙이여!

김연화

꽃속에 나를 받들고도  
 말없는 이 땅  
 말없는 고향의 흙이여!

흙이여  
 고향의 흙이여  
 우리 어머니 즐겨 가꾸시는  
 하얀 목화꽃송이처럼  
 차분차분 감겨드는 흙이여!

그 동요시절  
 빨간 치마 입고 뛰어놀 땀  
 그처럼 즐겁기만 하더니  
 아니였구나 흙이여  
 너는 너무도 큰 상처를 감춰  
 나를 자래웠구나

파아란 꽃신 신고 들놀이 갈 땐  
 넘어져도 흙묻은 치마를 털기조차 즐겁더니  
 다 자라서는

털기조차 마음저려  
 가슴속에 먼저 안아보는 고향의 흙이여!

물어보면 대답은 아니주는 땅  
 흙이여 말해다오  
 내 그 시절  
 강둥거리며 줄넘기 할 때  
 그밑엔 누가 잠들고있었는가

정녕 포근하지만 앓았구나  
 정녕 뜨겁지만 앓았구나  
 고향의 붉은 흙은

오, 딛고사는 땅보다  
 봉분우에 얹은 흙이 더 많은 산천이여!  
 행복한 세월이 흘러도  
 원한의 피가 마르지 앓았음을  
 원수를 어떻게 복수해야 하는가를  
 오늘도 말없이 가르치고있구나!

(주체 87. 7. 22)



## 제주진주

(총련)원정희

## 1

삼복의 폭양이 쏟아져내리는 8월 어느날, 7시의 타원형수영 경기장에서는 전국학생경기대회 고급부분 수영경기결승전이 바야흐로 벌어지려 하고있었다. 찌는듯한 무더위에도 아랑곳없이 경기장에는 관람석이 모자랄지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관람석 한가운데는 시립고교응원단이 빼곡이 들어앉았고 그 맞은편에는 조선학교응원단이 그들에게 질세라 기세를 올리고있었다. 조선학교응원단은 나이도 제가끔 다르거니와 옷차림도 달랐다. 양복, 학생복, 치마저고리며 농악무의 의상, 다채로운 그 차림새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야말로 계단식 꽃밭과도 같았다.

오늘 경기에는 조선학교선수들이 참가하지 않는 데 저렇게도 요란한 응원단이 모여들었으니 관객들은 저마끔 의심을 품고 수군거리거나 눈길을 마주치고있었다...

《이제부터 너자 200미터 결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원의 목소리가 떨어지자 7명의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방송원이 선수들을 소개하였다.

《1주로 와다나베 다카코, 2주로 쓰루미 마유, 3주로...》

자기 이름이 불리워지면 매 선수들은 손을 높이 추켜올렸다. 5주로의 가와무라 다마미의 이름이 불리웠을 때에는 예상했던것처럼 폭발적인 환성이 터졌다. 곳곳에서 저애가 이번 경기의 우승후보라는 말이 오갔던것이다. 물끓듯 설레이는 관람객들의 시선은 일시에 5주로의 처녀에게로 집중되었으나 다음 순간에는 경쾌하게 울리는 팽파리소리가 나는 쪽으로 쏠리었다. 그 응원단 맨앞에는 날씬하게 생긴 처녀가 선녀처럼 솟구쳐오르다가 랑손을 오무려 입에 대고 무언가 호소하는것 같았다.

5주로의 선수는 왜 그런지 그쪽을 펴뜩 살펴보는 것이 었다. 조선학교응원단앞에 선 처녀는 고영미였다. 그가 손나팔을 불자 응원단성원들은 잠시 조용해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5주로의 선수를 응원합니다. 그는 우승후보자입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응원단성원들은 수군덕거렸다.

(일본처녀를 응원하다니,...?)

《그는 비록 우리 학교선수는 아니지만 우리와 같

은 동포입니다. 제주도해녀의 후손이라고 나는 알고있습니다!》

그제서야 그에 호응하듯 팽파리소리,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

5주로에 선 나의 가슴은 여느때없이 두근거렸다.

《땅!》

출발신호총이 울리는것과 거의 동시에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확 돌아오른 온몸을 시원한것이 감돌자마자 마음은 단번에 편안해졌다... 내가 처음 물속에 들어간것은 다섯살때였다.

나를 물속에 던져넣은것은 외할머니였다. 검푸른 바다물속에 던져졌을 때 나는 무서움과 바다물의 섬찍한 감각으로 해서 눈을 딱 감고 몸을 떨었다.

《싫어, 싫어! 난 안들어갈래.》

나는 물속에서 발버둥쳤다. 이때 빨간 구명대를 날아왔다. 겁에 질린 나는 허겁지겁 구명대를 덥석 잡았다.

《야, 영미! 너 어째서 그걸 던져주니?!》

영미언니는 할머니의 엄한 꾸중에는 개의치 않고 커다란 불우물을 지으며 나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나의 손목을 잡아 이끌었다. 구명대를 걸친 나는 그에게 이끌려 바다물을 발로 차며 쪽쪽 헤엄쳐갔다. 그리고는 그와 마주 얼싸안고 《해해》 웃었다. 영미언니는 빙그레 웃을뿐이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영미는 너보다 두살 우인데 너와 같은 제주도 계집애란다.》라고 소개했다.

그것이 영미언니하고의 첫 상봉이었다. 나는 다음날부터 온종일 영미언니에게 붙어다녔다. 동네사람들은 검실검실한 영미언니와 새하얀 내가 붙어다니니 바둑알과 같다고 하였으나 여름이 지나가고 집으로 돌아갈무렵에는 나도 영미언니 못지 않게 까매졌다. 그후 3년동안 여름을 할머니집에서 보냈는데 그동안에 나의 수영기술은 매우 높아졌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헤엄치다가 갑자기 오른발에 심한 아픔을 느꼈다. 내가 초조해서 허겁지겁하는데 파도까지 일기 시작하였다.

《...침착해! 다른 발과 손을 움직여-!》

영미언니의 소리가 들렸으나 겁에 질린 나는 헤엄비기만 하였다.

《아파...안돼...》

짹짹한 바다물이 입안에 마구 들어왔다.

영미언니는 헤엄쳐 다가오면서 웨쳤다.

《침착해! 하나, 둘, 하나, 둘...손과 발을 움직여! ...》

(하나, 둘, 하나, 둘...)

나는 필사적으로 손발을 움직였다. 어느새 영미언니가 나의 손목을 잡고있었다.

거센 물결은 가신듯이 사라지고 따뜻한 햇빛이 쏘여졌다. 나와 영미언니는 모래위에 털썩 누웠다. 할머니는 그러는 우리의 꼴을 보고 얼굴에 주름살이 쪼글쪼글해지게 웃는것이였다.

《할머니 왜 웃어?》

나는 볼부는 소리로 내쏘았다.

《허허허, 우습기때문에 웃는것이지. 제주도계집애가 바다를 무시위하면 쓰겠냐? 하긴 한두번쯤 바다물맛을 보는것도 나쁘지 않아. 너는 제주도해녀인 이 할머니의 자식이라는걸 알아야 해...그렇지, 네 옛말 하나 해줄가?》

영미언니와 나는 벌떡 일어나 쇠약하면서도 굳센 할머니의 두팔에 매달리였다.

《옛날옛적에 한 제주도해녀가 아버지와 어린동생들과 함께 살고있었다.》

할머니는 파도소리에 맞추어 노래라도 부르듯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식구들을 먹여살리느라 갖은 고생을 다 해온 아버지는 끝내 병들고말았다. 아버지대신 식구들의 끼니감을 구하려고 처녀는 밤낮 바다물속에 들어가 조개나 생복을 따다 팔았는데 그가 얼마나 재간있고 꾸준했던지 가족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여느때처럼 바다에 들어갔는데 그날은 어째선지 조개 하나, 물고기 한마리 보이질 않았다. 그가 더 물속깊이 헤엄쳐가자 큰 비뿔틈사이에 구멍이 보였는데 그 구멍속에선 신기하게도 호흡이 편안해졌다. 처녀가 그 구멍속을 계속 헤엄쳐나가자 돌연히 시야가 넓어지면서 거기에는 웅장화려한 바다나라궁전이 나타나는것이였다. ...

《바다나라궁전?! 야- 바다속에 그런것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나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할머니의 무릎을 흔들며 졸라대였다.

《허허, 넌 우물을 통채로 마시겠다고 하는구나. 원 자식이 급하진...!》

할머니는 나를 무릎위에 앉혀놓고 어깨를 쓰다듬어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다.

...룡왕은 아릿다운 처녀가 단번에 마음이 들어 그를 자기 딸로 삼기로 결심하고 그를 유혹하려고 진수성찬이며 진귀한 보물, 궁녀들의 우아하고 다채로운 공연을 마련해주었다. 그런데 처녀는 계속 울고만 있었다. 들어보니 자기 식구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제혼자 좋은 생활을 누릴수 있는가 하는것이였다. 룡왕은 진주보다 아름다운 그의 마음씨에 몹시 감동되어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을 다 이루어준다는 제주진주를 주고 그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처녀는 제주진주의 도움으로 고향사람들과 오래오래 의 좋게 살았다.》 나와 영미언니는 좋아라 찌릭찌릭 손뼉을 쳤다.

《마음씨 착하고 수영 잘하는 그 제주도해녀의 이름을 제옥이라고 했단다. 제주도라는 <제>자애다 구슬<옥>자, 그래 제옥이...외동손녀인 네 이름은 내가 거기에서 따다붙인거야.》

그렇다. 나의 어릴적이름은 외할머니가 지어준 제옥, 량제옥이였다. 그 제주진주의 이름을 따서...

## 2

관람석에서 《가와무라 좋다.-!》, 《다마미 계속 잘해-!》 하는 환호성이 터졌다. 5주로의 선수가 맨먼저 50메터 지점에 닿아 여유작작하게 되돌기를 한것이다.

×

가와무라 다마미-

내가 가와무라 다마미라고 불리우기 시작한것은 일본소학교에 입학하던 그때부터였다...

그 시절 아버지가 경영하는 《가와무라상사》는 상승일로를 걷고있었는데 그와 더불어 아버지는 자기가 조산사람이라는걸 감추는것에 무척 신경을 썼다. 일본사람으로 행세해야 기업이 잘되어선지 모른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여름마다 외할머니 집에 갔다가 제옥이라 부르기에 버릇되어 돌아오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내가 물에 빠졌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그날밤으로 자동차를 몰고 나를 데리러 왔다...

《용식이 이사람, 이 밤길에 그 먼데까지 차를 몰고 가자면 얼마나 힘들겠냐? 오늘만은 여기서 자고래일 일찍 가면 안되겠냐?》

《어머니, 안되였어요. 난 이밤중으로 꼭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안아 일으키는 바람에 나는 눈을 떴다.

《아버지 왔나? 내가 헤엄치는걸 보라요.》

《...이젠 돌아가야 해.》

《싫어. 아직 안돌아가. 난 여기 있을래!》

나는 아버지 품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쳤다.

《다마미!》

아버지는 아플 정도로 나를 더 힘껏 끌어안았다. 나는 숨쉬기조차 가뻔다.

《...영미언니 만나고 갈래.》

《영미언니?》

《이애와 생명을 구원해준 애야. 제옥인 내가 데려갈테니 두고가라구.》

《그러진 못해요. 그리고 래년부터는 이애도 소학교에 입학하니 여기엔 오지 못할것 같아요.》

《방학에도?!》.

《…예. 신세 많이 끼쳤어요. 영미란 생명의 은인한테도 인사 잘 전해주시시오.》

나를 바라우는 할머니의 색바랜듯한 눈속에는 펴하니 물기가 어려있었다.

아버지는 차칸에서 계속 우는 나를 한참동안 달래다가 《다마미! 이젠 그쳐!》 하고 갑자기 버럭성을 낸였다. 놀란 나는 순간 울음을 그쳤으나 인차더 큰소리를 내어 울었다.

《…이 애비가 잘못했구나. 눈물을 거두거라.》

아버지는 차를 세우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다시 할머니집에 되돌아가?! 응.》

《…그러진 못해…다마미, 앞으론 절대 제옥이란 말 하지마. 넌 제옥이가 아니고 다마미야.》

《아버지, 제옥이란 헤염 잘 치고 바다나라궁전에 간 옛날사람이야. 그러구 나야!》 …

그러나 결국 나는 아버지가 하는대로 《가와무라 다마미》로 일본소학교에 다녔으며 세월과 더불어 그 이름이 저도 모르는새 귀와 몸에 배이고말았다.

하지만 영미언니를 결코 잊은것은 아니었다.

나는 여러번 영미언니가 배워준 조선글로 포박포박 《고영미언니얏》으로 편지를 쓰고 어머니에게 보내도록 부탁하였다. 그런데 영미언니한테서 회답은 한번도 오지 않았다, 써도 써도 회답이 오지 않는 편지…내가 아무 말없이 돌아갔기에 영미언니날 싫어하게 되었을가?…무서운 의혹이 나의 작은 가슴을 위협하였다.

한번은 그리움을 참지 못해 혼자 영미언니네 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여보시오…누구시오?…누구요!》 하고 무뚝뚝한 남자목소리에 겁이 나서 그만 수화기를 놓고말았다. 불현듯 나의 머리속에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헤염을 잘 치게 되면 아버지도 할머니집에 가는것을 허용해줄거야! 그러면 영미언니와도 만날수 있다!)

어린 나로서는 참으로 신통한 생각이라고 여겨졌다. 나는 인차 부모한테 줄라 매일처럼 수영장에 나가 수영을 배웠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수영부에 들어가 동무들보다 곱절이상 더 연습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선배들을 물리치고 학교선수로 뽑히우게 되었으며 지방의 여러 경기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올리였다. 어느날에는 수영감독이 나의 어깨를 부여잡으며 《가와무라, 너같은면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것도 꿈이 아니요. 날 믿고 따라오라구!》 하였다.

《전국대회!…영미언니도 꼭 나올거야!》

그후부터 나는 《수영미치광》이라 불리울 정도로 수영훈련에 열성을 바쳤다.

《가와무라, 힘내라!》

《좋다 다마미! 계속 계속!》

경기장을 울리는 응원소리, 맨먼저 결승선에 닿은 순간 터지는 환호성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는 큰 전자게시판의 맨웃자리에 《가와무라 다마미》란 글자가 번쩍 빛나는 그때가 제일 좋았다. 그런 기쁨을 여러번 체험한 끝에 마침내 나는 전국대회출전권을 쟁취하였다.

전국대회참가가 결정되자 교내의 곳곳에서 나를 축하하는 벽보가 나붙였고 교장한테서 직접 격려의 말까지 받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내옆에는 언제나 하야시 야스히로란 동창의 남학생이 있었다. 그는 권투로 전국대회에 나가기때문이었다.

《가와무라상은 수영으로 어디까지 가려고 해?》

《무슨 뜻이에요? 혹시 어디까지 헤염쳐갈수 있는가 하는 뜻인가요?》

야스히로는 어처구니 없다는듯 제법 어른스럽게 꺾꺾 웃다가 사뭇 진지한 어조로 말하였다.

《다마미상은 전국대회에 나갈수 있는 힘을 가지면서도 장애에 대하여 전혀 안목이 없구만요. 국내뿐아니라 세계에서도 최강자가 되고싶지 않은가요?》

장애에 대한 안목…! 그때까지 한번도 그런 생각을 못해본것은 아니였으나 그것은 너무도 어렴풋하였다. 내가 수영을 계속한것은 어린 생각에도 무엇보다 영미언니를 만나기 위해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것이였다. 그러나 막상 출전이 결정되었다고 하니 그후의 목표가 필요한것 같기도 하였다.

세계최강자! 야스히로의 입에서 불쑥 나온 그 말이 나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였다. 가령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명단을 훑어보면서도 이제까지 없던 경쟁심이 우썃우썃 솟아났다.

《꼭 우승을 하자!…아니 내가 선수명단을 보면서도 영미언니의 이름을 아직 찾지 못했구나.》

나는 고급학교부문 선수명단을 뒤집어보았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커녕 그가 다니는 조선학교의 이름도 보이질 않았다. 혹시 다른 학교로 갔을가, 그러면서 나처럼 일본이름으로 출전하는것이 아닐가?

나는 할머니집에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는 오래간만에 듣는 손녀의 목소리를 여간 반가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영미언니에 대하여 물어보자 자못 흥분하던 어조가 갑자기 가라앉더니 한숨소리를 내는것이였다…

《할머니, 영미언니의 일본이름을 대달라요!》

《너석두…너도 이젠 어리지 않으니 영미를 만나

러 학교로 가보려 무나. 그러면 알겠지》

나는 할머니가 말하는대로 휴일날 전차를 여러번 갈아타고 영미언니가 기숙사생활을 한다는 홍조선 고급학교로 찾아갔다. 학교는 내가 다니는 중급학교에 비해 크지 않았으나 아담하고 깨끗했다.

(여기가 조선학교이구나. 영미언니가 그리워 나도 가겠다고 보채이던 학교…)

《안녕하세요?》

새하얀 저고리차림인 너학생이 나를 보고 인사를 하였다. 나는 보기에다 살뜰한 그에게 고개숙이며 물었다.

《저… 일본이름은 모르겠는데 고영미라 하는 학생을 아시나요?》

너학생은 까르르 웃었다.

《영미언니에게 일본이름은 없어요. 물론 나에게도. 조선사람인데 무엇때문에 일본이름을 가지겠어요?》

《…》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으나 나는 섬찝해졌다.

《영미언니 지금 서명운동에 나갔어요. 조선학교가 전국학생체육대회에 나갈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서명운동이에요.》

나는 무뚝 굳어지고말았다.

(조선학교는 대회에 참가할 권리가 없다?!)

《영미언니 인차 돌아오겠으니 학교구경이라도 하면서 기다리시면 어때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어요.》

너학생은 손목시계를 힘껏 보며 말했다.

《아니 괜찮아요. 후날 다시 오지요…》

《?!》…

내가 영미언니를 만나지 않은채 허전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는 여느때와 다르게 만취되어있었다.

《다마미, 아버지도 피로운 일이 많아. 이 세상 살아가자면 삶은 놈에게 아침도 하고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해야 돼. 고통스러워… 허지만 이 애빈 어머니와 너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네 장래를 위하여…》

아버지는 나의 손을 쥔채 무엇인가 중얼거리더니 그냥 잠들어버렸다.

《아버지…》

그 무슨 뜨거운것이 울컥 솟구쳐올랐다.

딸앞에선 나약한 소리 한마디 해오지 않던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새삼스레 내려다보는 아버지는 펍 늙어보였다. 내가 커서 그런지 몸도 작아보였고 술 많던 머리칼도 성글어지고 희어졌다.

(아버진 진정 날 생각해서… 내가 만일 체육이란 이름으로 조선학교에 다녔다면 전국대회에도 나가

지 못했겠구나…)

내가 가와무라 다민미앞으로 보낸 발신인불명의 편지를 받은것은 이날부터 며칠 지나서였다. 의아해서 뜯어보니 뜻밖에도 영미언니에게서 온 편지였다.

《…이제까지 량제옥의 이름으로 여러번 편지를 보냈으나 너에게 가닿지 못한것 같구나. 그래서 오늘은 백보 양보해서 <가와무라 다마미>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난 네가 이번 전국대회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처럼 기뻐했어. 그런데 그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지. 네가 《가와무라 다마미》의 이름으로 출전한다는걸말이야. 제옥아, 대회전에 너를 만났으면 해. 아니 꼭 만나야겠어. 이번 일요일날…》

편지에는 만날 장소와 시간, 영미언니네 학교전화번호가 적혀있었다.

나는 깊은 생각끝에 일부러 가지 않았다.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미언니에 대한 생각은 한시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전국대회 전날, 그날도 나는 며칠동안 줄곧 검질기게 갈마드는 착집한 생각을 하면서 그저 발이 나가는대로 터벅터벅 길을 걷고있었다. 그런데 교문을 나서면서 하는 학생들의 말에 흠칫하였다.

《아니 이런 무더운 날에 긴소맷 왜 입어?》

《저게 조선녀성들이 입는 저고리야. 그런데 저처녀가 누굴 만나러 왔을가?》

나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그곳을 보았다. 앞머리를 곱게 말아올리고 학생치마저고리를 단정하게 입은 처녀!… 오래동안 못보았으나 나는 단번에 그녀학생이 영미언니라는것을 알아차렸다.

한발자국 한발자국… 그에게로 다가갈수록 심장은 뛰쳐나올듯이 높뛰었다. 나는 얼굴을 숙이고 학생들속에 숨듯 끼여서 그의 곁을 스쳐지나갔다.

다행히도 영미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 처녀가 2반의 아께미를 만나러 온게 아닐가?》

《왜 ?…아니 아께미가 조선사람이냐?》

《넌 몰랐니? 그래서 최근 교내에서 빈번히 일어나고있는 도난사건의 범인이 그가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지,》

《그럼 내 지갑을 훔친것도 그놈이야?!》

《그건 아직은 몰라. 별로 증거가 있는건 아니니까.》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학생들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자기 심장의 박동소리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을가 마음을 조이였다.

(만일 조선사람이라는걸 들키면…!)

뒤를 돌아보니 영미언니는 교문앞에서 연신 교정을 살펴보고있었다. 내가 나오기만 기다리면서…

(영미언니, 미안해요. 난 언니와는 이젠 판 세계 사람이예요. 날 잊어주세요. 난 일본학교에 다니는 가와무라 다마미예요... 가와무라 다마미로 살겠어요.)

나는 앞서가는 친구들의 물결속으로 깊숙이 숨어버렸다...

친구들과 헤어져 집골목길에 들어서니 마늘향내가 배인 구수한 된장냄새가 물씬물씬 풍겨왔다. 군침이 돌게 하는 그 향기는 외할머니가 온것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였다.

《외할머니가 오셨구나, 병치료 온다고 했지.》

어째신지 나의 발걸음은 철덩어리를 끄는것처럼 더더욱 무겁고 더디어졌다.

조용히 현관에 들어서는데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어머니가 마주나오며 반기였다. 어머니는 방신을 꺼내주며 《다마미, 외할머니가 왔다.》 하고 생그레웃다가 방안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어머니, 제옥이예요. 제옥이가 돌아왔어요.》 하였다. 어머니가 것처럼 저도 모르는새 묘하게도 《다마미》가 아니라 《제옥》이라 갈라부르는것이 몹시 귀에 거슬렸고 신경이 곤두섰다. 방금 영미언니를 피해서 온탓인지도 몰랐다.

나의 그런 심정을 전혀 알길 없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마미, 여기 와 앉으렴. 알알한 찌개가 기다리고있단다...어머니, 우리 제옥인 매운걸 무척 좋아해요.》

《응 그렇지. 이걸 먹어야 힘도 부쩍부쩍 난단다. 조선사람은 그저 된장찌개이상 없지. 나도 많이 먹구 래일은 힘껏 응원해주마. <우리 제옥이 잘해-!> 하구말이다. 허허...》

《제옥, 제옥》 할 때마다 불쾌감이 더해졌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간신히 참으며 수저를 들었다. 할머니는 내 사발에 찌개를 듬뿍 담아주었다.

《제옥아, 이걸 다 먹어. 그래야 래일 1등을 할수 있어. 참, 우리 제옥이가 진짜 제주해녀야. 무엇보다 숨이 길지. 다른 애들은 제옥이가 숨을 한번 쉬는 사이에 세번은 쉬더군. 오, 그러구 우리 제옥인...》

《할머니!》

울컥 뺨이 살아서 나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이옥고 나는 우정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할머니, 이젠 저를 제옥이라 부르지 마시라요.》

《제옥이, 넌!》

《제발! 그러지 마시라요. 내 맘도 알아줘요...》

《제옥이, 넌 제주해녀가 되라고 지어준 이름을...》

《아니, 싫어요... 제옥이라 부르지 마세요. 난 제

옥이가 아니예요... 그러구 이젠 경기도 보러 오시지 마시라요.》

할머니의 색바랜듯한 눈속에 푸른 빛이 일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무슨 말을 하려다가 더운 숨을 확확 내뿜기만 하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뒤에서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전국대회 중급부문 수영경기는 암회색구름이 낮게 드리워 푸른 하늘 한점 보이지 않는속에서 개막되었다.

나는 관람석을 휘 둘러보고서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것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허나 다음 순간에는 그러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그런 기분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는 준결승에서 다른 선수들과 큰 차이를 내여 단연1등을 함으로써 결승전에 올라갔다.

그제서야 나는 할머니뿐아니라 어머니까지도 오지 않는것에 불안감을 가졌다.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종내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어쩔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든 나는 감독에게 찾아가 집에서 무슨 연락이 없었느냐고 물어보았다.

《가와무라, 쓸데없는 생각말아. 넌 결승전 생각만 하면 돼. 네가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건 너 혼자 뿐 아니라 우리 수영부, 우리 학교의 명예가 된다는 걸 명심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학교의 명예...!)

감독의 말은 나로 하여금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일종의 우월감까지 가지게 하였다.

나는 마침내 그 기대에 보답하였다. 맨 먼저 결승선에 손을 댄 순간 구름조각들사이로 눈부신 태양이 얼굴을 빠금히 내보였다. 전자게시판 맨 옷자리에 번쩍 빛나는 《가와무라 다마미》, 경기장이 떠나갈듯한 환호성, 목에 걸린 금메달의 무게, 교장의 찬양의 말... 모든것이 최고였다.

그러나 그 모든것은 단번에 빛을 잃고말았다. 태양은 다시 구름사이로 사라지고 사위는 어두워졌다. 교장의 포옹을 받아 얼굴까지 붉히며 싱글벙글 웃던 감독이 그제야 생각났다는듯 호주머니에서 종이쪽지를 꺼내여 나에게 주면서 집에서 거기에 전화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하였다. 그 종이쪽지에는 집 근처의 병원명이 적혀있었다!...

나는 자신이 어떻게 병원에까지 갔는지 알수 없었다. 병원대기실 의자에 앉아서도 내 손을 꼭 잡는 어머니의 주름간 눈귀를 보면서 어머니도 늙었구나 하고 멍하니 생각하고있었다. 대기실에 외삼촌이며 숙모, 이모들이 나타났다. 어머니는 애원하는듯한 눈길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순려언니!》 하고 막내이모가 꼬꾸라지듯 뿔어앉아 어머니의 무릎위에 얼굴을 묻으며 오열을 터뜨렸다.



다른 사람들도 흑흑 흐느꼈다.

나에게는 눈앞에 벌어진 이같은 상황이 꿈속의 일처럼 생각되었다. 우는 친척들을 멍청히 바라보며 (다들 왜 울어?) 하고 생각했었다.

실은 이때 나는 허탈상태에 빠져있었다. 아직 나에게는 그 엄청난 현실을 받아들이만한 정신적여유가 없었던것이다.

《너두 외할머니에게 마지막인사를 해라.》

외삼촌의 공글은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뭐? 마지막인사라구?!)

나는 그만 그자리에 쓰러졌다.

《제옥아!》

《제옥이!》

친척들의 부름소리를 나는 꿈속에서처럼 외할머니의 소리로 들었다.

《제옥아!》

《다마미!》

어머니의 목소리에 흠칫 놀라 나는 눈을 떴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어머니의 수심어린 얼굴과 병원의 하얀 천정을 보고서야 자기가 기절했다는것을 알았다. 동시에 또다시 엄혹한 현실이 들이닥쳐왔다.

《제옥아, 명성이네들과 함께 병실로 들어가려무나.》

외삼촌이 목안이 짝 잡겨 갈리는 음성으로 말하였다. 나는 외삼촌오빠의 부추김을 받으며 외삼촌 형제들과 함께 할머니가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갔다.

《할머니!》

《할머니!》

사촌형제들은 외할머니의 손을 잡아 흔들며 소리쳤으나 나는 하루밤사이엔 너무도 변모된 그 모습에 숨이 껍 막힐것 같은 충격을 느껴 곳곳이 서고 만있었다.

(외할머니, 어째서 이렇게 되셨나요? 눈을 뜨세요! 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칭찬해주셔야지요. 네?! 재발 눈을 뜨세요!)

이때 외할머니의 호흡이 약간 가빠졌다. 재빨리 그것을 알아차린 외삼촌동생 명혁이가 그의 손목을 잡아흔들며 웨쳤다.

《할머니, 명혁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으, 응...》

외할머니의 얇고 맥푼린 눈꺼풀이 바르르 떨리었다.

《할머니, 명성이예요.》

《명준이야요.》

《명호입니다.》

외삼촌형제들은 제가끔 자기 이름을 절절하게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나는 무슨이름을 부르면 종단 말인가?!...

나는 가까스로 외할머니곁으로 다가가 귀속말로 소곤거렸다.

《외할머니, 제, 제...옥입니다.》

외할머니는 가쁜 숨을 모아쉬며 무엇인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입에 귀를 가져다댔다.

《제...ㅇ...》

외할머니는 고통스럽다는듯 얼굴을 찡그리면서 도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애쓰는것 같았다.

《외할머니, 무슨 말 하시나요?...》

나의 두볼을 타고내린 안타까움의 눈물이 외할머니의 해쓱해진 얼굴에 툭 떨어졌다.

그 순간 외할머니는 이상하게도 눈을 떴다. 그는 마치 철없던 그 시절 아버지가 외할머니품에서 나를 앗아내어 차안에 안고갈 때 보았던 그 눈과 같기도 하고 어제밤에 내가 제옥이라 부르지말라고 외할머니를 뿌리쳤을 때의 그 눈빛과 같기도 보였다.

(아, 그 눈! 외할머니 나때문에...?! 나때문에...!)

잠시후 외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끝끝내 나에게 유언을 남기지 못한채 영영 다물어진 입, 외할머니의 까슬까슬하게 보풀이 인 입술은 나의 가슴을 길갈이 찢어놓을것 같았다.

(외할머니는 나에게 무슨 말을 남기자고 했을가...)

나는 그것을 아직은 알지 못하고있다. 그때 입은 마음의 상처는 지금도 이 가슴을 찌셔댄다. 내가 지금 나가는 이 길은 외할머니가 바라던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새 4주로 선수의 머리가 내 어깨와 나란히섰다.

(하지만 나에겐 이 길을 갈수밖에 없다. 이젠 되돌아설 길은 없지 않는가. ...나에겐 이 길밖에는 없다. 지금은 힘껏 헤엄칠수밖에 없다!)

나는 바짝 정신을 차려 더더욱 힘차게 물을 헤가르며 나아갔다.

### 3

장내의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2번째의 되돌리기를 하자마자 선수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민속해졌기때문이다. 보존했던 힘을 다 발휘할 때가 온것이다. 특히 4주로 선수가 노상 앞자리를 달리던 5주로 선수에게 점차 접근해가자 관람객들은 와-와- 고아댔다.

불쑥 솟구치며 일어난 고영미는 두손을 가슴앞에 모두어 잡고 안절부절하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안도의 숨을 호- 쉬었다. 그가 주시하던 5로 선수가 다시금 기세 좋게 나갔기때문이다.

관객들도 단숨에 다른 선수들을 제쳐버린 5주로 선수에 대한 찬탄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팽파리

소리며 복소리도 더 크게 울렸다.

×

이 성원은 다 저들의 명예를 위한것이다. 자가지방, 자기 학교 그리고 자기… 영미언니네는 무엇때문에 저렇듯 극성스레 응원할까? 조선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하지만 나는 가와무라 다마미의 이름으로 출전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어쨌든 내가 패배한다면 그들은 다…

…

외할머니가 돌아간후 나는 수영을 아예 그만두고 말았다. 그리고는 학습에 전념하였다. 변호사가되리라 마음먹었던것이다. 계속되는 불경기로 날을따라 생활고에 시달려가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활을 유지해나갈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절절하게 느꼈다. 나에게서는 변호사란 직업이 그 같은 욕망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것으로 생각되었다. 변호사자격을 얻기란 여간하지 않지만 여태껏 내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수영을 대신하는것이니 어려울수록 좋았다. 수영에 대한 정열을 깡그리 학습으로 돌리니 학업성적은 나날이 높아졌다.

외할머니가 돌아간지 3년후 고급학교 2학년시기 나는 야스히로를 만났다. 내가 학교옥상에서 높고 푸른 하늘에 등실 떠있는 햇숨같은 구름송이들을 멍하니 바라보고있느라니 그가 인기척도 내지 않고 다가왔다.

《저 구름처럼 나도 남모르는 곳으로 훨훨 날아갔으면, 량제옥썬 그럴 생각이라도 하시는가요?》

《?!》

입이 얼어버린듯 말이 나가지 않았다. 아마도 그 때 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질러있었을것이다.

《<량제옥>이라 읽으면 맞지요? 본적지는 제주도…참, 제주도녀자들속에 미인이 많다는 말이 옳은것 같구만.》

《이리 주세요!》

나는 그의 손에 쥐여진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빼앗았다.

《허허, 인사불성이라구야. 모처럼 주는걸 가져다줬는데 감사의 말도 없군. 더군다나 한때에는 둘이 함께 학교에서 영웅처럼 떠받들렸는데도.》

나는 흠칫 놀랐다. 한것은 그가, 중학교시기 함께 전국대회에 간 야스히로였다는데도 있었거니와 무엇보다도 그의 다른 한손에도 외국인등록증이 있었기때문이다.

《일본에 오래 체류하는 열여섯살이상의 외국인들은 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한다. 참으로 시시한 법률이야. 제옥씨도 그렇게 생각 안해? 우린 한번도 본적지엔 못가보고 여기에서 태어나 여기에다 뼈를 묻으려고 하는데말이야.》

하야시 야스히로가 같은 고급학교에 진학했다는것을 미처 몰랐다. 아니, 별로 알았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을것이다. 그가 《립태호》인줄을 모르기전까지는…그러나 서로 《정체》가 드러난 이후부터는 주위사람들이 우릴 보고 수군덕거릴 정도로 우리의 사이는 친해졌다.

…재일조선인은 본국과는 관계없는 순수 《재일조선인》이란 소수민족으로서 일본국민들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살아나가면 된다. 현재의 복잡한 정세하에서는 통명(일본식이름)을 쓰는것은 할수 없는 일이고 별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기는 조선인이라는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태호의 이러한 생각은 나에게 물을 떠나 허덕이던 물고기가 겨우 어항속에 뛰어들어갔을 때 느끼는것과 같은 안도감을 주었다. 그의 거듭되는 설복으로 하여 영영 그만두려 하던 수영도 다시 하게 되었다. 나는 이전과 다름없이 학습을 하면서도 수영도 열심히 하였다. 그리하여 한해가 지난 오늘 이렇게 전국대회 고급학교부문 결승전에 나서게 된것이다.

《가와무라 다마미》의 이름으로…

며칠전에 태호 역시 《하야시 야스히로》의 이름으로 대회에 출전하였다. 나는 시합전에 대기실로 찾아가 그를 만났다.

《야스히로, 하나 물어도 좋아?…넌 어쩌서 일본 이름으로 나가게 되었니?》

《허허…넌 다시 공연한 질문을 하는구나. 어느쪽이라도 좋지 않나. 다마미든 제옥이든, 야스히로든 태호든 상관없어. 그저 이름이지 뭐.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네가 무슨 이름이라 하더라도 난 널 좋아하고 넌 날 좋아하면 그만이야. 그렇지?》

《진지하게 대답해줘!》

내가 여느때없이 흥분한것은 전국대회 출전이 결정된후부터 그날까지 연방 머리속에서 떠나지않는 생각중학교부문에서 우승한 날, 할머니가 돌아간날의 생각때문이었다.

《야스히로, 안됐어. 중요한 시합전에 실없는 소릴 해서…》

《일없어. 나에겐 이 첫 시합이 준비운동과 같은 거야. 질문에 대답해주지. 글썄, 만일 대회에 <립태호>의 이름으로 출전했다고 하여 아무 좋은 일은 없지 않아. 우선 수속이 복잡해질게고 설명하는것도 시끄럽지. 또 조선사람이라 하면 대회에 못나는 사람들의 새암과 질투가 더 심해질거야.》

나는 그의 말을 신중히 듣고있었다.

《오, 그런데 이번 상대가 조선사람이라는것도 참 희귀한 일이야.》

《아니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그애가 조선 이름으로 등록했어요?》

《그렇지 않구.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니까.》

《조선학교?! 조선학교도 전국대회에 참가할수있게 되었나요?》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올해부터 참가할수 있게 되었어. 하긴 수영경기엔 조선학교선수는 없다고 했지. 권투이외에도 몇종목 나가는것같지만 이제까지도 전국대회에서 우승할만하게 강한 선수들도 많았어. 이번 내 상대도 아직 1학년생이지만 〇지방에서 1위로 올라온 실력자야. 그러나 지방과는 달리 중앙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하는 조건에선 긴장하여 아마 제 실력의 절반도 내지 못할거야. 더군다나 그의 상대란 불행하게도 우승후보인 내가 아니겠니?》

야스히로는 자기를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히죽 웃어보였다. 했지만 야스히로가 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였다. 이번 대회는 그가 학생으로서 참가하게 되는 마지막시합이었던것이다. 고급학교를 졸업하면 인차 프로선수가 될 결심을 가진 그에게는 전국학생대회 우승이라는 빛나는 략력이 꼭 필요했다. 그래야만 프로선수로서 리상적인 큰 《후원자》가 붙는것이였다.

나에게는 야스히로의 심정이 누구보다 리해되였다. 나 역시 이번 대회가 고급학교시절의 마지막경기이면서도 그 성격에 따라 선수로서의 자신의 진로를 확정하게 될 매우 중요한 시합이였다. 만일 우승하면 수영감독의 주선을 받아 시설이 더 잘 꾸려지고 유능한 지도원이 있다는 캐나다로 류학을 가게 될것이다. 그리고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무대를 지향한다.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수영을 그만두고 진학하여 변호사가 되련다.

야스히로와 조선학생과의 경기는 첫 시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흥분과 열광의 소용돌이속에서 진행되였다. 나는 몹시 긴장하였었다. 그것은 야스히로의 시합보다도 그의 맞은편에 조선학교응원단이 모여앉아있었기때문이다.

《하야시-기아이 어레떼께!(기백있게!)》 《야스히로-간바레!(잘 하라!)》

나는 응원단의 맨 앞줄에 앉아 그들과 함께 성원을 보냈으나 줄곧 정신은 맞은편의 조선학교응원단 쪽으로 쏠리는것이였다.

《이-겨라 이-겨라 우리 성철 이겨라!》

하나같이 맞추어진 응원소리와 함께 북소리와 팽파리소리가 들려오자 왜서인지 나의 가슴은 설레이고 심장은 높뛰였다.

(내가 어째서 이럴까?)

《땡!》 시작종이 울리자마자 야스히로는 대답하듯 앞에 나가 상대를 밀어내였다. 그는 적극적인 공격의 자세로 편이 타격했다. 조선학교선수는 긴장해서인지 손놀림이 굳었다. 그는 타격을 피하여

링그를 빙빙 돌았으나 야스히로가 타격수를 늘이며 전진해가자 몇번인가 가슴에 타격을 받았다.

《야스히로의 기백이 대단한데-》

《응. 승리는 처음부터 결정돼있는 셈이야. 문제는 몇회전에서 넘어뜨리는가에 달려있어.》

《그렇지. 빠르면 빠를수록 프로에로의 길이 가깝고 간다구.》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나는 귀 간지럽게 들었다.

2회전, 3회전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였다. 그러나 조선학교응원단의 성원은 더더욱 요란해지기만 하였다. 그와 더불어 조선학교선수의 움직임이 민속해졌다. 그도 야스히로 못지 않게 전진하여 타격하곤 하였다. 서로 타격, 타격, 타격의 편속이였다. 나는 차마 불수가 없어 눈을 꼭 감아버렸다.

《에이, 야스히로가 초조해하는구나. 발동작이 굼뻐졌어.》

《그의 타격보다 상대의 타격이 더 센것이 아니야?... 오, 그가 반칙을 쓰누만, 심판이 못보는데서 참 잘해!》

《반칙》이란 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한동안은 야스히로가 우세해졌으나 조선학교선수가 인차 반격을 가했다. 이번에는 야스히로가 빙빙 돌며 그의 타격을 피하다가 또다시 반칙행위를 하였다.심판은 분명히 알면서도 모르는체 하는것이였다.

(야스히로 비겁해! 스포츠정신을 잊었어?)

나는 너무 분하여 입술을 깨물었다. 귀에는 더욱 기세를 올린 조선학교응원단의 성원이 아프게 들려왔다.

《이-겨라 이-겨라 우리 선수 이겨라!...》

그들은 모두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녀학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뛰었고 남학생들은 선수의 움직임을 따라 주먹을 휘둘기도 하였다. 맨앞에 선 응원지휘처너는 팽파리를 치며 뱅뱅 돌았다.

(우리 선수... 자기네 선수란 뜻이겠지. 《우리》 《우리》란 조선학교의 선수를 가리킬가 아니면 조선사람... 그러면 야스히로는? 하야시 야스히로의 이름으로 진출하는 그를 누가 조선사람으로 알가. 야스히로와 나에겐 《우리》의 자격마저 없을가...)

시합은 5회전에서 끝났다. 《우승후보자》이던 야스히로가 처음으로 참가한 조선학교 1학년생에게 패배한것으로 하여 장내는 웅성웅성하였다.

《헛, 망신스럽다. 첫 출전의 <조생>한테 지다니.》

《정말 그래. 그놈때문에 시작부터 불패했어.》

《하지만 꼴 좋지 않나? 그놈은 본시 거만해서 한번 코대를 꺾어야 한다구 생각하고있었네.》

《그만뒤!》

나는 벌떡 일어나 출입구로 걸어갔다. 자연 가까이 와지는 조선학교응원단쪽으로 눈길을 돌리니 거기에는 얼싸안는 사람들, 뺨파리소리에 맞추어 춤추는 사람들 저고리웃고름으로 눈물을 닦는 사람들...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들로 꽉 차있었다.

(그들이 저 선수와 어떤 친분이 있길래 저토록 기뻐할까?)

멍하니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응원지휘처 너가 얼굴을 돌리는 순간 소스라지듯 놀랐다.

그 처녀는 바로 영미언니였다. 언니도 나를 알아 보았다.

《제옥이!》

그는 흥기편 두불에다 움푹하게 불우물을 피우면서 덤비며 다가왔다.

나는 미처 의식하기도전에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뒤흔들며 반대쪽 출입문으로 나갔다.

《제옥이!》

안타깝게 울리는 부름소리에 나의 가슴은 찢어질 듯했다...

밖으로 나온 나는 잠시 숨을 돌리고 마음을 진정시켰다. 문득 야스히로 생각이 났다.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주면 좋을까?)

선수대기실앞에까지 간 나는 몹시 긴장했으나 조용히 문을 열고 방안을 살폈다. 감독이 야스히로의 등을 다독이며 무엇인가 말을 하는데 그는 얼굴을 반대방향으로 돌린 모양이 아마 그 어떤말도 듣지 않는것 같았다. 감독이 야스히로 몰래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문밖으로 나오기에 나는 얼른 자리를 비키며 벽쪽으로 얼굴을 숨기었다.

감독은 내가 있는줄도 모르고 《제기랄, 건방진 녀석!》하고 중얼거리면서 뉘름뉘름 걸어갔다.

(야스히로...)

나는 건디기 어려운 심정으로 다시금 방안을 살피었다.

혼자 방에 남은 야스히로는 한참동안 방안을 왔다갔다 하다가 《아노 죠쟁야로우메!(저 조선녀석이!)》하고 쓰레기통을 찾다.

나는 급소를 찔리운듯 흠칫 하였다. 그 바람에 부지중 문잡이에서 손이 떨어졌다. 《꽝!》 하는 문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누구나!?》 하면서 야스히로가 나왔다.

《...다마미,너였구나. 안에 들어와.》

나는 그 무슨 압박감을 느끼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야스히로...》

《그렇게 동정의 눈길로 날 보지 마!》

《아니예요.다시 기회는 있을거예요.》

나의 목소리는 절로 떨리었다.

《없어!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그는 나의 어깨를 덥석 잡았다.

《싫어요. 손을 놓으세요.》

《다마미, 넌 날 좋아하지? 내가 졌다고 싫어하지는 않겠지?》 하면서 나를 끌어안았다.

《싫어요!》

나는 필사적으로 그의 품에서 빠져나가 냅다 뛰었다. 멀리서 쓰레기통을 차는 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필경 남은 남이야, 저희들의 명예나 한갓 흥미거리로 응원하겠지...

만일 내가 패배한다면 그들은 다 날 시비할것이다. 망신시켰다고. 야스히로가 패배한 그때처럼...

정말이지 이같은 사회에서 그 누가 진짜로 날 위해준단 말인가. 오직 저밖에 모르는 랭정한 사회에서...

결코 남을 위해 수영하지 말자, 살지도 말자, 나는 자신을 위하여 수영할뿐이다!

## 4

5주로 선수는 뒤따르는 선수와 10미터가까이 거리를 두고 마지막되돌기를 하였다. 결승선까지 나머지 45미터...그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는것 같았다. 관객들은 거의다 그의 승리를 확신하였다.

승부결과에 어느정도 흥미가 사라지자 어떤 사람들은 조선학교응원단쪽으로 눈을 돌리며 다시금 수군거렸다.

《파연 저 사람들이 누구 응원하나? 도무지 알수가 없구만.》

《정말 그래, <둥당둥당>, <뺨창뺨창> 그리곤 <야-> 하는 소리밖에는 내지 않으니말이야.》...

숨을 쉬려고 수면위에 얼굴을 들 때마다 선수들의 귀전에도 조선학교응원단의 민족악기소리며 함성이 더욱 푹푹히 들려왔다.

×

영미언니...제발 그만뒀요. 난 언니가 바라는대로 살진 못해요. 난 벌써 언니가 사랑해준 제옥이가 아니예요... 그만뒀요. 제발!

어제밤 나는 오래동안 이불속에서 뒤치락거리다가 끝내 몸을 일으켜세워 창문가로 다가갔다. 창가림을 밀어제끼니 맑은 밤하늘엔 거울과 같은 둥근달이 휘영청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희끄무레하면서도 부드러운 달빛이 마치도 나의 얼굴을 한없이 어루만져주는것 같았다. 불현듯 저 둥근달이 이제껏 이불속에서 생각하던 할머니의 얼굴로 되었다.

(할머니, 이제 몇시간후이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승선이에요. 무척 긴장해요. 하지만 두려움은 없어요. 결과가 어쨌든 내가 나아가길 열려졌으니까요.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어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할머니 날 응원해주지요.)

그런데 할머니는 웃어주지 않았다. 그의 눈이 《그때》처럼 의미심장하게 빛났다.

(할머니... 웃어줘요. 이 손녀가 갈 길을 부디 축복해 줘요...) 허나 할머니는 계속 그 눈으로 나를 여겨본다.

나는 그만 창가림을 달아버리고 다시 이불속에 들어갔으나 안절부절 못하여 아래방으로 내려갔다.

할머니의 웃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라도 보았으면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서랍이며 께짜를 뒤적이는 데 한께짜속에서 《량제옥동무앞》이라고 씌여진 편지묶음이 나왔다. 영미언니에게서 온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봉투에 찍혀진 시일과 함께 《량제옥동무앞》이라는 글씨를 하나하나 보았다. 그것은 무려 서른통이 넘는 것 같았다. 영미언니의 편지묶음 밑에는 내가 언니에게 보낸 편지도 있었는데 불과 다섯 통에 지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우리의 편지를 이렇게 숨겼었구나... 내가 그땐 영미언니한테서의 편지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가. 그러니 나보니 영미언니 더!)

나는 부지중에 편지묶음을 품속에 안았다. 그러자 그속에서 한통이 사르르 떨어졌다. 보니 봉투에는 며칠전의 도장이 찍혀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의 온기가 그대로 느끼지는 것 같은 그 편지를 꺼내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만두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날 생각해서 이걸 보지 못하게 했겠지.) 그것을 도로 께짜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다시금 할머니의 사진을 찾으려 했다. 하나 정신은 자꾸만 편지가 들어있는 그 께짜에 가는 것이었다. 얼마간 나는 혼자 《내전》을 벌려다가 끝내 편지를 꺼내었다.

(이걸 보았다고 내가 어떻게 된단 말인가.)

나는 그 무엇에 반항하듯 편지를 펼치었다. 또박 또박 균형이 잡힌 글씨가 나타났다.

《...할머님이 돌아가신 후 수영을 아주 그만둘 줄 알았던 네가 다시 전국대회에까지 나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정말 반갑고 기쁘게 들었어. 네가 과연 제주도해녀의 후손인가 부다고. 그런데 너는 아직도 《가와무라 다마미》로 경기에 출전한다지? 참 섭섭하구나. 제옥, 너는 멀지 않아 전국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하는 우리 학교 선수들과 응원단의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때 네 심정이 어떨까. 나는 우리의 피를 꿇게 하는 민족장단이며 춤가락이 너의 온몸에 흐르는 피까지도 뜨겁게 끓어오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 제옥아, 너는 그것을 절대 무심히 보고 듣지 말아야 해. 우리의 장단은 순수 민족장단이 아니라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우리들의 고결한 투쟁가란다. 아, 오늘의 전국대회 참가권을 위하여 우리들이 흘린 땀과 노력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까. 어린 유치

원생부터 지팽이를 짚는 늙은이까지 한결같이 떨쳐나 쟁취한 승리의 산물을. 제옥, 넌 아직 많은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네가 아무리 《가와무라 다마미》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네 몸에 흐르는 제주해녀의, 조선사람의 피는 무엇으로 가리우겠니? 이미 편지에도 여러 번 했으나 내가 《가와무라 다마미》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은 더더욱이 가슴을 괴롭히는구나. 진정 내가 얼마나 비겁한 짓을 했을가. 백보 양보한다면서 나는 결국 단일한 방법을 택했을 뿐이지. 내가 범한 과오는 아직은 지워지지 않고 있어. 네가 일본이름으로 살고 있으니 말이야. 내 사랑하는 제옥아, 난 진심으로 권고해. 네가 비록 일본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량제옥의 이름으로 경기에 출전한다면, 나를 포함한 우리 응원단은 너에게 육친과도 같은 뜨거운 정으로 열렬한 성원을 보낼 거야. 비록 우리 학교 선수는 수영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나 우리는 너를 응원하려 경기장으로 간다.

제옥이, 우리 서로 바다에서 헤엄치며 꾸밈없이 웃고 뛰놀던 그때의 모습으로 만나자꾸나!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으며, 고영미로부터.》

나의 가슴은 회오리바람이 인 것처럼 뒤설레었다.

《량제옥》의 이름으로 출전한다! 뺨파리며 복소리가, 영미언니가 날 응원해준다! 전자게시판에는 《량제옥》의 이름이 빛나고 표창장에도 그 이름이! ... 아니 그러나 혹시 내가 졌다면 그들 역시...

눈앞에는 패배한 야스히로의 처참한 모습이 얼른 거렸다.

(그래,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난 이미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살아나가자고 마음먹지 않았는가. 다마미 정신차렷!) 나는 수년만에 영미언니에게 편지를 썼다.

×

장내는 웅성웅성하였다. 결승선까지 20미터를 앞두었을 때 돌연히 5주로 선수의 속도가 눈에 띄게 굼뻐졌기 때문이다. 뒤따르던 선수들과의 거리는 점차 좁혀진다. 극적인 결말을 기대하여 관객들은 우실우실 좌석에서 일어났다.

(저 애가?... 혹시 다리가?)

고영미는 목을 와세처럼 내밀고 5주로 선수를 눈여겨보았다.

바로 고영미의 예측은 맞았다. 5주로 선수는 오른발목에 갑자기 심한 아픔을 느꼈던 것이다...

(아파...아파...!)

나는 힘자라는 것 물을 헤가르며 왼발로 힘껏 물을 찼으나 몸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른발목의 아픔은 더해지기만 하였다.

이제 결승선은 눈앞에 있는데...! 하나 허덕이면



허덕일수록 몸은 무거워지고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숨도 가빠지고 호흡수를 늘여야 했다. 얼굴을 들 때마다 귀에는 점점 멀어져가는 응원소리와 함께 팡파리소리가 은근히 들려왔다...

(제옥, 잘해! 침착해!)

고영미는 입술을 깨물고 팡파리를 힘차게 두드렸다. 다른 응원단성원들도 안절부절하며 북을 치고 손벽을 쳤다. 응원하면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웠다.

《량제옥, 잘해!》

그들은 다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부르고싶었다. 한 남학생이 더는 못보겠다는듯 고영미에게로 다가갔다.

《영미누나, 소리 맞춰 응원하세요! 이름을 부르세요!》

《그건 안돼!...그가 스스로 밝히기전에는 절대로...!》

고영미는 치마속주머니를 꼭 움켜잡았다. 그속에는 경기가 시작되기전에 접수원이 가져다준 편지가 들어있었다.

《...제옥이라 부르며 응원하지 마세요. 언니가 나를 제옥이라 부르는건 자유예요. 하지만 딴 사람앞에서 그렇게 부르는건 허용할수 없어요. 만일 오늘 경기에서 내가 조선사람이라는것이 드러난다면 이때까지의 내 노력은 거품으로 되고말아요. 앞으로의 인생도 망칠거구요. 언니한테 그럴 권리가 없어요!》...

관람객들은 일제히 《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

5주로 선수와 그 량측의 선수들이 한줄로 나란히 섰기때문이다.

안된다!... 이렇게 생각한것은 한참나에 지나지 않았다. 어느새 다가온 두 선수들이 앞으로 쭉나가자 그들의 뒤모습은 점점 희미해졌다.

(이젠 끝장이구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제옥, 침착해라. 다른 손과 발을 움직여...그렇지!)

순간 고영미의 뇌리에는 한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하나... 둘...하나, 둘, 하나, 팔, 하나.》

그 소리는 내 귀가에도 맴돌며 움켜왔다.

(영미언니!...)

나는 저도 도르게 기운을 내고 어릴 때처럼 그 소리에 맞추어 손과 발을 움직였다.

(하나, 둘, 하나, 둘...)

하지만 의연히 마음대로 나가지 못했다. 오른발목은 불에 덴듯 아팠다. 하나 둘...아니, 어쨌든, 이제는 끝장이야. 다리를 바닥에 붙여버리자. 그러면 이 고통에서 인차 벗어날거야. 나에겐 또 하나의 길

이 따로 있으니까. 변호사의 그 길이...)

나는 물을 헤가르던 손을 멈추고 얼굴을 들었다. 수영장바닥에 다리가 쌓으려는 순간이었다.

《제주진주!》

귀천을 따갑게 때리는 그 소리, 그 말...!

불시로 온몸에 전율이 인듯하였다. 물속에 들어가지 눈앞에 할머니의 허상이 얼른 거렸다.

《마음씨 착하고 수영 잘치는 그 제주도해녀의 이름을 제옥이라고 했단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었다.

《제옥아, 어서 여기까지 오려무나!》 그런데 할머니는 두팔을 나에게 펼치면서도 멀어져 가기만 하였다.

《할머니! 할머니!》

나는 그의 손을 잡자고 물을 헤가르며 나갔다. 무슨 마술에 걸리거나 한듯 이상하게도 몸은 점차 가벼워지고 발목의 아픔도 가셔지는것 같았다.

나는 다시금 얼굴을 들어 한껏 숨을 들이마셨다.

《제주진주! 제주진주!...》

그 소리는 마치 우뢰처럼 더욱 크게 울려퍼졌다. (영미언니...! 아, 내가 돌아가야 할 물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2위까지의 선수들이 이미 결승선에 닿았으나 잠내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관객들의 눈길은 한결같이 5주로 선수에게 쏠리고있었다.

3미터... 2미터... 마침내 내가 결승선에 닿은 순간이었다. 조선학교응원단들쪽에서 《와-!》하고 경기장을 진감하는 폭풍같은 환호성이 터졌다. 권투경기에서 패한 하야시 야스히로-림태호가 받았던 팽대와는 너무도 다른 뜨거운 환호성이 줄기차게 터져올랐다.

나는 지금껏 습관적으로 올려다본 전자게시판이 아니라 조선학교응원단이 있는 관람석을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뒤로는 더없이 맑고 푸른하늘이 펼쳐졌다.

그는 안간힘을 써가며 한걸음 한걸음 그들쪽으로 걸어나갔다. 관람석에서 구울듯이 달려내려온 고영미가 나의 손을 잡고 응원단을 향하여 높이 쳐들고 힘껏 흔들해주었다.

또다시 장내에 울리는 환호소리, 북소리, 팡 파리 소리...

《이-겼다 이-겼다 우리 선수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우리 제옥 이겼다.》

눈물이 섞인 뜨거운 목소리는 그칠줄 몰랐다. (제옥...! 내가 돌아와야 할곳은 바로 여기였구나!)

맑은 눈물이 맺힌 나의 눈앞에는 승리를 축하하는 아름다운 꽃바다가 비끼었다. 조선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 량제옥을 축하하는 아름다운 꽃바다가 활짝 펼쳐져있었다...

## 우리 식 우화문학의 혁신적인 면모

—반김영삼주제의 우화들을 읽고—

김경준

최근에 우화작가들은 우화창작전투를 벌리고 특색있는 작품들을 내놓았다.

오래동안 문단의 화재에 드물게 오르곤하던 맑은 형식의 우화문학에 적극적인 관심을 돌리고 노력을 기울이고있다는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만한 일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형태를 다양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작가들이 몇몇 문학형태에만 매달리는 편향을 없애고 역사적으로 발전하여오는 과정에 이미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나타냈을뿐아니라 오늘의 현실과 인민의 요구에도 맞는 문학형태를 전면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우화문학은 오랜 역사적기간에 입말체이야기문학의 한가닥으로 발전해오면서 이미 자기의 독특한 체모를 갖추고 그 기능과 역할을 뚜렷이 나타냈으며 오늘의 현실적요구에도 적합한 생활력을 가지고 독자대중과 친근성을 유지하고있다.

우화는 생활의 극히 한 단면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가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진리와 심각한 교훈을 안겨주는 문학으로서 누구나 생활의 대학처럼 잠깐새에도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우화적인 웃음을 터뜨리고 거기에 담겨진 의미를 깨닫게 할수 있는 매우 짙막한 형태이다.

이러한 우화문학작품을 오늘의 시대적인 높이에서 훌륭히 창작해내는것은 짧은 형식의 문학을 절실히 요구하는 현시기 우화작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며 응당한 사업이다.

이번에 창작된 여러편의 우화작품들을 놓고볼때 무엇보다 주목되는것은 작가들이 시대적인 요구와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향에 맞게 우화문학의 형식과 방법을 보다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키려는 긍정적인 시도를 보이고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서 종래의 우화창작방법의 울타리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현실반영과 형상수법을 우리 식으로 활용해나가는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는것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것은 남조선의 반김영삼주제작품들인 문영철의 우화 《룩손》, 김박문의 우화 《마지막 주소》와 《작별인사》, 정춘식의 우화

《<대통령>의 박식자랑》, 박과준의 우화 《<대통령>의 허리병》 등이다.

《문민대통령》이라고 하던 김영삼이 무지무능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이 세상을 자주 웃기였다는것은 조무래기애들까지 다 아는 사실이었다. 그야말로 김영삼은 국제우화의 《주인공》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는 인간추물이다.

이런 인물을 우화문학에서 풍자비판하는것은 오늘의 시대적인 요구이며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향이기도 하다.

바로 이번에 반김영삼주제의 우화들에서는 이런 추악하고 추물적인 물골의 김영삼을 직접 그대로 우화의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풍자조소의 쓰거운 경멸의 웃음과 심각한 교훈을 드러내고있는것이다.

우화 《룩손》에서는 고향이랍시고 부산에 내려간 영삼이가 옛 친구를 만나 악수를 하는 계기를 주고있다.

작품에서 주인공 영삼이는 자기에게 선거표를 던진 그 고장 사람들이 손가락 하나씩 잘라버렸다는데 그래도 옛 친구의 다섯손가락만은 그냥 남아있다고 하면서 《자넨 역시 내 친구야.》 하며 아주 만족해하는 바보스러운 풍자적인 성격을 드러내고있다.

한편 발라맞추는데 선수들인 기자들이 때를 만났다고 《대통령》의 옛친구 손을 사진 찍는다, 마이크를 들이댄다 하며 법석거린다.

이때 옛 친구는 쓰겁게 웃고나서 기자들에게 《난 원래 손가락이 여섯이였소.》 라고 내뱉는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그래도 옛친구라고 하는 사람조차 돌아보지 않는 《대통령》 김영삼이의 가련하고 외로운 물골을 풍자적으로 드러내고있으며 그런 어리석은자에게는 단 한사람의 옛친구도 있을수 없다는 결론을 암시하고있다.

우화 《마지막 주소》 역시 주인공 김영삼이 《대통령》임기가 끝나갈무렵의 어느 한 깊은 밤을 우화적인 계기로 포착하였다.

작품에서는 번거로운 생각에 잠못들고 뒤치락거리는 영삼이에게 너편네가 점을 쳐보자고 하는것으로부터 풍자적인 성격을 드러내게 하고있다.

영삼이는 점쟁이를 불러다 《내 인생말년의 맞이 어데 내려질것 같은가?》 라고 지껄이며 너편네와

함께 (하와이? 카나나? 아니면 그 어느 명승지?...)  
하고 실눈까지 지어본다.

그러나 점괘를 고르던 점쟁이의 손에서는 《감옥!》이라고 새겨진 점괘가 떨어진다.

이때 영삼이는 가슴이 철렁했으나 바보성격 그대로 태연히 웃기까지 하며 너편네와 둘이 점이 틀렸다는등, 잘못되었다는등, 《흥, 잘은 맞힌다》는등, 점쟁이가 제 정신이 아니라는등 하면서 코방귀까지 불어 댄다.

그러자 점쟁이는 쓴 입을 다시며 《정신나간건 내가 아니라 대죄를 짓고도 부귀영화 꿈꾸는 바로 당신들이요! 점괘가 틀렸다면 감옥이 아니라 지옥으로 돼야 옳을걸 그랬소!》 하고 한마디 내뱉는다.

이처럼 우화에서는 《감옥》이라고 새겨진 점괘를 보고도 김영삼이 죽을상을 하는것이 아니라 태연히 웃기까지 하면서 너편네와 함께 점쟁이를 오히려 《나무람》하기까지 하는 몰골을 통하여 제치지도 모르는자의 성격을 풍자적으로 드러내고있으며 점쟁이의 입을 빌어 민족앞에 큰 죄를 지은놈이 같길은 정해놓은 죽음의 길이라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두 우화의 내용에서는 김영삼이의 생활을 직선적으로 반영하고있으며 형상에서 역사의인화나 과장의 수법이 아니라 현실생활 그대로를 객관화하는 방법으로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는 우화문학의 내용에 현실을 반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나 그 형상수법에 있어서 거의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옛 우화적인 수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야 할것이다.

다시말해서 우화적인 현실반영과 형상의 독특한 특성에만 의거하면서 그 현실반영의 방법과 형상의 다른 수법적인 측면에 대하여 관심을 크게 돌려오지 못하였다.

물론 우화가 악한것과 미운것, 그른것을 내용으로 하며 비판과 풍자해학적으로 심각한 교훈을 엮어주는 형상의 본질적성격은 변할수 없다. 우화가 자기 체모를 갖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성격을 떠나서는 자기의 존재를 론할수도 없는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화의 력사가 몇세기를 걸쳐오는 오늘까지 현실에 대한 비판정신의 내용을 비유적으로 반영하는것이라든가, 의인화 또는 과장의 수법으로 형성하는것과 같은 테두리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데 있다.

물론 지난 시기 다양한 주제의 우화들에서 기발한 착상과 특색있는 내용, 재치있는 형상적기교를 보여준 개성이 뚜렷한 성과작들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우화작품들도 어디까지나 인간과 생활을 우회적인 에두름과 비유된 내용으로 굴절시

켜 보여주고있을뿐 현실반영과 형상의 면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면모라고 할수는 없다.

결국 우화창작에서는 우회적인 방법과 과장의 수법과 같은 독특한 수법에 의해서만 이야기가 꾸며지는것으로 인식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세계적으로 우화의 력사가 제일 오래다고 하는 고대그리스의 이소프우화들이나 프랑스의 라퐁테스우화들 로씨야의 크릴로브우화들을 놓고보아도 작가들의 개성과 해당 년대의 사회적환경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후세에 와서 그 현실반영방법과 형상수법의 면에서시는 전세에 비한 혁신적인 면모가 뚜렷하지 않다.

그 원인은 우화의 발생초기 사회정치적환경과 조건에서 해당 사회와 인간들을 직선적으로는 비판할수 없었던 사정과 관련되는것으로 이소프나 라퐁테스, 크릴로브가 각이한 차이에 놓인 시대와 국적을 가지고있다고 해도 지배와 예측에 처했던 그들의 사회계급적처지가 공통되었다는 점에서 찾아볼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우리 나라의 과거 사회환경에서도 현실에 대한 부정비판을 비유적으로 에둘러 표현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런것만큼 우화의 이야기는 거의나 의인화된 이야기가 아니면 과장된 이야기 등으로 비유되어 왔으며 그것은 우화에서 현실반영과 형상방법의 유일한 방식으로 여겨오게 되었다고도 할수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 우화작가들이 시대발전의 견지에서 종래 우화창작방법의 일면성을 극복하고 현실을 새롭게 반영하며 형상의 새로운 높이를 보장하려고 시도한것은 주체적이며 혁신적인 자세가 아닐수 없다.

우리 시대는 지배와 예측을 영원히 지구밖으로 몰아가는 승승장구의 높이에 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탄압과 박해를 피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태도를 비유적으로만 표현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김영삼이와 같이 인간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동족을 짓밟으려는자들에 대해서는 에두를것도없이 면전에서 타격을 가해야 한다.

그런자들의 사고와 행동은 시대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날뛰는 비정상적인 망동으로서 그대로가 풍자적이며 조소와 경멸을 낳기마련이다.

우화작가들은 바로 이러한 오늘의 현실적조건과 환경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새로운 현실반영과 형상의 혁신적인 면모를 보장하였다.

우화 《<대통령>의 박식자랑》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자.

김영삼이 어느날 줄개들을 불러놓고 그래도 《대

통령》이랍시고 점잖게 지껄이기를 《여보, 총리, 당신은 내가 어째서 <한국>의 시장을 워싱턴에 맡겼는지 아오? 국방부장관, 당신은 내가 어째서 군에 대한 통수권을 <백악관>의 손에 그냥 두었는지 아오?》하고 묻는다.

줄개들은 입을 다물고 《대통령》의 얼굴만 쳐다보는데 영삼이는 계속 지껄여댄다.

《그것보오, <대통령>에 하는 일 잘 모르면서 날더러 저능아다 꼭두각시다 비난들을 한하는데 내참, 누가 저능아인지 모르겠단말이요.》

그리고는 창문가에 자라고있는 유자나무에서 파란 이파리 하나, 열매 한알 따들고 이파리는 총리에게, 열매는 국방부장관에게 주면서 《여, 총리, 그 파란 잎은 당신이요. 그래 그 앞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것 같소? 국방부장관, 그 열매는 당신이요. 그래 그 열매의 목숨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생각해 보았는가?》라고 물음을 제기한다.

줄개들은 두눈만 껌껌거리며 서로 눈치만 살피는데 어깨가 잔뜩 올라간 영삼이 이번에는 유자나무의 뿌리를 뽑아들고 하는 말이 《당신들이야말로 저능아들이요. 그래 그 잎과 열매와 줄기를 살리는 이 유자의 뿌리가 누구를 넘두해두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소?》라고 한다.

그제야 줄개들은 모두숨을 내쉬며 《아, 우리 각하가 현명하신걸... 우리의 목숨이 미국에 있다는것을 유자나무로 비유한 <대통령>이 이 세상에 과연 있겠습니까? 없습지요.》하고 발라맞춘다.

우화의 내용에서 보는바와 같이 저능아라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김영삼이의 물골을 우화적인 각도에서라기보다 그 생활을 실지 눈으로 들여다 보는 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자기의 저능아적인 성격을 가리워보려고 어처구니없이 행동하는 김영삼이의 바보스러운 면모가 얼마나 풍자적으로 드러나고있는가.

결론부분에서 두 줄개가 모두숨을 내쉬며 《아, 우리 각하가 현명하신걸... 우리의 목숨이 미국에 있다는것을 유자나무로 비유한 <대통령>이 이 세상에 과연 있겠습니까? 없습지요.》하고 발라맞추는 말은 또 얼마나 조소적이고 야유적인가.

그것은 바로 《당신같은 저능아가 이 세상에 과연 있겠습니까? 없습지요.》라고 하는 야유인것으로서 김영삼이같은 저능아가 정권을 잡고있는이상 남조선은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교훈을 암시하고있다.

이처럼 김영삼이같은 인간추물의 생활을 지난시기 우화에서처럼 부정일반의 비유된 생활내용으로가 아니라 부정왕조의 생활내용을 현실 그대로 옮겨놓음으로써 풍자성과 교훈성이 보다 더 강해지게 되었다.

흔히 우화에서는 토끼나 여우, 승냥이 등과 같은 의인화된 인물들이 등장하는것으로, 간혹 직접 사람주인공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현실생활에서는 보기 어려운 엄청난 이야기로 표상짓는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우화라는 말자체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된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적들의 생활을 풍자하는데서나 우리 인민들의 현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을 비유적으로 재미있게 보여주는데서 효과적이것만은 사실이다.

그것은 의인화수법이나 파장의 수법이 풍자해학적인 요소가 많고 다양한 인물을 우화적형상으로 보여주는데서 효과적인 수법으로 되기때문이다.

포악한 승냥이나 이리, 여우 그리고 어리석고 겁이 많은 너구리나 오소리 등이 각이한 부정의 차림새로 우화의 형상에 수없이 끌려들어와 독자들을 웃기고 술한 교훈을 남겨놓았다.

또한 파장의 수법으로 하여 생활에서 있을번한 일도 몇배로 확대시켜 보여줌으로써 역시 우화의 풍자해학성을 높여왔다.

이번에 반김영삼주제와 동시에 나온 문영철의 우화 《불타버린 제왕》의 경우만 놓고봐도 잘 알수 있다.

이 우화는 의인화와 과정의 수법을 재치있게 결합한 작품이다.

우화는 하늘의 《제왕》이라고 우쭐대던 독수리가 자기 그림자자 흉측한 까마귀같은것한테 어지럽힌다는것을 알고 그림자를 해우에 옮기려고 어리석게 행동하다가 망하는 꼴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자기를 모르고 분별없이 날뛰는자들의 말로를 이야기하고있다.

작가는 부정의 풍자적인 면모를 가장 예리하게 드러낼수 있는 매우 기발한 착상을 하였다. 즉 자기 수준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수 없는 일을 할것처럼 우쭐렁거는 인물성격의 의인화대상인 깃털을 가진 독수리와 해의 관계이다.

날새중의 《왕》이라고 할수 있는 독수리가 제아무리 하늘높이 날수 있다 한들 해우에야 오를수있겠는가.

이것은 퍄수없이 허세를 부리는 부정을 보다 풍자적인 성격으로 끌어낼수 있는 가장 알맞는 의인화대상인것이다.

여기에서 또한 독수리가 하늘의 해우에 날아오르겠다고 날뛰다가 해의 열기에 불타버렸다고 하는것은 심히 과장된 표현이 아닐수 없다. 해를 향해 아무리 높이 날아올랐다 한들 분에 끄스 깃털들이 떨어져내릴 정도로 그 가까이에야 어떻게 오를수있단 말인가.

하지만 하늘을 높이 난다고 하는 독수리의 생태



적특성과 뜨거운 해빛을 발산하는 해와의 관계로 하여 아주 생동한 우화적형상으로 안겨온다.

결국 이 작품에서 의인화와 과장의 수법을 떼어 놓으면 우화라고 말할수 없을것이다.

이처럼 우화에서 의인화와 과장의 수법은 필수적인 형상수법이라고 말할수 있다.

하지만 반김영삼주제의 우화작품들에서는 우화의 이러한 수법들에 의거하지 않고있는것이다.

그러면 이 우화들이 꾸며내거나 과장된것이 아니고 실체한 이야기란건가? 인간추물인 김영삼이가 국제우화의 《주인공》으로 공인된 인물이니 직접 우화의 인물로 내세운다치고 그래도 과장된 이야기 쯤이야 돼야 하지 않을까? 우화인데. 아니다, 과장과 생활의 꾸밈은 서로 다르다.

임의의 작품에서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생각해 보자.

감옥으로 떠나는 아들과 그 아들 바래우는 애비 마주섰다.

애비놈은 여우눈알 살살 굴리고 아들놈은 승냥이 눈깔 지릅뜨고...

(급할 땐 도마뱀도 제 꼬리 자르고 살아난다는데 ...)

(제 새끼 잡아먹는게 망둥이라더니 흥, 두고보자.)

《아들아, 리해하거라, 부자지간에 오죽하면 널 감옥에 보내겠느냐.》

《아버지도 리해하셔요. 그 돈을 내 혼자 먹지않았다는걸 세상에 말한다 해도 말예요.》

영삼이 얼굴빛이 까맣게 질렸다.

그 모양 깨고소히 쳐다보며 아들놈 한번 더 이죽거렸다.

《작별인사는 이만하자요. 아버지도 인차 뒤따라 올텐데요워. 우린 부자지간인데 어떻게 갈라져 살수 있겠나요!》

-우화 《작별인사》중에서 보는것처럼 우화는 《대통령》인 제 애비의 등을믿고 술한 돈을 부정으로 처먹고 온 세상의 규탄대상으로 굴러떨어진 아들놈과 영삼이와의 관계를 토막지어놓은것이다.

작품에서는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는 속담 그런데 없다는 결론과 함께 부정과 협잡의 부자지간은 함께 망하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있다.

이 우화의 내용에서는 과장된 표현을 찾을수가없다.

급할 땐 도마뱀도 제 꼬리 자르고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영삼이의 속대사라든가, 제 새끼 잡아먹는게 망둥이라더니 두고보자고 하는 아들놈의 욱버르는 소리가 과장된 표현이겠는가? 《대통령》의 허울을 뒤집어쓰긴 했지만 심본 그럴수 있는 인간추물이며 또 그 아들놈의 죄행도 세상이 다 아는 사

실이 아닌가.

미국사람들앞에서 어찌나 굵신거렸는지 허리가 아파하는 김영삼이에게 명의라고 하는 사람이 《각하! 그 병은 의술로는 못고친 불치의 병입니다. 미국이란 말만 들어도 허리가 굵신거려나는 <한국대통령> 종신 체질병이니까요.》하고 진단결론을 내리는 우화 《<대통령>의 허리병》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는 비록 《대통령각하》에게 등장인물인 의사가 맞대놓고 야유와 조소를 터뜨리고있다. 그것은 텔레비존화면을 보고도 《각하》의 허리증상을 알아맞히는 명의사의 《진단》인것으로 하여 아주 자연스럽다.

이와 같이 우화의 내용과 형상에 있어서 지난시기의 우화적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오늘의 새로운 각도에서 현실을 반영하고 그 형상성을 높이려는 혁신적인 시도를 놓고 필자는 우화작가들의 의도를 다시금 엿보게 된다.

그것은 종래의 우화들에서처럼 비유된 내용이나 의인화된 인물 등으로써는 반김영삼주제의 이야기를 보다 풍자적으로 예리하게 형상할수 없었다는 사정이다.

지난 시기에도 김영삼이와 같은 남조선괴뢰들과 제국주의 반동세력들의 침략적이며 반인민적인 본성과 교활성을 풍자비판하는 우화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비유된 내용이나 동물의인화 또는 과장된 이야기에서는 해당 의인화대상의 특성과 그 생활과장의 한도를 벗어날수 없는 사정의 《틀》에 머물러야만 했다. 그러다나니 현실속에 실지 있는 부정들이 저지르고있는 행위보다도 우화에 반영된 이야기가 《가벼워》지거나 풍자해학적인 《맛》이 들지 않는 경우도 종종 맞다들리지 않을수 없었다.

물론 앞에서 실례를 든 우화 《불타버린 제왕》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 부정인물들을 의인화적으로 처리하거나 그 생활을 확대과장하는것이보다 효과적인 때가 없지 않다.

그런데 오늘 시대의 인간쓰레기들속에는 승냥이나 여우 등에 비유하거나 그 생활을 과장함으로써만 우화적인 효과를 높일수 있는 대상도 있는 반면에 그와 반대의 대상도 있다.

특히 김영삼이와 같은 경우는 짐승같은놈이라기보다 짐승만도 못한놈이라 해야 할것이다. 짐승도 낮을 뽕힐 인간추물의 제 1 부류에 속하는 그런자는 오히려 짐승의 가족을 씹어놓기보다도 사람의 옷을 입은 그대로 보여주는것이 더 우화적인 《맛》을 내는데 효과적일것이다.

그놈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성격은 세상이 다 아는 웃음거리이다. 여기에 구태여 과장의 《구미》나 《양념》을 덧놓을 필요가 없다. 생활에 대한 인



간의 상상이 비치는 과장의 판도를 벗어나 그야말로 생뚱한것들을 빚어내는 그런자의 생활을 더 과장하러 든다면 오히려 우화적인 진실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러한 대상의 독특한 특성에 맞게 이번의 우화작품들은 그 내용의 반영과 형상적인 높이를 특색있게 보장하고있는것이다.

반김영삼주제의 우화작품들을 놓고 우화문학의 혁신적면모를 찾아보게 되는것은 또한 독자대상성을 명백히 규정한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시기에도 우화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으로 이론적으로나 창작실천상에서 이야기되어있다.

본래 우화는 어른들에게 생활의 교훈을 주기 위한 문학으로 발생되었고 그 발전과정에 동화와 비슷한 의인화, 환상, 과장 등의 수법으로 이야기되는 것으로 하여 아이들도 좋아하는 문학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우화에서는 성인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을 폭로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아이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내용도 적지 않다.

그런데 어느때부터인지는 몰라도 우화는 거의나 아이들의 《독점물》로 되어버리고 말았다. 성인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는 훌륭한 이야기들인데도 우화는 《아이들의 이야기문학》이라는 인식이 더 많아졌다.

그것은 우화를 흔히 그 내용에는 관계없이 아동들의 잡지에서 동화와 《동거》를 시키는것만 보아도 그렇고 간혹 녀성들의 잡지에 한두편을 《분가》시켜 자녀들에게 들려주도록 하고있는데서, 《우화집》이라는 《독채》가 나와도 그것을 주로 아동책방으로 날라다 《아동용》으로 팔아주고있는 현상이 잘 말해주고있다.

이러한 우화의 일반적인 인식은 우화작가들속에서도 없지 않다.

때문에 어른들의 생활에서 심각한 문제를 잡고 형상작업을 하면서도 저도모르게 자연히 아동독자들을 그려보기도 한다.

물론 아이들도 좋아하는 문학인것만큼 그들에게 주는 우화를 보다 많이 창작해야 하는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어른들에게 더 심각한 교훈을 줄수 있는 소재를 쥐고서도 아동의 시점에서 형상을 탐구한다면 그 열매는 제대로 익히기 어려울것이다. 성인들에게 알맞는 생활내용에다 생뚱같이 《아이》을 발라놓으면 우화가 저조해질수밖에 없다. 마치 《어른도 보고 아이도 보라》는 식으로 결국 어른독자도 아동독자도 다 잃게 되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반김영삼주제의 우화들에서는 대상성의 견지에서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창

작적인 사색을 하였다고 보아진다.

이번 우화들의 내용과 형상은 철저히 성인들을 대상으로하는것으로 일관되었다. 우화들의 내용과 거기에서 우러나는 철학성이라든가 교훈적인 의미는 어른들의 시점에서 더 심각해진다.

우화 《<대통령>의 박식자랑》에서 유자나무의 뿌리를 미국으로 비유하는 어리석은 《대통령》을 보고 그 줄개들이 그앞에서 《야, 우리 각하가 현명하신걸》, 《누가 감히 각하를 저능아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미국에 있다는것을 유자나무로 비유한 <대통령>이 이 세상에 과연 있겠습니까?없습지요.》라고 《추어》올리는 결론을 보라.

아이들은 이 경우에 극상해야 그 줄개들도 다같은 머저리로밖에는 이해하지 못할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는것은 다름아닌 그 줄개들이다. 그 줄개들을 영삼이와는 다른 인물로 형상한것도 아니다. 때문에 줄개들의 입에서 터지는 그 《탄성》이 우화적결론인것도 아니다. 하지만 어른 독자들에게는 그 줄개들의 말그대로 《입에 꿀바르고 하는 소리》가 아이들에게처럼 끝이 끝대로 들리지 않고 《누가 각하를 저능아라 하지 않겠습니까...》로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 결론에서 마지막 결구에 《없습지요.》라고 하는 덧붙임말만 보아도 얼마나 야유적이며 조소적인 색깔을 띠고있는가.

만약 우화의 결론이 명백하게 되어야 한다고하여 그것을 직선적으로 그 줄개들의 입으로 《바른 소리》를 내게 하거나 《대통령》의 앞이라 감히 소리를 못내고 《웁은》 속대사를 하도록 처리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모름지기 억지스러울것이다.

그야말로 격이 떨어지는 작품으로 진실성까지 잃게 되고말았을것이다. 참으로 《대통령》과 그 줄개들의 관계들 생활적으로 재치있게 처리하고있는 결속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화들은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풍자적요소를 짙게 깔고있으며 독자들이 다시한번 곱씹어 음미해보도록 여운을 조성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풍자대상의 특성에 맞게 또한 독자대상성을 고려하여 그 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 작가들은 이 자그마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높은 혁명적기개와 창작적양양의 분위기속에서 우리 문학의 보다 새로운 혁신적면모를 갖추기 위한 진군길을 계속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